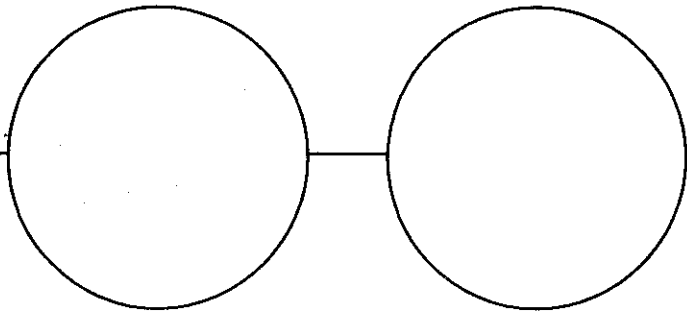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태를 알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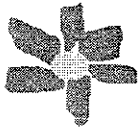
고도아아아
○○○○
공동체 교육

후원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목 차

 관찰	1
 마포구 공동육아의 성미산 살리기 - 작은 산 살리기와 공동육아 -	19
 이야기와 함께 하는 생태	43
 놀이와 함께 하는 생태	73
 노래로 배우는 생태	85

관찰



관찰



사례 1) 나들이 하면서 관찰하기(초등학교)

로제트

입시추위라고, 입시 때만 잔뜩 춥더니, 오늘은 햇살이 제법 따뜻하네요. 요즘은 아침에 너무 추워, 햇살이 좀 따뜻해지면 10시쯤 나들이를 나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계속 겨울눈과 로제트를 보고 있습니다.

두해살이풀과 여러해살이풀 중에는 땅바닥에 잎을 납작하게 깔고 겨울을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줄기가 매우 짧아서 뿌리에서 잎이 바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양이 마치 장미꽃 같다고 해서 로제트라고 합니다. 또 땅바닥에 바짝 달라붙어 자라는 모양이 방석처럼 생겼다고 해서 방석 식물이라고 한답니다.

로제트 식물은 키가 큰 식물에 가려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키 작은 식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 로제트 식물의 잎을 살펴보면, 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겹치는 부분이 적게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로제트 식물로는 망초·달맞이꽃·민들레·방가지뚥·지칭개·쇠서나물·냉이·꽃다지·고들빼기 등이 있습니다.

눈을 돌려 땅바닥을 보면 얼마나 많은 로제트들이 땅을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직 색도 파랗고,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있지 않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잎이 무성해지고, 땅바닥을 넓게 그리고 딱 붙어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들이 때마다 로제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나들이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봐요. 로제트만 보고 구분이 잘 안가는 식물들이 무척 많습니다. 꽃이 필 때 꽃만 열심히 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잎과 줄기를 모두 자세히 관찰해야겠어요.

로제트를 지금부터 관찰해서 봄에 새 잎과 줄기,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식물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꽃이 다 졌다고, 내년부터 나들이를 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겨울눈과 로제트를 관찰하면서 나들이를 시작해요. 나들이 덕분에 저는 감기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식물관찰-겨울눈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고 있지요. 요즘은 학교에 출근하면 자욱한 안개가 저를 반깁니다. 안개속으로 나들이를 가기가 힘들 때면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려 아이들과 나들이를 갑니다. 1년간 나들이를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나들이의 생활화입니다. 나들이를 아이들에게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제 몸에 익히고, 저의 즐거움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즐거움을 아이들과 같이 나누

려고 노력했지요.

그렇게 하니, 아침마다 아이들도 저도 나들이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요즘은 나들이에서 겨울눈과 로켓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나무들은 잎차루 옆에 겨울눈을 가득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기를 키우듯 새록새록 키우고 있지요.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무에 아기가 수백개나 있는 것 같아요."

나무마다 각기 다 다른 겨울눈을 보면 아이들은 너무나 신기해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겨울눈이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목련 겨울눈이 무척 많이 자랐어요. 한마디 반이나 되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선생님, 겨울눈을 보면서 식물도 생명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겨울눈이 하지에 만들어 진다는 것을 안 아이들은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무처럼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기로 다짐도 했지요. 춥다고 교실에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지금 바로 운동장으로 나가보세요. 아름다운 단풍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짝 숨은 겨울눈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례2) 강화에 살면서 식물 관찰하기

*참고 : 절기, 피는 꽃, 씨 뿌리기, 옮겨심기는 [주말농사 텃밭가꾸기(?)]책자에 나온 내용이고, 초후, 중후, 말후는 [달력과 권력] 가운데 '칠정산 내편'에 실린 24절기 72후 내용임

3월 21일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피는 꽃 : 목련, 개나리

씨 뿌리기 : 호박, 고구마, 감자, 상추, 가지, 대파1차, 부추1차, 홍화

초후(3월 21일-25일) 남쪽에서 제비가 날아온다.

제비꽃 꽃봉우리가 맺다.

개망초가 자라다. 3-4cm

꽃다지도 나오다. 1-2cm

냉이도 나오다. 1-2cm. 꽃이 핀 냉이도 있다.

3월 23일(일)

감자씨를 묻다.

중후(3월 26일-30일) 우뢰소리가 들려온다.

3월 29일

달래가 자라다.

별꽃 나물이 자라면서 꽃을 피우다.

비닐하우스안에서 고추가 7cm 크기로 자라다.

(고추는 씨앗-떡잎-본잎이 나오면 모판에 옮겨심는다.)

냉이꽃이 하얗게 피다.

미나리가 5cm정도 자라다.

부추는 10cm가 넘게 자라다.

제비꽃이 많이 피다.

썩도 제법 크다.

말냉이는 꽃봉우리를 맺다. 19cm쯤 된다.

늑대거미들이 무지 빠르게 달린다.

수영이 크게 자라다.

개망초꽃도 자라다.

벼룩이자리도 자라다.

민들레도 자라다.

지칭개도 자라다.

지느러미 영경귀가 크게 자라다. 긴 잎은 20cm길이고 자라다.

원추리도 자라다.
애기똥풀도 자라다.
18점 무당벌레와 꽃 무당벌레를 보다.

말후(3월 31일-4월 4일) 금년 처음으로 번개가 치다.

4월 5일 청명. 밝고 화창하다.

피는 꽃 : 복숭아꽃, 진달래꽃
씨뿌리기 : 토마토, 오이, 참외, 봄배추, 옥수수, 시금치1차

초후(4월 5일-4월 9일) 오동나무는 꽃 피기 시작한다.

4월 6일

숨나물 꽃이 피다.
개별꽃도 피다.
쭉이 쭉쭉 크다.
냉이꽃, 말냉이꽃이 하얗게 피다.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다.
별꽃나물도 키가 크고 하얗게 꽃이 피다.
씀바귀도 자라다.
하얀 민들레도 피다.
진달래꽃이 한창이다.
제비꽃도 한창이다.
두릅나무 꼭대기에 두릅이 맺다.
취가 잎을 두 개 내다.
현호책(알뿌리)이 꽃을 피우다.
할미꽃 가운데는 머리를 하얗게 낸 것도 있다.
개별꽃도 많이 피다.

중후(4월 10일-14일) 들쥐는 자취를 감추고 종달새가 온다.

4월 13일

갈퀴덩굴이 자라다.
뱀밥이 쇠뜨기로 변하고 있다.

말후(4월 15일-19일) 하늘에 무지개가 비로서 나타난다.

4월 20일 곡우 곡식이 잘 되는 비가 내린다.

피는 꽃 : 산철쭉, 유채꽃
씨 뿌리기 : 수박, 토란, 들깨, 생강, 벼, 목화
옮겨심기 : 가지

초후(4월 20일-24일) 마름(언뜻엔 나는 1년생 초, 뿌리는 흙에 박혀 있으나 잎은 물위에 뜬다)

- 산피불주머니가 꽃을 피우다.
- 절레꽃 봉우리가 맺다.
- 민들레가 지천에 봉우리를 맺거나 피다.
- 말냉이는 꽃잎속에 씨앗을 담고 있다.
- 애기똥풀 꽃이 피다.
- 배꽃이 피다.
- 사과꽃은 봉우리를 맺다.
- 앵두꽃은 지고 있다.
- 자두꽃도 지고 있다.
- 복숭아 꽃이 피다.

중후(4월 25일-29일) 산비둘기가 그 깃을 던다.

4월 27일

- 절레꽃이 붉게 피다.
- 말기꽃이 하얗게 피다.
- 배꽃은 시들어 가고 있다.

말후(4월 30일-5월 5일) 뽕꾸기가 뽕나무에 내린다.

5월 1일

- 고구마 심을 준비를 하다.-고랑을 켜고 비닐을 씌우다.
- 옥수수 모종을 옮겨 심다.
- 콩모종도 옮겨 심다.
- 미나리 냉이 꽃이 피다.
- 꽃마리도 꽃이 피다.

5월 4일

- 수수를 물에 담그다.
(하룻밤 지나 물에서 꺼내 수건 위에 놓고 따뜻하게 해서 비닐하우스에 며칠 둔다. 비닐하우스에서 싹이 트면 모판에 심는다. 조금 자라면 모종을 한다.)
- 고구마를 심다.
(고구마순을 구멍을 낸 곳에 물을 주고 심는다.)
- 뽕리벵이가 꽃을 피우다.
- 미나리냉이도 꽃을 피우다.
- 개불알풀(봄까치꽃), 선개불알풀 꽃이 피다.
(개불알풀꽃은 아침에 피기 시작하여 저녁에 오픈리다.)
- 조개나물, 광대나물 꽃이 피다.
- 갈퀴덩굴이 자라다.

토끼풀 꽃이 피다.
별꽃, 개별꽃, 쇠별꽃이 피다.
벼룩나물꽃도 한창이다.
앵두열매가 열린다.
사과꽃이 지고 있다.
뚝새풀이 피다.
쟁의 밥이 피다.
주름잎(얇은 주름잎)꽃이 한창이다.

5월 6일 입하 여름기운이 일어난다.

피는 꽃 : 아카시아꽃, 이팝나무꽃
옮겨심기 : 고추, 오이, 호박, 옮겨심기

초후(5월 6일-10일) 청개구리가 운다

중후(5월 11일-15일) 지렁이가 땅에서 나온다.

5월 11일

우리 비닐하우스 안에는 고추, 상추, 배추가 자라다.

고구마 순도 자라다.

윗밭에는 파가 꽃을 피우려고 봉우리를 맺고 있다.

옥수수 모종을 옮겨 심었다.

긴 밭에는 고추, 옥수수, 감자, 콩을 심었다.

고개 너머 밭에는 고구마와 콩을 심었다.

붓꽃이 피다.

감나무 잎이 연노랑게 자라다.

질경이가 자라다.

비듬나물이 자라다.

명아주가 자라다.

지칭개꽃 봉우리를 맺다.

영경퀴꽃이 피다.

개구리자리꽃이 피다.

파꽃이 피다.

갯완두꽃이 피다.

5월 15일

딸기가 익기 시작하다.

아카시꽃이 피다.

파꽃이 피다.

참외순을 옮겨 심다.

가지순도 옮겨 심다.

토마토 순을 옮겨 심다.

말후(5월 16일-5월 20일) 왕가가 나온다.

5월 20일

대추나무 잎이 나서 자라다.

지칭개, 영경귀 꽃이 지천으로 피다.

아카시꽃이 만발하다.

갈퀴덩굴에 노랗게 꽃이 피다.

모내기를 하다.

고구마를 심다.

상추를 뜯어 먹다.

참외, 오이, 가지를 옮겨 심다.

감자꽃이 피다.

딸기가 익다.

애기뽕풀 꽃이 씨를 맺다.

짚레꽃이 피다.

토끼풀이 만발하다.

5월 21일 소만 양기가 총만해진다.

피는 꽃 : 배롱나무(백일꽃) 꽃 1차 핏

씨 뿌리기 : 참깨, 무1차

옮겨심기 : 토마토, 수박, 참외, 고구마, 상추, 들깨, 부추 2차, 버



사례3) 원종이 방죽 주변 식물 관찰하기

익모초

‘엄마에게 이로운 풀’ 이란 뜻이에요.
여름에 더위 먹은 사람에게 생즙을 내어 주던 아주 고약한 쓴맛의 풀이지요.
즐거리를 만져보세요. 다른 식물과 어떻게 다른가요?

쇠무릎

소의 무릎이 어떻게 생겼지?
궁금하다면 이 풀의 마디를 자세히 보세요.
무릎의 관절처럼 불룩불룩한 마디 때문에 이름이 지어졌지요.

수크령

“어! 강아지풀이 왜 이렇게 크지?” 하고 놀라는 풀이에요.
만약 소꿉장난을 한다면...
이 풀을 뽑아서
'우리아기 우유병을 닦는 솔로 써야지.'

그령

어렸을 적,
기나긴 독길을 걷다가 지루하거나 심심해지면
이 풀을 묶어 고리를 지어놓고 뒤에 오는 친구들을 기다렸지요.
‘누가 저 고리에 걸려 넘어질까?’

애기마름

물 위를 레이스처럼 장식하는 풀입니다.
잎 주위에 공기주머니가 있어 물 위에 뜰 수 있지요.
가시가 달린 독특한 생김새의 밤 맛이 나는 열매는 삶아먹기도 합니다.

말즘

항상 잠수한 채로 사는 풀이에요.
꽃에게만 슬며시 물 밖 세상을 구경시켜주지요.
물 속에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일까?
물고기들이 자주 찾아와 알을 낳고 가지요.

창포

향긋한 향내가 나고 물을 깨끗하게 해 주는 풀이에요.
단오에는 삼푸 대용으로 몸이 베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잎 끝을 자세히 보세요. 칼 모양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뀌

"여뀌먹은 피라미 같다?"

매운맛이 나는 이 풀을 짓쪼개 개울에 풀던
물고기들이 독에 취해 둥둥 떠오르게 되지요.
물고기를 잡는 풀, 일명'어독초'라고도 부르지요.

바랭이

농부들이 이 풀을 보면 아마 "어이구! 지겨워"하실거예요.
마디마다 뿌리를 내리며 자라는 이 풀을 뽑느냐고
얼마다 손 마디에 굳은살이 배겼을지...
바랭이꽃과 방아깨비의 더듬이는 왜 닮아있을까? 생각 해 보세요.

겨풀

입춘이 되면 두꺼비들이 내려와 물에 잠겨있는 이 풀에 알을 맡기고 떠났지요.
"내 알들을 꼭 붙잡아 비가 많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구요.

미나리

하얗게 핀 미나리꽃을 보셨나요?
유난히 물을 좋아하는 미나리는
물속에 뿌리를 두고 살면서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줍니다.
또한 독특한 향기가 있어 나물로도 사랑을 받지요.

질경이

얼마나 질기면 이름조차 질경이일까요.
밟힐수록 강해지는 까닭에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을 '질경이 같다'고 해요.
잘 살펴보세요. 사람이 밟고 지나간 자리에 더 많이 피어있지요?

달맞이꽃

낮에 피는 대부분의 꽃과는 달리
밤이 되어야 활짝 피어나는 꽃이랍니다.
어때요, 꽃색도 달빛을 닮았죠?

짚신나물

풀잎이 짚신모양이고, 씨앗이 짚신에 붙어서 퍼진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에요.
씨앗은 누군가의 몸에 잘 붙기 위해 갈고리 같은 털이 나 있어요.

닭의 장풀

청색 꽃잎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지요?
그 모습이 닭벼슬 같다고 하여 달개비라고도 합니다.
옛날엔 염색제로도 사용했는데요, 흰 천에 꽃잎을 눌러 보면 청색으로 물든답니다.

고마리

물을 정화시켜준다 하여 고마운 풀입니다.
도랑가에 수북이 피어있는 고마리 좀 보세요. 무리지어 살고 있지요?
고마리의 왕성한 번식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답니다.

박주가리

뽕송뽕송 숨털이 나있는 작은 꽃과는 달리 열매는 크고 빨처럼 생겼어요.
자르면 흰 액이 나오는 덩굴식물로 씨앗은 바람을 타고 여행을 한답니다.

갈대

가느다란 대나무를 닮았다고 갈대라고 부릅니다.
속이 비어있어 줄기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뽕뽕리~ 뽕뽕리~ 신나는 여름이었죠.

강아지풀

풀숲에 숨어있는 강아지 꼬리를 보셨나요?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풀은
영락없이 강아지 꼬리를 닮았어요.

며느리배꼽

작은 열매들이 접시에 반겨진 듯한 모습은
어린이들의 소꿉놀이 같아 앙증맞기까지 합니다.
여러뿔 하지만 줄기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가시들을 달고 있어요.

왕고들빼기

잎이 줄기를 감싸며 나고 불규칙한 틈니가 있어요.
고들빼기 중 가장 키가 큰 왕고들빼기는
뿌리는 김치를 담고, 잎은 나물이나 쌈으로 먹는답니다.

취

땅, 나무, 전봇대 등 어느 곳도 가리지도 않고
칙 칩 늘어져 뻗어나가는 덩굴식물인데요, 잎을 가만히 보세요.
왜 사람들은 잎을 보고 의종은 형제라고 할까요?

쇠뜨기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함께 살았던 풀이에요.
힘센 공룡은 사라졌는데 쇠뜨기는 어떻게 지금도 피어날까요?
쇠뜨기를 당겨보세요. 쇠뜨기만의 생존 비결이 있답니다.

물달개비

농사짓지 않는 논을 가득 메우고 있는 물달개비가 보이나요?

잎이 심장모양의 이 식물은 논이나 못의 물가에서 자랍니다.
해열, 천식에 효과가 있어 한방의 약재로 사용되기도 해요.

버드나무

물가에 뿌리를 두고 사는 버드나무는 물속 생물들에겐 커다란 안식처예요.
그들은 물론, 은신처이자 산란장소로 없어서 안 될 친구죠.

환삼덩굴

단풍잎처럼 생긴 잎에 난 털과 날카로운 가시가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잡초라고 부르지만 네발나비에겐 생명줄이지요.
네발나비는 환삼덩굴에 알을 낳고, 애벌레는 그 잎을 먹고 예쁜 나비가 되거든요.
어때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자귀풀

자귀나무처럼 밤이면 잠을 자듯 잎을 오므리고 있어 자귀풀이에요.
자귀나무꽃은 화려한 반면, 자귀풀꽃은 수수해요.
또한 꼬투리모양의 열매는 마디처럼 끊어져 사각형을 이룹니다.



사례4) 냉이를 통해 본 식물 관찰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야생화 전시회에 가 봤더니, 처음 보는 우리 꽃들이 정말 많더군요. 입이 딱 벌어진 채로 둘러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산에서 막 피어서 기른 게 많다더군요. 우리 야생화를 희귀하고 신기한 대상으로 보고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 그런 엄청난 것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자연을 느끼고, 보고, 생각하게 해야 할까요? 자연이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가장 가까운 냉이, 꽃다지와 같은 잡초부터 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관심을 가지고, 서로 궁금한 걸 물어보고, 생각하고, 추리하고, 느껴 보면서 잎·꽃·열매 모양 같은 작은 것부터 전체적인 느낌까지 차례차례 관찰해 봅시다.

1. 나가기 전에 생각하고 얘기해 보자.

우선 서로 질문을 해 볼까요? 냉이는 봄을 대표하는 식물이지만 우리는 냉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 냉이도 꽃이 필까요?
- 냉이는 한해살이 식물일까요?
- 어느 지역에서나 냉이는 같은 이름일까요?
- 언제부터 사람들이 냉이를 먹었을까요?
- 어떻게 먹는 식물인 줄 알았을까요?
- 냉이는 우리 나라 밖에서도 자랄까요?
- 냉이는 한 종류 뿐일까요?

냉이 한 가지만 가지고 물어봐도 질문이 끝이 없네요.

쉽게 답을 해 주기보다, 우선 관찰하고, 주변 어른들에게 여쭙 보도록 하고, 도감을 찾아보고, 이유를 생각해서 서로 이야기해 보면 재미있겠네요.

2. 쓱쓱 뽑아 나싱개-나물 노래 부르며 나가자

우리는 지금 냉이를 별식으로, 반찬으로 먹지만, 고기나 쌀이 귀했던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아마도 다른 먹을 수 있는 풀들과 함께 주식의 역할을 대신했겠지요. 봄이 되면 사람들이 모 두들 들로 다니면서 열심히 풀들을 뜯고, 먹는 풀과 못 먹는 풀의 구분은 그걸 먹고 나서도 죽지 않는지를 서로 확인해 보고야 알게 되었을 거구요. 지금 사람이 냉이를 먹게 된 것은 목숨을 걸고 그걸 실험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에 먹을 수 있는 풀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식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식물을 잊지 않고, 다음 후세들에게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노래로 만들어 생활 속에서 항상 불렀습니다. 우리 냉이를 보러 가면서 우리 지역에 전하는 나물 노래를 불러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가 봅시다. 이 노래는 무슨 장단일까요? 쿵쿵 뛰면서, 으쓱으쓱 어깨도 흔들면서 나가 봐요.

오용조용 말맹이/잡아뜬어 꽃다지/쑥쑥뽑아 나싱개/이개저개 지칭개

이 노래에는 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요? 제가 사는 충북에서는 냉이를 ‘나싱개, 나생이’라고 부릅니다. 또, ‘시금치’는 슈퍼에서 파는 시금치가 아니라 팽이밥을 말하는 거구요. 엄마 아빠가 부르는 말로 불러본다면 훨씬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3. 냉이는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자

냉이 같은 잡초는 어디서나 굳세게 자랍니다. 잡초는, 사람이 재배하는 식물을 작물이라 하고 사람의 영향이 덜 미치는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것을 야생 식물이라고 할 때, 이것 외에 사람 근처에서 자라는 것에 적응한 풀을 말합니다. 환경이 달라도 어디서나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과 적응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같다’는 말은 어디서나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붙이지요. 반대로 떠도는 사람들에게는 ‘부평초같다’라구 하구요. 여기서 부평초는 뭘까요? 떠다니는 풀이란 말이니까, 개구리밥같은 걸 말하겠지요.

마른 곳, 습한 곳, 돌밭, 양지와 음지 등에 따라 거기 자라는 잡초들의 종류도 각각 다른데 냉이는 어디서 많이 자랄까요? 냉이는 자갈밭, 발독이나 논둑, 심지어는 시멘트 블록 사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는 장소에 따라서 크는 모양새는 다 다르지요. 양지와 음지, 자갈밭과 기름진 땅에서 어떻게 다르게 자랄까요? 냉이가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뽑아서 관찰해 봅시다. 잡초는 야생화가 아니어서 뽑아서 관찰하기에도 좋습니다.

땅에 영양분이 별로 없지만 햇볕은 잘 드는 자갈밭같은 데서는 뿌리가 깊이 뻗는데 비해서 키는 별로 자라질 않습니다. 물과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뿌리는 길어졌지만 햇빛은 넉넉하므로 줄기의 키는 많이 자라질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서는 햇빛을 받기 위해 뿌리보다 키가 많이 자랍니다.

4. 냉이는 어떻게 생겼나? 냉이의 특징은?

냉이는 뽑아 보면 냉이에게만 나는 특이한 향이 있지요. 나물 썰 때 냉이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면 코 끝에 대고 맡아보곤 하지요. 그것 외에도 냉이를 다른 풀들과 구분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빛깔	회다	노랗다
꽃	꽃잎 수	4개	4개
	꽃달린 차례	모여나기	모여나기
	꽃대 서는 자리	줄기와 잎 겨드랑이	줄기와 잎 겨드랑이
	꽃받침 수	4개	4개
열매	모양	각진 삼각형	긴 타원형

전체적으로 냉이의 색은 초록색과 자색이 섞여 있습니다. 뿌리 쪽 잎일수록 보라색이 많이 나고 위쪽일수록 녹색이 진합니다. 자세히 보면 냉이의 잎은 두 가지 종류로 납니다. 지난해 겨울을 넘기고 봄에 냉이가 자랄 때 잎은 로제트 형태로 삐죽삐죽한 깃털잎에 줄기도 거의 없이 땅에 가깝게 뽕뽕하게 나지만, 꽃대가 올라오고 두 번째 나는 잎은 작고 길쭉한데 어긋나면서 줄기를 감싸면서 몇 개가 달립니다.

꽃은 꽃줄기에서 모여나고 십자모양으로 피며, 열매는 말라서 갈라지는 형태인데 결모양은 모난 삼각형이고 안에 씨가 들어 있습니다. 냉이의 여러 가지 특징을 역시 흔한 잡초이면서 같은 십자화과인 꽃다지와 비교하면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냉이	꽃다지	
전체적인 특징	짧은 털이 약간 있음	전체에 털이 뽕뽕	
색깔	자색이 섞인 초록색	연두색이 섞인 녹색	
냄새	특이한 향이 있음	특징적인 냄새는 없음	
뿌리잎	잎나는 차례	모여나기	모여나기
	잎모양	심하게 갈라지는 날개모양	둔한 톱니가 있는 주걱형, 또는 긴 타원형
	잎의 끝머리	크게 각진 머리	둥근 머리
	잎자루	없음	있음
	잎의 가장자리	얇게 갈라짐	둔한 톱니
	잎의 표면	짧은 털이 있음	털이 뽕뽕함
	잎의 뒷면	앞면보다 약간 옅은 색	앞면보다 회색빛을 많이 띠
줄기잎	잎나는 차례	어긋나기	어긋나기
	잎모양	타원형	타원형
	줄기에 달리는 모양	꿇볼 모양으로 줄기를 감쌌	줄기에 흐르면서 붙는다

5. 냉이를 보고 나서 다른 풀과 비교하기

같은 십자화과인 냉이와 꽃다지는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잎이나 꽃이 달리는 차례가 같은 모여나기로, 줄기 끝과 잎 겨드랑이에서 꽃대가 서며, 잎은 뿌리쪽과 줄기에서 나는 잎

이 각각 다르고, 꽃잎 꽃받침 수가 4장씩으로 같습니다. 다른 것은 뿌리에서 나는 잎의 모양이 크게 다르고, 꽃의 색이 다릅니다.

냉이와 꽃다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고 나서, 다른 풀들과 다시 비교해 봅시다. 냉이의 잎은 민들레나 뿌리랭이의 잎과 비슷한 새의 깃털 모양인데, 꽃다지잎은 알모양이거나 주걱모양, 단풍잎은 손바닥모양, 소나무는 길쭉한 선모양입니다. 냉이와 꽃다지의 꽃피는 차례는 모여나기이지만, 민들레는 꽃잎처럼 보이는 하나하나가 모두 한 개의 꽃으로 머리모양으로 피는데, 이렇게 피는 꽃에는 금방 해바라기, 국화가 떠오릅니다. 또 냉이의 열매는 말라서 씨가 터져 나가게 되어 있지만, 민들레는 씨가 익으면 바람을 따라 날아가게 되어 있고, 고사리는 포자낭에서 홀씨가 터져 나가게 되어 있지요. 식물들은 이렇게 환경에 맞춰 각자 다른 모양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해보면, 나무와 풀은 어떻게 같고 다를까요? 동물과 식물은 어떻게 같고 다를까요? 냉이를 관찰해보니 궁금한 것이 너무 많지요? 하나를 알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다른 것들을 살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연관찰하러 어디로 갈까, 야생화가 많이 피는 곳은 어디일까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냉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식물들을 찾아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서 함께 살자고 늘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자연에게 무심하지 자연은 사람에게 무심하지 않다는 것도요. 자, 이제 냉이의 이야기를 들으러 우리 함께 노래 부르며 나가 봅시다.

가자가자 감나무

오자오자 옷나무

모두모두 보러가자

나생이 보러가자

까치밥상 까치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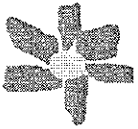
제비네꽃 제비꽃

미안쿠나 미안해

이제서야 보러왔네

마포구 공동육아의 성미산 살리기

· 작은 산 살리기와 공동육아 ·



마포구 공동육아의 성미산 살리기

- 작은 산 살리기와 공동육아 -

1. 우리는 동네 뒷산 성미산 살리기를 합니다.

공동육아가 시작된 지 이제 10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마포지역에 설립되었던 우리어린이집과 날으는 어린이집, 참나무어린이집, 그리고 도토리방과후어린이집과 풀잎새 방과후교실의 아이들은 이 10년 동안 동네에 있는 공동산과 성미산자락에 놀면서 자랐습니다. 이 두 산은 아주 작은 산입니다. 그리고 식생이 아주 뛰어난 산도 아닙니다. 주로 아까시나무가 많고 현사시나무와 참나무, 국수나무 등이 부분적으로 자라며, 사람들이 심은 잣나무가 일부 있는 정도입니다. 국립공원이나 큰 산들에 비한다면 보잘 것 없는 작은 산이지만, 이 동네에 사는 10개월 짜리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제는 커서 중학생이 된 아이들까지 이곳을 늘 오르내리며 노는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공동육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공동육아 아이들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 산을 끼고 살았지요.

처음 이곳에 배수지와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업계획이 공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이고 쉼터인 곳, 정들었던 곳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정도를 가지고 반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수준에서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생태적 생활의 일상화라는 문제가 어찌면 이미 몸에 배어버리고 마음속에 박혀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태가 진행되면서 단순히 아이들의 놀이터가 없어진다는 것을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동육아의 지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시간동안 우리는 단순히 나들이를 일상화하고, 산을 가까이 하면서 노는 게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좋다는 것 이상으로, 공동육아에서 동네에 있는 작은 산을 오르내리는 것의 의미가 큼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육아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터전은 어떠한 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 성미산 지키기의 현황과 의미

성미산은 3만여 평의 작은 산이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의 주요 활동공간이며, 지역주민들의 휴식처로서 하루에서 수백 명의 지역주민이 성미산에 오르내리며 지냅니다. 또한 한강과 연계된 생태축으로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천연기념물인 소쩍새나 붉은배새매와 같은 맹금류가 서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수종은 주로 아까시가 많지만, 그동안 아까시가 만들어 놓은 토양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참나무나 국수나무, 현사시나무 등의 활엽수종이 후계목으로 성장하는,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림입니다.

이 성미산에 2001년 7월 배수지와 아파트건설계획에 관한 공고문이 붙으면서 공동육아 식구들과 지역주민들은 성미산 개발 반대를 위한 운동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습니다. 성미산의 주된 소유주는 한양대학교 재단이며, 정상부 1만여 평을 서울시가 매입했습니다. 이 정상부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배수지를 건설하고, 한양재단은 남쪽 사면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10여 년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은 적도 없는 상태에서 배수지계획을 입안하고 일을 추진했다는 입장에서 배수지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배수지계획을 추진과정을 보면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이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란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장치를 말합니다. 정수장과 개별 수요자의 중간지점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정수장이 단수될 때 물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배수지와 개별 수요자를 직결하는 직결급수를 해서 각 집에 있는 비위생적인 물탱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물 공급

을 위해 일정한 압력이 필요하므로, 표고 50-70미터 위치에서 물을 내려보내는 지를 압력으로 사용하거나, 평지에서 압력을 가해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는 주로 표고 50-70미터의 작은 산 위에 배수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한양재단이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현재 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이 지정된 곳입니다. 한양재단은 배수지설립계획에 따라 생기는 산 위의 평지에 체육공원을 만들면 기존의 운동장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가 필요 없으므로, 그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는 배수지건설계획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 공동육아와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들이 1년 8개월 동안 활동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 구성(4개 공동육아,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성서초등학교 학부모회, 성미산 관련 체육단체 등)
- ②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 홈페이지 구축과 언론 홍보
- ③ 주민홍보와 2만여명의 서명작업과 주민들의 성미산 지키기 정서를 끌어냄.
- ④ 성미산음악회(2001. 9)와 성미산을 주제로 한 마을축제(2002), 성미산 청소(2002.4)
- ⑤ 서울시 상수도본부와의 협의 - 상수도본부는 배수지 부분을 평지형에서 자연형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 제의
- ⑥ 서울시 도시계획자문소위원회에서 한양대의 도시계획변경신청에 대해 자료근거부족을 근거로 한 유보를 이끌어냄.
- ⑦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3명 입후보. 선거운동 참여. 거의 모든 후보로 부터 성미산지키기를 공약으로 끌어냄.
- ⑧ 마포구 주민자치연대 구성과 더불어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이 결합한 성미산 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조직을 확대.
- ⑨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시행한 주민토론회, 찬반토론회를 무산시킴
- ⑩ 마포두레생활협과 공동육아 교사들이 함께 하는 성미산생태교실 운영
- ⑪ 현재 1월 29일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습별목에 항의해서 집회(산위, 서울시청 앞)와 산위 농성 중
- ⑫ 2월 10일 상수도본부의 포크레인을 앞세운 공사시도에 대해 주민들 몸을 맞서 막음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이 된 것은 공동육아 식구들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의하여 주민모임을 구성하였으며, 서명운동과 선거운동, 집회, 산위의 절야농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미산을 생태공원으로 보존하라”
“주민 동의 없는 일방행정 사과하라”
“산을 파괴하는 배수지정책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미산을 지키는 일은 민주적 행정운영과 주민참여문제, 배수지정책 등 행정운영에서의 생태적 발상으로의 전환, 도시 속의 생태적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작은 산 이야기

성미산지킴이는 여러 방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공동육아와 관련해서는 ‘작은 산 살리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산이라 큰 산이 아니라 좀 작고, 마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가깝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을 예로 든다면 약 3만평 이상인 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그 이하의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됩니다. 성미산은 이 3만평 정도의 산이며, 동네 사람들이 하루에서 수백 명씩 오르내리는 그런 작은 산의 대표적인 경우지요.

우리나라는 산이 ‘전 국토의 65%를 차지합니다. 실상 서울같이 큰 도시도 녹지율이 26.5%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높은 ‘녹지율’만 보면 도시의 녹색환경이 쾌적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녹지’란 개념은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는 공간을 의미할 뿐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이나 가로수, 약간의 풀밭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살아있는 녹지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미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서울시 공원 녹지과에 문의했는데, 조만간 월드컵공원이 만들어지니 마포구의 녹지문제는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정책담당자들에게 자연림으로서의 산과 공원은 같은 의미로 통하는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녹지의 대부분은 도심의 공원도 아닙니다. 주로 서울 외곽을 둘러싼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 대모산, 구룡산, 관악산 등 같은 큰 산들입니다. 이런 산들과 한강이 서울의 녹지축을 이루는 기본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녹지율이 상당한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은 산들은 주변 사람들이 텃밭이나, 체육공원을 만들면서 일상적으로 망가뜨리고 있고, 더군다나 성미산과 같이 대규모의 개발- 배수지와 아파트- 이 진행된다면 산 자체는 아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성미산에서 바라보이는 홍익대학교 뒷산인 와우산- 유명한 와우아파트가 있던-은 배수지가 만들어져 산 윗부분이 평평해져서 산 모습을 잃어버렸고, 이제 그곳은 테니스장을 비롯한 체육 시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 둘레는 ‘전망 좋은’ 아파트단지까지 에워 싸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우산은 이제 산이 아닌 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미산이 그런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점차 사라져 버리는 작은 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산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산소공급, 휴식 및 여가공간의 제공,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빗물의 저장 및 지속적 유출로 자연담의 역할 수행, 대기오염 물질의 흡착, 도시기후조절(도시열섬화 현상 완화) 등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들 합니다.

만약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작은 산들이 없다면 도시와 도시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서울은 큰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들은 맑은 공기와 신선한 바람을 보냅니다. 이런 바람들이 있어야 영망으로 되어버린 도시의 공기가 정화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 즉 바람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산과 강입니다. 그런데 강들은 도시 안에서는 모두 아스팔트로 덮여 버려서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말았지요. 작은 산들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있어 평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미산도 북한산에서 근처의 백련산과 연결되어 한강가에 마지막으로 솟아오는 백두대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미산에서 시작해서 백두산도 지리산도 갈 수 있다고 말하지요. 물론 북한산과 백련산은 통일도로 이어지는 도로에 의해서 잘려져 있고, 백련산과 성미산도 수많은 집들과 도로, 그리고 물길이 바뀌어 버린 홍제천 때문에 연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그래도 가까이에 점점이 있으면서 주변의 공기흐름을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른바 도시열섬화 현상 완화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산이 체육공원으로 바뀌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이면 그런 기능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성미산은 작은 산이면서 그리 멋있는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산에 천연기념물이 서식합니다. 때론 이 소쩍새나 붉은배새매가 안타카워질 때도 있습니다. 좀더 풍성한 산에 살면 더 좋을 텐데 하고 말이지요. 이 새들이 성미산에 사는 이유는 주변에 한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들은 철새인데, 한강을 주 활동지로 하면서 밤이 되면 잠을 자러 가까이에 있는 성미산으로 옵니다. 성미산은 한강과 연계된 주요 생태축인 게지요. 만약 홍제천이 살아

있다면 북한산에서 홍제천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이 성미산과 연계되고 한강과 이어져 좀더 멋있는 생명의 선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태축이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봅니다. 좀더 많은 동식물이 살아있는 작은 산이라면 그 속에서 함께 살 사람들은 참 신선한 기쁨을 늘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성미산 역도부 사람들은 누워서 역기를 들다보면 머리 위에서 매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저 1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숲속에서 쉬면서 다양한 새와 곤충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설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지요. 생태축을 지키는 게 단순히 다른 생명체만이 아니라 인간도 그 속에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걸 일상적으로 깨우쳐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작은 산이겠지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작은 산은 작기 때문에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산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지만, 성미산에 올라보면 저기가 우리 집이고 저기는 친구 집이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보이고 우리어린이집도 보이고, 참나무어린이집도 어디쯤인지 손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멀리 한강도 보이고, 북한산과 백련산, 공동산과 안산, 남산도 보입니다. 육삼빌딩도 보이지요. 내가 어느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곳들이 서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길로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을에서 시작하는 공간개념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지요.

대부분의 우리는 마을에 살면서도 뜨내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뜨내기라고 생각하기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길을 알고 방향은 알지만, 마을 전체의 모습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히 멀리 있는 곳은 알아도 가까이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산에 올라가 보면 마을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산에 올라서 봐도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요. 그러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곳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곳과 자신이 서있는 공간을 연결시켜보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지요. 자기가 가보았던 안산이 저기 있고, 남산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한강이 생각보다 가깝고, 거기에 성미산과 주변동네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 좋지요. 성미산은 북한산과 연결된 산이고, 이곳엔 성이 있어서 동네 이름이 성산동이란 이야기, 과거의 홍제천이 흘렀던 곳과 지금 흐르는 곳은 다르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미산과 새터성미산이 떨어져 있다는 것, 왜 서교동과 동교동이라는 이름이 나왔는지, 바로 작은 개천이 많아서 그랬다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마을에 애착을 가지지요. 이런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다음은 마포구의 다른 곳들, 서울의 경복궁 등의 고궁도 가보고 시내의 곳곳도 가보고, 성미산에서 보았던 남산에 가서 성미산을 찾아보고, 아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서 있는 공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마을의 작은 산이지요.

작은 산은 생태교육장입니다. 공동육아에서는 모두 주변의 작은 산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태교육을 위해서 식생이 좋은 멀리 있는 큰 산에 차를 타고 갑니다. 갯벌을 헤집어 놓고 마구 밟아 얼마 후에는 그곳에 생명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가면서, 멋있는 숲에 들어가 생태학습을 하고 돌아오지만 동네 산에는 한번도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그 산 주변에 텃밭을 만들어 산을 감아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농사체험을 시켜주기도 하지요. 가까이에 있는 좋은 생태교육장을 놔두고 말이죠.

매일매일 오르는 뒷산에서 이루어지는 생태학습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고 익숙한 그 나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풀이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싹이 나오고 줄기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전 과정을 몸으로 눈으로 냄새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 향나무의 차이는 한 번 보고는 모릅니다. 자주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나서 그 생김새가 어찌 다르고 쨍쨍 때의 느낌이 이래 다르다는 사실도 압니다. 작은 산에도 그저 아까시만 있는 게 아니라 자르면 국수처럼 하얀 게 나오는 국수나무도 있고, 하얀 줄기가 아름다운 사시나무도 있고, 도토리가 나오는 참나무도 있다는 걸 알지요. 그리고 아까시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좋지 않은 나무가 아니라 초여름이면 마음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 짙은 향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게 황폐해져 있던 작은 산을 그래도 이나마 살려준 공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지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바로 이 작은 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미산의 나무들이 베어졌을 때, 이곳을 오르내리던 아이들과 어른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이들은 나무가 아프겠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야기하듯 아까시만 있는 쓸데없는 숲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공동육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일 겁니다. 이런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작은 산 살리기 - 우리 마을로서는 성미산 살리기가 이 지역의 공동육아를 지탱하고 나아가 마을 전체를 하나로 뭉치는 상징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육아가 그저 공동육아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리고 공동육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도 이 작은 산을 살리는 문제는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공동육아와 작은 산 살리기

마포지역 공동육아 사람들이 1년 8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성미산지킴이활동을 해 오느라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이제서야 이게 내 마을이고, 우리가 마을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에 오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동네는 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비쳤고, 믿을만한 젊은이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는 ‘성미산’이라는 상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들 나름대로 그 내부의 동질성과 약간의 공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역이라는 단위로 연결할 수 있는 끈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다 나들이를 다니는 산, 또는 다녔던 산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은 성미산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저 아이들의 나들이장소로만 생각했고 한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던 부모들도 이번 기회에 아이들만큼이나 자주 산에 오르내리게 되고, 친숙하게 되었지요. 아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애정도 생기구요. 그저 산인 성미산이 이제 지역 공동육아의, 그리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 의미있는 ‘성미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서야 조금씩 지역의 ‘섬’이었던 공동육아가 지역의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곳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긴 듯합니다. 산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길도 달라졌지요. 이제 예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육아생활이 어떤지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하나 운영하는 것만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 직장에다, 집에다, 어린이집까지. 즐겁기 때문에 기꺼이 한다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공력을 들여야만 지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산지킴이, 지역활동까지 겸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이 동네 공동육아 사람들은 그것을 고심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미산과 어린이집이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좀더 많은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경지’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공동육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육아의 울타리 안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만도 커다란 교육의 참여입니다. 공동육아 자체가 갖는 한국 유아교육계, 교육계에서 갖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연친화적 교육, 자유로운 교육환경, 생활교육 등의 요소들은 잘 키워 가야 할 요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미산 문제를 풀어 가는 동안 그저 울타리 안의 교육참여 이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교육참여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 우리 아이가 중요시하는 것을 내가 중요하다고 받아주면서 아이와 공감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나는 내 아이의 교육에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도 교사만큼은 아니지만 아이와 함께 아이의 나들이 장소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중심이 되고 있는 작은 산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내용을 풍부하고 알차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교육참여가 되겠지요.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고, 함께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지를 몸소 보여 줄 수 있겠지요. 우리의 교육참여 폭은 점점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이들의 공간인 작은 산, 마을의 공간이 작은 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공동육아의 내적으로도 많은 문제에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많은 문제들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문화와 배움의 공간들에 대한 부모들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멀리 나가면

서 다양하게 많은 것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뒷산에 가서,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체계적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지 아느냐고요. 현재 공동육아에서 실행하고 있는 생태교육의 핵심은 작은 산의 구석구석을 알고 느끼고, 거기서 계절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를 실감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나무나 풀만 자연이 아니지요. 넓은 땅에 가꾸어놓은 공원에서 숙박꼭질할 때는 숨을 곳이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에서 할 때 언덕 아래에 누워버리면 감쪽같이 숨을 수가 있지요. 산에서 놀면 아이들은 입체적인 공간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오는 사람은 머리부터 보이지요. 이 많은 것을 일상의 공간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아이들이 공동육아 아이들입니다. 물론 멀리 나가서 좀더 아름답고 잘 정리된 것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일상이 아닌 특별한 기회 또는 조금씩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아닐지.

아이들은 지금의 산을 보면서 친구를 잃어버린다는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친한 친구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입거나, 그 친구를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을 때 아이와 아이의 부모는 어찌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작은 산은 아이들의 친구입니다. 그 작은 산에 무관심하고 훼손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배신하는 것이 될지 모릅니다. 성미산을 지키는 어른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성미산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성미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에게 미안할 거라고요.

우리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조직'이 있으니까요. 아마 공동육아가 없었다라면 성미산은 이미 작년에 다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육아란 조직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철야농성도 가능하고,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간에 신뢰로 묶인 무서운 조직이지요. 아이들의 바램이라는 무서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작은 산 지키기는 공동육아 내적으로는 아이들을 더 많이 알고, 아이들의 생활공간을 지키는 일이지요. 나아가 공동육아가 지역사회와 결합해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뜨내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이 되어, 그 속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공동육아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 공동육아 시설조가 동네 놀이터를 손보는 시설조가 된다면 어떨까요?

공동육아는 아이들에게 생태적인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작은 산이 이렇게 없어져간다면 도시에서 더 이상 공동육아가 자리잡을 곳이 없어질 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미산살리기를 하면서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성미산 자연생태현황 조사 보고서

2001. 9. 1(토) 생태보전시민모임

1 성미산 개황

표고 66m인 성산은 마포구 성산 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이 성 같이 둘러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말로 '성메'·'성미'라고 불리었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북한산 비봉에서 내려온 한 지맥이 백련산에서 모래내 서쪽 구릉지로 이어져 성산 2동의 56.5m 봉우리와 성산 1동의 66m 봉우리가 하나의 산세를 형성하고 한강으로 끝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성산의 두 봉우리가 연이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모래내로 나뉘어 있어 인위적인 수로(水路)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옛 모래내는 성산을 북쪽으로 하여 연남동과 망원동길 쪽으로 흘러, 망원정 언덕 아래 망원유수지 쪽으로 흘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산은 1993년 8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후 연인원 183,000명이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이 56.5m 봉우리를 중심으로 한 산림지역은 1977년 7월 미시설 근린공원인 성산 제 2공원으로 지정되어 셋터공원으로 이름지어졌으며 연인원 5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2 성미산 자연생태현황

D 식물분야

(1) 식물군집구조

성미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나무는 아까시나무이다. 아까시나무는 평균 수고 15~20m에 달했고 평균흉고직경(가슴높이 직경)은 25~30m이었으며, 평균수령은 약 30여년으로 예측되었다. 아까시나무 밑 아교목층에는 특별한 우점종 없이 매죽나무, 팔배나무, 아까시나무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관목층에는 국수나무가 우점하고 있었다. 이외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참나무류가 드문드문 출현하고 있었다. 서울 도시림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층에는 아까시나무를 비롯한 인공수종이 우점종을 점유하고 있고, 아교목, 관목층에서는 참나무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자생수종이 우점하고 있어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이 줄어들면 참나무류 중심의 산림으로 천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의 경우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을 비롯한 서식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주변 녹지의 부족으로 인해 산림의 이용압력과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 자연스런 천이과정이 중단되고 오히려 퇴행천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 대상지도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고, 앞으로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녹지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식물상

정확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미산에 분포하는 정확한 식물상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성미산에는 목본식물 33종, 초본식물 60종 등 총 93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었다(표 1). 봄, 여름, 가을에 걸친 정밀조사

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식물종이 관찰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성미산의 면적을 감안한다면 많은 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즘 생활 주변 작은 산을 살리자는 서울시의 의욕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작은 산을 자연체험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연체험 및 자연학습장으로서 잠재성이 높은 다양한 식물종이 분포하고 있었다.

구분	출현종	종수
목본식물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잣나무, 밤나무, 팔배나무, 때죽나무, 개암나무, 들배나무, 쥐동나무, 절레꽃, 철쭉, 바드나무, 양버즘나무, 불나무, 개웃나무, 가중나무, 사철나무, 무궁화, 족제비싸리, 누리장나무, 조팝나무, 아까시나무, 현사시나무, 영산홍, 물오리나무, 산딸기, 땃덩이덩굴, 노박덩굴, 참마, 칩, 담쟁이, 청미래덩굴	33
초본식물	뽕딸기, 환삼덩굴, 참마, 박주가리, 강아지풀, 수크령, 들피, 달뿌리풀, 개밀, 미국자리공, 달맞이꽃, 바랭이, 돼지풀, 가막사리, 서양등골나물, 명아주, 닭의장풀, 맥문동, 억새, 개망초, 망초, 애기뽕풀, 나팔꽃, 재비꽃, 메꽃, 산부추, 무릇, 익모초, 들나물, 쑥, 질경이, 냉이, 개여뀌, 털여뀌, 참소루장이, 쇠별꽃, 컴프리, 비비추, 팽이밥, 봄맞이꽃, 주름잎, 꽃마리, 꽃다지, 고들빼기, 양지꽃, 서양민들레, 뿌리썩이, 쇠뜨기, 꿀풀, 왕고들빼기, 까마중, 주름잎, 토끼풀, 쇠서나물, 머느리배꼽, 비름나물, 명아주, 쥐꼬리망초, 향유, 쇠무릎 등	60
계	-	93

표 1. 성미산의 식물상

2) 동물분야

(1) 야생조류상

성미산의 야생조류상을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개략적인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기록된 야생조류는 총 9종으로서 사시사철 한곳에 머물러 사는 텃새 6종, 이동성인 여름철새 3종이 기록되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풍부한 종이 기록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짧은 조사기간(청문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포함)에도 불구하고 성미산에는 서울시 보호종인 오색딱다구리와 천연기념물 323호, 324호인 소쩍새, 붉은배새매가 기록되었다.

표 2. 성미산의 야생조류상

구분	출현종	종수	비고
텃새	까치, 붉은머리오목눈이,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쇠딱다구리, 박새류 등	6	※오색딱다구리: 서울시 보호종 ※박새: 서울시 보호종
여름철새	피꼬리, 소쩍새, 붉은배새매 등	3	※피꼬리: 서울시 보호종 ※소쩍새: 천연기념물 323호 ※붉은배새매: 천연기념물 324호

① 서울시 보호종 오색딱다구리, 피꼬리, 박새

서울시는 2000년 11월 서울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중 환경의 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35종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고시했다. 정부차원에서는 1백 94종의 야생동식물이 보호종으로 선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종을 지정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는 선진행정의 한 전례로서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보호종은 표 3과 같다. 이들 보호종은 멸종위기에 있으며 학술경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고, 산림 및 하천, 습지 등에 국한돼 서식하는 종으로 특별한 연구목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포획이나 채취, 가공, 수출 등이 금지된다. 성미산에는 오색딱다구리를 비롯해 박새, 피꼬리 등 3종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야생조류 서식공간으로서 성미산이 갖는 잠재성과 보호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 서울시 보호종 목록

구분	출현종	종수
식물류	서울오갈피, 삼지귀엽초,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난, 산개나리, 금마타리, 관중	7
조류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피꼬리, 박새	6
곤충류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말총벌, 왕잠자리, 풀무치, 노란허리잠자리,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8
양서·파충류	두꺼비,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줄장지뱀, 실뱀	6
포유류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4
어류	황복, 뽕명모치, 걱정어, 강주걱양태	4

② 천연기념물 소쩍새, 붉은배새매

소쩍새는 길이 약 20cm 정도의 새로 한국의 올빼미과 조류 중 가장 작다. 회갈색의 몸에는 가로줄이 섞인 새로줄무늬가 있으며, 긴 귀깃이 있다. 발가락에는 깃털이 없다. 야행성이며, 적색형도 있다. 야산, 공원의 나무 구멍에 등지를 틀며, 봄부터 여름까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소쩍, 소쩍' 또는 '소쩍다, 소쩍다' 하고 운다. 인가 주변의 야산, 공원, 산림 등에 서식하는데 천연기념물 제 324호로 지정되어 있다.

붉은배새매는 길이 약 30cm 정도의 새로 몸 윗면은 푸른색을 띤 회색, 가슴은 흐린 주황색이며 아랫배는 흰색이다. 날개 밑부분은 옅은 색으로 무늬가 없으며, 끝은 검다. 납막은 주황색이다. 평지와 야산의 숲, 숲 주변의 논, 개활지 등에 사는데 천연기념물 제 323호로 지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이란, 자연물 중에서 학술적·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써 지정한 동·식물 및 그 서식지와 자생지 그리고 지질과 광물 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이 뜻하는 바는 각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마련이지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속성에는 '위대한 자연 혹은 자연의 산물'이라는 점이 포함되곤 한다.

천연기념물은 1962년 1월에 법률 제 961호로서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뉘는데, 천연기념물은 그 중 기념물로서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국가 지정 문화재의 지정, 관리, 보호,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동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지정되고 있다.

첫째,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 생장지

둘째, 석회암 지대, 사구,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호소, 폭포의 소, 온천, 하구, 도서 등 특수 지역이나 특

- 수 환경에서 자라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 셋째, 진귀한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
- 넷째, 한국 특유의 축양 동물
- 다섯째, 저명한 동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 여섯째, 유용 동물의 원산지
- 일곱째, 귀중한 동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이렇게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 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 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안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현상보호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자,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 야생동물상

표 4는 성미산의 야생동물상을 나타낸 것이다. 청문조사에 의하면 성미산에는 족제비, 청설모, 두더지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대형 포유류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람쥐를 비롯한 쥐류 등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족제비는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물로 예전 민가 산림 근처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었던 동물이지만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서식지가 급속히 감소한 관계로 도시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동물이다. 이런 족제비가 관찰된 점으로 미루어 성미산의 자연생태계 보전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 성미산의 야생동물상

구분	출현종	종수
포유류	족제비, 청설모, 두더지 등	3

3. 결론

D 성미산 자연생태계 현황 종합

비록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성미산의 자연생태계의 잠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식물의 경우 아까시나무가 우점종인 단순림이었지만, 지역주민의 적절한 보전노력과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참나무를 위주로 한 자생수종 중심의 산림으로 천이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수령 30년생의 아까시나무림은 단순한 잔디로 이루어진 녹지보다 훨씬 풍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과거 숲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로만 계산되었다. 나무 목재 생산과 버섯을 비롯한 숲의 부산물로만 평가되던 숲의 가치는 이제 환경·생태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숲은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재를 생산하는 환경자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을 저장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수원 함양 기능, 침식의 방지 및 경감기능, 산사태를 방지하고 수해를 방지하는 자연

제해의 방지 및 경감 기능 같은 국토보전의 기능이 산림의 새로운 가치이다. 또한 산림은 기온을 완화하고 습도를 조절하며, 지온을 완화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기상완화능,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고 소음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며 아름다운 풍치를 제공하고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도시화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산림은 산림의 자연성을 떠나서 도시환경을 완화하고 조절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신문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이 아열대기후로 변해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기상청에서는 도시열섬화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 경우 도시열섬화 현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도시내에 녹지공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작업이 기존에 남아있는 녹지의 보전인데, 도심지의 자투리 산은 이렇듯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동물의 경우 성미산에는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록 다양한 종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보호종인 꿩꼬리, 오색딱다구리, 박새, 족제비를 비롯한 4종의 보호종이 관찰되었고, 소쩍새, 붉은배새매 등의 천연기념물 2종이 관찰 또는 보고된 것으로 보아 도심지 내 다양한 야생조류 서식공간으로서의 잠재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사료되었다. 특히 보호종과 천연기념물은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대상으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성미산은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이용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이라 사료된다.

2) 성미산의 자연생태계 잠재성과 가치

(1) 성미산은 녹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포구의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공간이다.

표 5는 마포구의 녹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마포구는 행정면적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14.9%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번째로 공원면적율이 낮다. 마포구보다 공원면적율이 낮은 자치구는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이다. 또한 1인당 공원면적비율도 9.15%로 25개 자치구 중 14번째로 낮다. 동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이 마포구보다 더 낮은 공원면적비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시환경정화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공간이며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잠재성이 높은 산림지역은 행정면적 대비 점유비가 0.62%에 지나지 않는다. 공원면적 중 산림점유비도 4.2%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녹지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지역은 매우 적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성미산은 이렇듯 얼마 남지 않은 산림생태계로서 마포구 도시환경개선에 있어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5. 마포구 녹지현황

행정면적(m ²)	공원면적(m ²)	공원 중 임야면적(m ²)	공원점유비 (%)	임야점유비 (%)	공원면적 중 임야점유비(%)
23,870,000	3,568,912.10	148,336	14.9%	0.62%	4.2%

(2) 성미산의 산림녹지는 일반 공원 또는 잔디녹지보다 매우 높은 녹지량을 가지고 있어 도시환경개선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내의 녹지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나무를 많이 심고,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남아있는 녹지를 보전하

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특히 산림은 일반 잔디밭으로 조성된 녹지보다 녹지량이 훨씬 풍부하다.

녹지용적계수(GVZ: Grunvolumenzahl)는 녹지의 풍부함을 정량적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면적당 각 수목 수관용적의 합계이다. 표 6은 일산신도시의 대표적인 자연림, 반자연림, 인공림의 녹지용적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비록 성미산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자료는 아니지만 산림지역과 잔디와 나무위주의 녹지공간이 녹지량에 있어서 많게는 100배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내의 녹지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잔디밭 위주의 공원 조성보다 나무 식재보다는 기존의 산림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보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표 6. 일산신도시 녹지유형별 녹지용적계수(m³/m²)

대상지	녹지용적계수(m ³ /m ²)		
	자연림(활엽수림)	반자연림(활엽수림)	인공림(활엽수림)
정발산	4.58~8.78	3.63	5.50
백석동근린공원	3.90~4.66	-	3.46
잔디위주의 녹지 I	0.14~0.42	0.08~0.48	0.14~0.38
잔디위주의 녹지 II	0.42	0.20~0.88	-

(3) 서울시 비오톱 유형 평가결과에 의하면 성미산은 자연보호등급 1등급에 해당되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해 도시 환경악화의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시 도시생태 보전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구별 비오톱유형별 평가지도를 개발하였다. 비오톱유형평가는 크게 5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대상지 전체지역에 대하여 자연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유형
- 2등급: 대상지의 일정면적(예: 30%이상)에 대하여 자연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유형
- 3등급: 대상지의 일정면적(예: 30%미만)에 대하여 자연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유형
- 4등급: 일부 토지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 5등급: 부분적으로 자연보호사업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또한 비오톱유형 중 자연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에 대한 개별 비오톱 평가는 크게 3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각 등급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
-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
- 3등급: 현재로서는 보호가치가 한정적인 비오톱

이상의 비오톱 유형 평가등급 자료에 의하면 성미산은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자연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성미산은 개발과 훼손을 최대한 막고 도시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관리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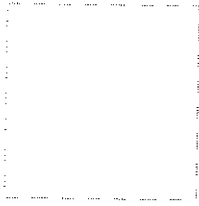


그림 1. 마포구 성미산 및 인근지역 비오톱유형평가도

(4) 성미산에는 서울시 보호종인 오색딱다구리, 피꼬리, 박새, 족제비가 서식 또는 관찰 용이한 지역으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서울시는 2000년 11월 서울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중 환경의 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35종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고시했다. 정부차원에서는 1백 94종의 야생동식물이 보호종으로 선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종을 지정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는 선진행정의 한 전례로서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35종의 보호종은 멸종위기에 있으며 학술경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고, 산림 및 하천, 습지 등에 국한돼 서식하는 종으로 특별한 연구목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포획이나 채취, 가공, 수출 등이 금지된다. 성미산에는 오색딱다구리를 비롯해 박새, 피꼬리, 족제비 등 4종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잠재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어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5) 성미산에는 천연기념물인 소쩍새와 붉은배새매가 서식 또는 관찰된 지역으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천연기념물이란, 자연물 중에서 학술적·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써 지정한 동·식물 및 그 서식지와 자생지 그리고 지질과 광물 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은 1962년 1월에 법률 제 961호로서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뉘는데, 천연기념물은 그 중 기념물로서 관리되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 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안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현상보호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자,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성미산에 천연기념물인 소쩍새와 붉은배새매의 서식과 관찰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미산이 야생동물의 활동영역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미산의 시급한 보호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6) 성미산을 이용하는 연간 이용자는 183,000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 인위적인 개발 내지 훼손보다는 보호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모색해야 할 공간이다.

마포구는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가 부족한 관계로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산림지역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미산의 경우 연간 183,000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여가와 활력의 재충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압력에 의한 산림의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 않아 성미산의 생태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

서 지금은 어떠한 개발훼손 논의보다는 성미산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성미산은 50,800㎡에 지나지 않는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어 보전의 가치가 높고 자연체험 학습장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환경의 시대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상이다. 자연과 인간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관계임을 자각하고 일방적인 개발 위주의 정책보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야기하고 있다. 개발보다는 보전측면의 정책이 차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다양한 자연보전과 생태계 보전, 그리고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할 때 마포구의 얼마 남지 않은 산림생태계이며, 지역주민 180,000명 이상의 휴식공간인 성미산의 절대적인 보호와 보전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연의 보호는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연에 대한 개발 위주의 인식과 생각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자연학습공간, 생태체험의 공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도 이제 서울에 남아있는 자연녹지를 단순히 체육활동공간, 휴식의 공간으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여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의 감수성을 체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다. 성미산은 비록 좁은 면적의 산이지만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자연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된다면 성미산을 보호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2

성미산 생태공원 제안서

제안자 :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

*** 제안 배경**

- 마포는 자연녹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데다 도시자연공원은 1개소도 없고 와우산,노고산 모두 배수지,아파트 개발등으로 산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하였고 성미산만이 유일하게 자연숲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 성미산은 북한산 지맥이 백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한강을 찾는 철새,맹조류등의 주요 서식처로 기능해왔다.
- 성미산 부지는 60년대 한양재단에서 학교시설용지로 싼값에 매입해두어 공부상으로는 사유지,일반주거 지역으로 남아있으나 실제로는 30년 이상 자연수목들이 성장해 주민들이 자연숲을 느낄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왔다.
- 이런 실황과 주민들의 숙원을 감안해 1995년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성미산 부지를 자연녹지 공간으로 확보토록 계획되어 매입문제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주인 한양재단에서 즉시 전액 보상을 주장하여 매입계획이 보류되었다.
- 1997년 서울시에서 성미산 1/3에 해당하는 정상부에 '성산배수지'를 짓겠다는 실시계획이 결정되고 배수지 부지 매입이 추진되면서 소유주인 한양재단에서는 이 기회에 어차피 배수지가 들어서면 산은 파괴 될 것이므로 남은 남쪽 부지에 420세대 가량의 아파트 건설을 가능토록 해주면 북쪽 남은 부지는 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2001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 2001.7.경 위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로서 일반 주민들이 배수지계획과 아파트계획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성미산 보존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1년6개월 가량 반대투쟁을 해오고 있다.
- 2001.10.경 두달만에 약2만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았고 2002.6.1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구청장을 포함한 대부분 후보자들이 성미산 보존을 내세울 정도로 지역주민 다수여론은 확인되었다.
- 그럼에도 선거가 끝나자 배수지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이 걸려있고 아파트는 수백억대의 시세차익이 걸린 탓에 주민여론을 무시한채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는 배수지 공사 착공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아파트 추진세력은 배수지 공사를 전면내세워 배수지 공사가 삼만 뜨면 아파트를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개발요구를 불식시키고 소중한 마을뒷산인 성미산을 자연숲으로 지켜내기를 원하는 다수주민들의 바람을 담아 생태공원으로 지정받고자 이 제안에 이르게 되었다.

**** 제안이유**

1. 성미산 생태보존의 필요성

○ 성미산은 비오름 1등급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해 도시 환경악화의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시 도시생태 보전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 비오름 현황조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구별 비오름유형별 평가지도를 개발하였는데 성미산의 경우 1등급(대상지 전체지역에 대하여 자연보호가치가 있는 비오름유형)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 성미산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인 맹조류 및 서울시 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이다.

성미산의 식물, 조류, 야생동물 현황을 보면 식물로는 목본식물 33종, 초본식물 60종 합계 약 93종이 서식하고 조류로는 천연기념물인 소쩍새와 붉은배새매 2종, 서울시 보호종인 피꼬리, 박새, 오색딱다구리 3종 등 칠새 3종, 텃새 6종 정도가 서식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는 족제비, 청설모, 두더지 등이 서식하고 있다.

○ 성미산은 자연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포구의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자연녹지공간이다.

마포구는 행정면적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14.9%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번째로 공원면적이 낮은 편이었고 최근 올림픽공원 개장으로 공원면적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도시환경정화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공간이며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잠재성이 높은 산림지역은 여전히 행정면적 대비 점유비가 0.62%에 지나지 않는다. 공원면적 중 산림점유비도 4.2%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녹지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지역은 매우 적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성미산은 이렇듯 얼마 남지 않은 산림 생태계로서 마포구 도시환경개선에 있어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 성미산은 북한산 줄기가 한강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산으로 녹지축의 유지 및 한강쪽에서의 산 조망을 위해서도 보존되어야 한다.

표고 66m인 성산은 마포구 성산 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이 성 같이 둘러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말로 '성대'·'성미'라고 불리었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북한산 비봉에서 내려온 한 지맥이 백련산에서 모래내 서쪽 구릉지로 이어져 성산 2동의 56.5m 봉우리와 성산 1동의 66m 봉우리가 하나의 산세를 형성하고 한강으로 끝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성산의 두 봉우리가 연이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모래내로 나뉘어 있어 인위적인 수로(水路)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옛 모래내는 성산을 북쪽으로 하여 연남동과 망원동길 쪽으로 흘러, 망원정 언덕 아래 망원유수지 쪽으로 흘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산은 1993년 8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후 연인원 183,000명이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양화, 성산대교에서 강북을 조망할 경우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산이 성미산이며 이런 한강인접의 지리적 여건으로 오래전부터 한강유역을 찾는 맹조류 등의 서식처로 기능해왔다.

○ 성미산은 도심지의 마을뒷산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개발우위의 도시정책으로 인해 녹지공간이 잠식되어 왔으며 서울의 녹지는 78% 이상이 산림형태로 외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내 생활권 공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원녹지의 확충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환경관리실에서도 마을뒷산 지키기 운동을 주요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길동도시자연공원등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성미산 역시 자연녹지가 절대부족한 마포의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산으로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접할수 있는 마을뒷산으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성미산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자연휴식처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해왔다.
성산동,망원동,서교동,연남동등 일대의 많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맑은 숲의 공기를 마시고 산책을 하며 지역의 어린이집,초중등학교 재학생등 많은 미래세대들이 성미산의 사계를 직접 느끼며 체험하는 살아있는 생활속의 생태교육의 장으로 독특한 역할을 해왔다.

*** 제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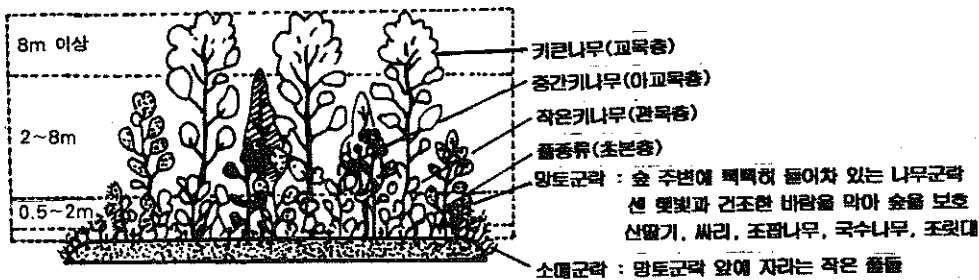
- 주민반대여론이 팽배한 아파트 및 배수지 설치계획을 백지화하고 성미산 부지 전체를 시,구청에서 매입하여 주민 숙원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 주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생태공원
 - 정상부등 소쩍새 서식처에는 "소쩍새 관찰교실" 마련
 - 보식계획 : 지나치게 많은 산책로는 차단하고 훼손지역에 대해 참나무등 가능수종 보식
 - 나무 한그루 갖기 운동 : 보식과정에 주민들이 각자의 후원금으로 나무 한그루 갖기 운동을 적극 시행
 - 훼손된 텃밭지역 : 다양한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
 - 성미산 생태학교 : 지역 교사 및 부모들이 운영하는 생태학교를 년중 운영



1. 숲의 구조와 성주산 숲 들여다보기

수림은 수직적인 계층구조를 지니는데 상층부로부터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등과 같이 계층이 구분된다. 계층이 다층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다층림 또는 복층림이라 한다. 또한 상층부가 단순하게 한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단층림이라 한다. 한편 수림은 수평적으로는 주변의 열려진 환경에 대해 숲 주변 경계부분에 강한 바람이나 일조등과 같은 가혹한 외부환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망토군락 또는 소매군락 등으로 불리우는 식생이 형성된다. 이러한 숲 가장자리 군락은 주로 관목이나 덩굴성 식물, 양지성 초본성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등산로 주변의 망토군락을 따라 숲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초저녁인 것처럼 어두운데 이것은 키 큰나무(교목)들이 햇빛을 가려 주고 수분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키 큰나무(교목) 밑에는 중간키 정도의 나무(아교목)들이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키 큰나무 대신 이 숲의 주인이 될 나무들이다. 또한 진달래, 철쭉과 같이 사람 키보다 작은 나무들(키작은나무, 관목)이 있는데 키 큰나무 사이로 내리쬐는 약간의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며 살아가는 그늘을 좋아하는 음지식물들이다. 키작은 나무 밑에는 여러 가지 작은 풀(초본)들과 이끼들이 자라고 있다.

등산로를 따라 숲속을 들어가면 큰 나무 아래로 숲 속이 보인다. 바닥의 이끼류와 풀(초본류), 키작은나무(관목), 중간키나무(아교목), 키 큰나무(교목)들이 서로 층을 이루고 있는데(층상구조), 잘 발달된 숲일수록 이러한 층상 구조가 분명하고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숲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망토군락과 소매군락

->망토군락 : 애기똥풀, 산딸기 나무 종류, 쫄레 나무, 조팝나무, 개암나무, 싸리나무 종류, 청미래 덩굴...

->소매군락 : 양지꽃, 개망초, 고들빼기, 냉이, 꽃다지, 달맞이꽃, 주름잎꽃, 별꽃 종류, 제비꽃 종류, 억새종류, 여뀌, 며느리 밭셋개, 고마리, 사초과 식물.....

#성주산 숲 속 식물군락(조사가 진행중이다.)

- >큰 나무 : 아까시 나무, 소나무, 밤나무, 리기다 소나무, 잣나무, 산벚나무, 굴참나무..
- >중간키 나무 : 생각나무, 개웃나무, 붉나무, 물오리 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 >키작은 나무 : 진달래, 철쭉, 산초나무, 노랜제나무, 쥐똥나무, 빗살나무, 회화나무, 싸리나무..
- >풀 종류 : 사초과 식물, 고사리, 고비, 고마리, 꼭두서니, 둥글레, 여뀌, 제비꽃...
- >덩굴식물 : 참마, 청미래덩굴, 며느리배꼽, 담쟁이덩굴, 갈퀴덩굴, 땃덩이덩굴...

2. 우리나라의 식물분포대와 표징종

식물은 동일한 환경 조건 하에서는 거의 비슷한 식물종군이 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환경조건이란 온도 및 강수량 등과 같은 기후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식물의 분포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 지역마다 기온(온도)이 다르고 식물마다 생존할 수 있는 일정한 온도범위(내성온도)를 갖고 있어, 온도범위를 넘는 춥거나 더운지역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위도에 따라 북쪽으로 100km 올라갈 때마다 0.5℃씩, 수직으로 100m 올라갈 때마다 0.6℃씩 낮아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위도와 높이의 차이에 따라 5개의 수평식물분포대와 3개의 수직식물분포대가 나타난다.

1) 난온대 식물지역 : 늘푸른잎큰나무

제주도 전지역과 경남과 전남의 남쪽으로 연평균 기온이 15℃이상되는 지역으로 이곳에는 후박나무, 종가시나무와 같은 늘푸른잎큰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 ◆ 표징종 : 종가시나무, 녹나무, 잣밤나무류, 후박나무

2) 냉온대 식물구 : 낙엽입큰나무

남쪽의 난대식물지역과 북쪽의 산악지역으로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5℃ 이상 되는 지역이다. 냉온대 식물구는 다시 3지역으로 나누고 각지역의 표징종은 다음과 같다.

① 냉온대 남부

동쪽으로는 강릉에서 서해안에는 태안반도아래 지역

- ◆ 표징종 : 대나무류, 해송, 사철나무, 굴피나무, 느릅나무, 비목나무

② 냉온대 중부

동쪽의 함경남도 중부이남에서 서쪽은 평남중부 이남지역

- ◆ 표징종 : 때죽나무, 개서어나무, 졸참나무, 푸조나무, 서어나무

③ 냉온대 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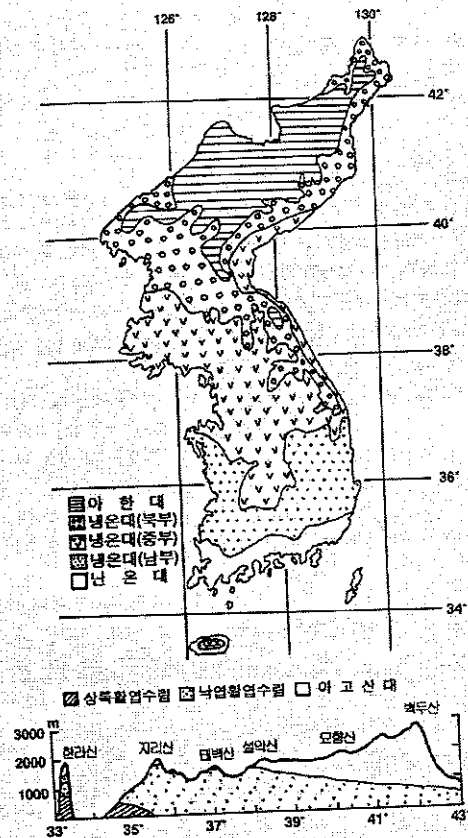
냉온대 중부 이북지역으로 북쪽의 고산지대를 제외한 곳

- ◆ 표징종 : 잣나무, 젓나무, 피나무, 박달나무, 신갈나무, 비술나무

3) 아한대식물구 : 늘푸른바늘잎나무

북쪽의 고원지대, 및 고산지대로 연평균 기온이 5°C 이하인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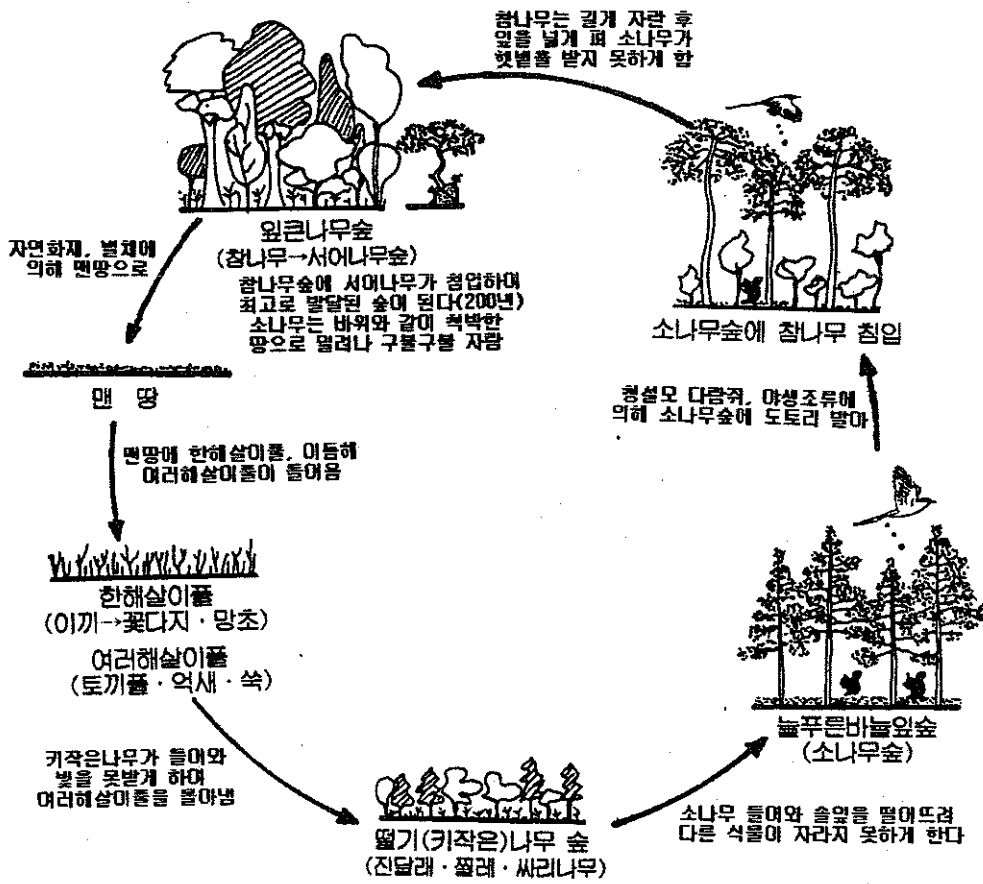
◆ 표징종 :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잣나무



3. 숲의 천이

우리 주변의 숲들도 처음부터 나무와 풀들이 자라는 땅이 아니었다. 숲은 사막과 같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맨 땅에서 출발하여 자연속에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간다(그림 참조). 숲은 자체적으로 계속 모양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숲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햇빛의 양과 자라나는 식물에 의해 변화되는 땅의 성질이다. 소나무 밑 음지에서 자라던 참나무 종류들이 마침내 숲의 주인이 바뀌고, 또 오랜 시일이 지나면 참나무 숲도 서어나무, 까치박달나무에게 자리를 내주고 밀려난다. 중부지방에서는 서어나무, 까치박달나무가 주인이 된 숲을 가장 안정된 숲, 최고로 발전된 숲, 즉, 숲의 최고 절정상태인 극상을 이루었다 한다. 이후, 천둥이나 번개, 산불등에 의해 숲이 불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숲이 다시 발전하기 시작한다.



- 1차 천이의 시작 : 숲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다시 숲이 조성되는 경우. 개망초, 민들레, 냉이, 제비꽃이 먼저 피기 시작.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하거나, 해안의 식생이 모래로 매몰되거나, 열대의 삼각주가 확장되거나 하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식물들이 정착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식생이 없는 새로운 땅에 식물이 침입하여 정착하는 것을 일차 천이(primary succession)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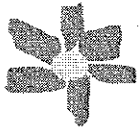
- 2차 천이의 시작 :

(이차 천이(secondary succession)은 폭풍우, 산불, 벌목, 경작 등 자연적·인위적 교란에 의해 기존의 식생이 파괴된 자리에 다시 식물이 침입·정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차 천이는 일차 천이와는 달리, 토양 표면의 파괴가 그리 심하지 않고 많은 식물의 종자와 영양체가 토양 중에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이차 천이는 일차 천이보다는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우암산의 식물군락과 숲 들여다보기. 최상일
녹지생태학. 태림문화사

이야기와 함께 하는 생태



이야기와 함께 하는 생태



꽃과 나무 속에 숨은 이야기

[각시붓꽃 이야기]

어떤 선녀가 하늘나라에서 잘못을 범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죠.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앓아누워 갖은 고생을 했어요. 하늘로 올라갈 때 가지고 가야 할 여의주를 강물 속의 이무기에게 주고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비의 약초와 바꾸었지요. 스무 살이 가까워지자,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 선녀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딸을 뒤흔에다 묻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희오리바람이 일어나며 선녀가 큰 절을 올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선녀의 무덤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예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각시붓꽃입니다.

[제비가 올 때 피는, 제비꽃]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쯤 피었다고 해서 오랑캐꽃, 약간 구부러져 피어 있는 모습이 씨름하는 자세를 닮았다고 씨름꽃, 병아리처럼 귀엽다고 병아리풀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원줄기가 없이 뿌리에서 잎줄기와 꽃줄기가 돋아납니다. 봄이 지나면 꽃은 보이지 않는데 씨앗주머니만 자꾸만 자라서 올라옵니다.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이 있을까요?

해가 길어지면 꽃잎 크기가 작아지거나 퇴화된 폐쇄화가 나와서 자가수분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꽃보다 더 많고 건강한 씨앗을 만듭니다.

흰제비꽃, 왜제비꽃, 줄방제비꽃, 고깔제비꽃도 있어요.

[신선이 준 열매-대추 이야기]

대추의 약효는 중국의 고사에도 나온다. 태원왕(太原王)이 젊었을 때 전쟁을 하다가 낙오되어 이를 동안이나 굶은 채 해마다가 쓰러졌다고 한다. 꿈속에서 어린 동자가 나타나 누워 있지만 말고 어서 일어나 대추를 먹으라고 하는 소리에 깨어 보니 진짜 옆에 대추가 있었다. 이것을 먹고 살아나서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이때부터 대추는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 준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대추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대추나무 시집보내기’가 있다. 정월 대보름과 5월 단오에 대추나무 가지가 둘로 갈라진 틈에다가 돌을 끼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의 아낙들이 저마다 흠어져 큰 돌을 주워 오면 마을에서는 이 가운데 가장 적절한 돌을 골라 상처가 날 정도로 빠지지 않게 나무에 꼭 끼운다. 이렇게 하면 대추가 많이 열린다는 것이다.

대추나무는 목재로도 이용한다. 재질이 굳고 단단하여 집에서 떡을 칠 때 쓰는 떡매, 떡살을 비롯하여 달구지와 도장, 목탁과 불상 등 공예품의 재료로도 쓰였다. 이 대추나무 단단하기가 박달나무 못지 않아 오죽하면 모질고 굳은 사람을 대추나무 방망이라고 불렀겠는가.

이와 함께 키가 작고 빈틈없이 야무진 사람을 두고 대추씨 같다고도 한다.

[마지막 잎새 담쟁이]

옛날에 영국에 히스톤이라는 아름답고 착한 아가씨가 부모님이 정해 준 대로 일곱 한 번 보지 못한 사람과 약혼했으나 그는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신이 약혼자라며 청혼했지만 약혼자의 긴 그림자만 보았던 그녀는 키가 큰 자신의 약혼자를 기다리다 죽어 갔는데, 그 긴 그림자가 지나간 담 옆에 자신을 묻어 달라고 유언했다. 그 다음해부터 그녀가 묻힌 자리에서 덩굴이 올라와 키 큰 약혼자를 찾으려는 듯 자꾸만 높이 올라가 사람들은 이 나무에 그녀의 넋이 들었다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이 사랑하는 단편작가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가난한 화가 지망생인 존시는 폐렴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면서 이웃집 담쟁이덩굴의 잎이 모두 떨어지면 자기의 생명도 다한다고 생각한다. 비바람이 휘몰아친 다음날 틀림없이 나목(裸木)으로 있어야 할 담쟁이덩굴에 마지막 잎새가 하나 그대로 붙어있는 것을 보고 다시 삶의 의욕을 갖게 된다. 기운을 차린 존시에게 친구 수우는, 그 마지막 잎새는 불우한 이웃의 늙은 화가가 밤을 새워 담벼락에 그려 넣은 진짜 이 세상의 마지막 잎새임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임진왜란에 얽힌 단풍나무]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얽힌 단풍나무 이야기가 하나 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몹시 가물었다고 한다. 가등청정이 우리나라에 쳐들어 와 어느 마을에 진지를 세웠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이 나무에 사람이 묶인 채 발견되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가등청정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목을 쳐 죽였다. 피가 튀어 단풍나무를 적시더니 갑자기 하늘에서는 온갖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벼락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워낙 극심한 가뭄인지라 우리나라 백성들은 전쟁도 잊고 기뻐할 정도였다.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된 연유가 그 단풍나무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목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가등청정은 나무를 삼척길이로 잘라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 후 가등청정이 딸을 시집보내면서 이 신목의 토막을 예물로 주어 보냈고 그 다음부터 가뭄이 있을 때마다 이 나무토막을 빌려 기우제를 지내면 어김없이 비를 내리는 신통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단풍나무과 고로쇠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삼국 시대에 백제와 신라의 병사들이 섬진강을 옆에 끼고 중간에서 있는 백운산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한 신라 병사가 목이 말라 샘을 찾았지만 눈에 보이질 않던 차에 마침 화살이 꽂힌 나무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얼른 그 물을 마셨더니 갈증을 풀어 줌은 물론이고 힘이 용솨음쳐 백제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 나무가 바로 고로쇠나무이다.

단풍나무의 꽃말은 '상냥' 이다.

[정자나무 느티나무]

정자나무로 유명한 느티나무 중에는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는 술이 취해 잔디밭에서 잠든 주인을 구하고 죽은 의견(義犬)을 기리는 개나무란 이름의 느티나무가 있다.

우리의 나무 문화는 흔히 소나무 문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조선 이후의 이야기다. 유적지에서 출

토되는 유물로 보아 그 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느티나무 문화였었다. 느티나무 목재는 잘 썩지 않기 때문에 건축재로 많이 쓰였는데, 일례로 경북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은 모두 느티나무로 만들어졌다. 신라시대 경주 천마총 출토 관, 고려 초 화물선 밀바닥 일부도 느티나무였다. 경남합천 해인사의 대장경판 보관 건물인 법조전, 전남 강진의 무위사 극락전, 충남 부여의 무량사 극락전, 전남 구례의 화엄사 대웅전 나무 기둥의 거의 전부 혹은 일부가 느티나무이다. 최근 산림청에서도 새 천년을 맞아 우리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상징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밀레니엄나무로 느티나무를 선정했다.

느티나무도 열매를 맺지만 작아서 잘 살피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름이 지나면 느티나무에서 잎사귀 밑에 하나씩 달린 녹색 열매를 찾아 볼 수 있다.

[아가씨 꽃나무 명자나무]

봄꽃들의 화려한 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 정원 한 구석에는 나지막한 키에 가지 끝이 변한 가지까지 달고 있는 꽃나무가 비로소 우리들 눈에 들어온다. 잎과 함께 매화처럼 생긴 꽃이 대체로 붉으나 흰색, 분홍색으로도 핀다. 한번 시작하면 봄이 무르익을 때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꽃봉오리와 함께 활짝 핀 꽃이 함께 섞여 있어서 더욱 운치가 있다.

벚꽃처럼 너무 화사하지도, 모란처럼 너무 요염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촌스럽지도 않은 꽃이 바로 명자꽃이다. 한마디로 적당히 곱고 향기로운 꽃이다. 그래서 경기도 일부에서는 아가씨꽃나무라고도 하며, 옛사람들은 이 꽃을 보면 여자가 바람난다고 하여 명자나무를 집안에 심지 못하게 했다. 명자꽃의 꽃말은 평범, 겸손함이다.

[울타리 꽃이라 불린 무궁화]

옛날에 어느 욕심 많은 사람이 울타리로 무궁화를 심어 놓았는데 한 어린이가 누워 계신 어머니를 위해 옷의 얼룩을 빼려고 무궁화 한 송이를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몰래 꺾다가 들켜서 심하게 매를 맞고 있었다. 지나가던 시주승이 그냥 꽃을 줄 것을 권하자 욕심쟁이 주인은 그 꽃은 무궁화가 아니라 접시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무궁화는 정말로 접시꽃으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 접시꽃은 무궁화와 사촌쯤 되어 생김새가 비슷한 꽃이지만 무궁화는 나무이고 접시꽃은 풀이다.

중국에도 무궁화에 대한 슬픈 전설이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앞 못보는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보살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노래도 잘 하고 시도 잘 지을 뿐 아니라 인물도 천하 일색이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나쁜 마음을 품은 그 고을의 성주가 여러 번 꺾었으나 넘어가지 않자 강제로 납치하여 복종을 강요했지만 여인은 끝까지 성주의 청을 거절하였고 화가 난 성주는 이 여인을 죽여 버렸다. 이를 불쌍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에 묻어 달라는 여인의 유언에 따라 집 뜰에 묻어 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어 그 집을 둘러싸 버렸다.

마치 눈먼 남편을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자란 이 나무를 번리화 즉 울타리꽃이라 불렀는데 이 꽃의 속이 한결같이 붉은 것은 죽은 부인의 일편단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한다.

무궁화가 민족의 꽃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현재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부터일 것이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의 독립 운동가들은 무궁화를 민족을 대표하는 표상으로 삼았다. 1933년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를 통한 민족혼 고취 운동이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면서 전국의 무궁화가 죄다 뽑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래몰래 무궁화 묘목을 나누어 가졌다. 해방이 되자 정부는 자연스럽게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정했다. 그에 따라 국기봉을 무궁화의 꽃봉오리 형상으로 만들고 정부와 국회의 상징을 무궁화 꽃으로 삼았다.

나라꽃을 바꾸지 말란 법도 없는데 다시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 북한도 다들 좋아하던 진달래를 제치고 함박꽃나무를 나라꽃으로 정했고, 중국도 모란에서 매화로 나라꽃을 바꾸었다. 우리 나라도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어차피 통일된 나라꽃이 필요하다. 그때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나라꽃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린이들과 통일된 나라의 나라꽃을 생각해보자.

[향기로운 회양목 꽃]

요즘 사람들 중에 회양목 꽃이나 열매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무는 흔히 심지만 꽃과 열매가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이라 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 나무가 꽃피는 걸 알게 되면 봄이 훨씬 정겹다.

우리 선조들은 이 단단한 회양목으로 열레빗을 많이 만들어 썼다. 회양목으로 만든 열레빗은 부러지지 않고 부드러워 머리가 잘 빗겨지며 결이 일어나서 머리카락을 상하는 일도 없어 최고로 썼다. 이 회양목 열레빗은 호패가 생기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호패는 조선 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차고 다녀야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길쭉한 패로서 이름과 나이, 출생한 시기가 적혀 있는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었다.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은 등급에 따라 상아나 검은뿔 같은 것으로 만든 호패를 차고 다녔지만 생원이나 진사는 회양목으로 만든 호패를 차고 다녔다.

그 결과 회양목이 워낙 늦게 자라는데다가 열레빗 만드는 데 쓰여 호패를 만들 재료가 부족하자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을 막았고, 심지어는 회양목을 공물로 관아에 바치는 회양목계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제도만 없었으면 큰 나무가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 싶어 섭섭한 마음도 든다.

[아카시아? 아카시 나무!]

아카시아는 잘못 부르는 이름이고 아까시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아까시나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90년 중국을 거쳐 일본인의 손을 통해 인천으로 들어왔으며 특히 일제 시대에 황폐한 산을 긴급히 녹화하기 위해 전국에 심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땅치려고 좋은 나무 다 베어내고 산에 몸쓸 나무만 잔뜩 심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아까시 나무는 빨리 자라고 또 빨갛을 공급해야 하는 목적 때문에 전쟁후에도 많이 심었으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창 치산 녹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산림 보호에 힘을 쓸 때도 이 나무의 가시가 입산을 통제하는데 효과가 있어 권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헝가리에서는 가로수로

이용하고 있고, 가을이 되면 노란색 단풍이 든다.

아까시 나무는 홀수로 겹잎이 나기 때문에 ‘될까?’ ‘안될까?’ 하며 한 잎씩 떼어가다보면 반드시 처음 한 말로 돌아오게 된다. 아까시나무로 친구와 내기를 해 보면 처음 잎을 뜯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초목의 군자-소나무]

소나무, 아 푸르구나, 초목의 군자로다,
 눈서리 이겨내고, 비오고 이슬 내린다 해도 웃음은 보이지 않네.
 슬픈 때나 즐거운 때나 변함이 없구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푸르고 푸르도다.
 소나무에 달이 오르면 그대는 잎 사이로 달빛을 금모래처럼 채질하고
 바람이 불면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구나
 -사명대사 청송사(靑松辭)

우리 나라의 유명한 소나무로 속리산 입구의 정이품송을 빼놓을 수가 없다. 세조가 행차할 때 스스로 가지를 올려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어 세조가 이에 탄복하여 정이품 벼슬을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들으면 어린 조카를 쫓아내고 쿠데타로 집권해 왕위의 정당성이 약했던 세조가 꾸민 이야기처럼도 들린다.

중국에도 속리산의 정이품송 이야기처럼 벼슬자리에 오른 소나무가 있다. 진나라 시황제가 어느 날 태산에 올라가 돌을 쌓아 제사의 단을 만들고 내려올 무렵,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소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 있었다. 그 공로를 치하해서 오대부(五大夫)로 봉했다. 오대부란 관직의 위계의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그때 그곳에 소나무 5그루가 있어서 오대부로 했다 하나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소나무에 영적(靈的)인 격을 부여한 고사 하나를 들면 삼장법사 현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즉 그가 천축(인도)으로 떠날 때 절간에 서 있는 소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서쪽으로 떠나게 되면 너는 서쪽을 향해서 자라고 내가 돌아올 때는 가지를 동쪽으로 내서 자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소나무는 그 말을 새겨 듣고 현장이 돌아올 무렵 가지를 동으로 뺀어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사로 사람들은 크고 오래된 소나무를 더욱 더 신령스러운 존재로 보게 되었다.

경북 예천에는 1000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 소나무가 있다. 우산을 펼쳐 놓은 듯 길게 퍼져 동서의 길이만도 32미터나 되며, 석송령이라 부르는 이 나무는 나이가 600살이 되었고 지난 해만도 종합토지세까지 낸 부자 나무이다. 조선 시대 초기에 이 마을에 홍수가 나 마을 앞을 흐르는 석간천에 떠내려오는 어린 소나무를 한 마을사람이 건져 심어 놓았는데, 1920년대 말 자식이 없던 이 마을의 이수목이란 노인이 이 나무에 석평 마을의 영험 있는 나무란 뜻으로 석송령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소유의 땅 1191평을 나무에게 상속하고 세상을 떠났다. 마을 주민들은 석송계를 만들어 이를 관리하고 해마다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사철푸른 사철나무]

그랬으면 좋겠다. 살다가 지친 사람들
 가끔씩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계절이 달아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지 않아
 오랫동안 늙지 않고 배고픔과 실직 잠시라도 잊거나
 그늘아래 휴식한 만큼 아픈 일생이 아물어진다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장정일의 시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에는>

사철 푸른 잎을 달고 있다 해도 한 번 돋은 잎을 그대로 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씩 잎을 갈아가며 사는 것이다. 한꺼번에 모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채기는 어렵다. 사철나무는 이른 봄, 아직 추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초록의 새 잎을 일제히 내민다. 그 뒤 묵은 잎이 서서히 떨어지므로 항상 푸르게 보인다.

꽃말이 “변함없다”인 것처럼 사철나무는 언뜻 보아 늘 그 모습을 하고 있다.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할 때 마주보는 교배상에는 떡, 과일, 곡물과 함께 늘 푸른 대나무나 사철나무를 놓아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한다. 요즘은 일 년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대기 오염에 강해 삭막한 도회의 풍경을 부드럽게 바꾸어주는 나무로 각광받고 있다.

[북쪽을 보고 피는 목련]

아주 먼 옛날에 옥황상제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공주가 하나 있었다. 공주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비단결처럼 고운 마음씨를 간직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모두 공주를 사모했다. 그러나 공주는 이에 아랑곳없이 오직 무섭고 사나운 북쪽 바다의 신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다.

옥황상제가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사모의 정이 깊어 어느 날 아무도 몰래 왕궁을 빠져 나가 사랑하는 북쪽 바다의 신을 찾아갔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찾아가 바다의 신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다. 먼곳을 찾아가 크게 실망한 공주는 상심하여 검푸른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바다의 신은 공주를 찾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죽은 공주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자기의 아내마저 극약을 먹여 죽게 한 후 공주와 나란히 묻어 주었다.

멀리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안 옥황상제는 죽은 두 사람이 너무 가엾고 가슴아파서 그 무덤가에 꽃을 피웠는데 공주의 무덤가에서 핀 꽃이 백목련이고 신의 아내 무덤가에 핀 꽃이 자목련이었다고 한다. 이 공주의 무덤가에 핀 꽃은 모두 북쪽 바다의 신이 있는 곳을 향하여 꽃을 피웠으며, 사람들은 이 꽃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죽어간 공주의 녀이 변하여 된 꽃이라 하여 ‘공주의 꽃’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목련은 왜 북쪽을 보고 피는 것일까?

-이는 남쪽이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자라서, 마치 꽃이 북쪽 방향을 바라보고 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봄을 부르는 동백]

동백나무는 동박새라는 새의 힘을 빌려서 수분을 한다.

서로 돕고 사는 이 동백나무와 동박새에게는 전설이 하나 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포악한 왕이 살고 있었다. 이 임금에게는 자리를 물려줄 후손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죽으면 동생의 두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다. 욕심많은 왕은 그것이 싫어 동생의 두 아들을 죽일 궁리를 하였고 동생은 이를 알고 자신의 아들을 멀리 보내고 대신 이들을 닮은 두 소년을 데려다 놓았다.

그러나 이것마저 눈치 챈 왕은 멀리 보낸 동생의 아들 둘을 잡아다가 왕자가 아니니 동생에게 직접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차마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한 동생은 스스로 자결을 하여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 갔고 두 아들은 새로 변하여 날아갔다. 동생은 죽어서 동백나무로 변했으며 이 나무가 크게 자라자 날아갔던 두 마리의 새가 다시 내려와 동지를 틀고 살기 시작하였는데 이 새가 바로 동박새이다.

여수 오동도의 동백 숲은 오동도에 부부가 귀양을 왔는데 남편이 고기잡이를 잡으러 나간 틈을 타서 도둑이 들어 부인을 겁탈하려 하자 도망치다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부인을 묻은 자리에서 부인을 닮아 아름다운 동백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꽃말은 신중함, 허세부리지 않음이다.

[눈 속에 핀 사랑 매실나무(매화)]

앞집에는 큰 부자가 살고 뒷집에는 몹시 가난한 집이 살았다. 그런데 부잣집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뒷집에는 총각이 살았다. 부잣집에서는 딸이 방실방실 피어나는 나이가 되자 혼처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이 때 아주 잘 사는 어느 집에서 매과를 보내왔다.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니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 적어도 열 살이나 위였던 것이다.

“싫소! 어찌 예비나 다름없는 곳에 딸을 출가시키겠소.”

조금 지나자 이번에는 고을 원님 아들한테서 매과가 왔다. 하지만 알아보니 그의 아버지는 비록 한 고을을 쥐락펴락하는 권력가이나 그 아들은 몹시 불민했다.

“싫소! 당사자를 보고 딸을 놓아야지, 그 아버지를 보고 딸을 주겠소?”

이래서 처녀 아버지는 몹시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나 처녀에게는 오래 전 배필이 정해져 있었다. 다름 아닌 뒷집 총각이었던 것이다.

그들 둘은 그 날도 달 밝은 가을밤을 이용하여 마을 밖 수림 언저리에 앉아 달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 다른 마을을 갔다 오다 이들을 발견한 처녀의 아버지가 으름장을 놓았다.

“이년! 그래 하도 사람이 없어 그 따위 가난뱅이 녀석과 사귀어? 다시 그의 꼬임에 넘어갔다가는 정강이를 꺾어 놓을 줄 알아라!”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랴! 추석도 썩 지난 쌀쌀한 밤이건만 처녀와 총각은 그 날도 수림 언저리에 다정히 머리를 맞대고 앉아 희희낙락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또다시 그들을 발견하게 된 처녀의 아버지는 전에 없이 노발대발하여 총각의 목살을 쥐어 잡았다.

“이 거지녀석! 그래 언감생심 나의 귀한 딸을 네 마음대로 피어? 다시 또 이런 무법한 일이 생기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처녀는 그 날도 일구월심 그리던 총각의 품에 안겨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가랑가랑 보였다.

“글세 무슨 수가 있겠소?”

총각도 막무가내라는 듯 긴 한숨만 내쉬었다.

“여봐요 총각님, 우리 이 길로 정처없이 달아나요.”

“그래 어디로 달아나잔 말이오?”

“그 아무 데건 발 닿는 데로 가요. 아무렴 우리 두 손으로 어디 간들 못 살겠어요.”

처녀의 말을 들어보니 과연 일리가 있었다.

“웁소! 오직 그것만이 수인가 보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길로 집을 나와 손에 손을 맞잡고 산 속을 누비며 걷고 또 걸었다. 얼마나 갔는지 산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무섭게 들려왔다.

“남자, 저 짐승의 소리가 무섭지 않소?”

총각의 물음에 처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무섭지 않아요. 오직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아무 것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그들은 산 속을 헤매며 산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샘물을 마시기도 하며 깊은 산 속으로 걷고 또 걸어 들어갔다.

어느 덧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더니 눈이 펄펄 내렸다. 옷을 적게 입고 떠난 그들은 몹시 추웠다.

“남자, 춥지 않소?”

“아니, 하나도 춥지 않아요. 오직 당신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조금도 춥지 않아요.”

그런데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바람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남자, 춥지 않소?”

“아니, 조금도 춥지 않아요. 오직 당신과 함께 있으면…….”

눈은 점점 더 세차게 퍼부었고 바람은 갈수록 더 거세졌다.

“남자, 춥지 않소?”

“아니, 아니…….”

그들은 추위에 이를 떨떨 떨며 점점 더 꼭 끌어안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꼭 끌어안은 채 숨지고 말았다.

이 일이 있는 뒤부터 엄동이 되면 산 속에는 눈보라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빨간 매화꽃과 하얀 매화꽃이 곱게 곱게 피어났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빨간 매화꽃’은 그 처녀가 죽은 화신이요, ‘하얀 매화꽃’은 그 총각이 죽은 화신이라고 한다.

[말뚱풀(절경이풀) 이야기]

옛날 어느 시골에 억쇠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 이 청년이 어찌나 미련한지 몰라. 어느 정도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세수해라"하잖아. 그러면 "그만뒀라"할 때까지 하루종일 세수를 하고 있는 거야. 또 친구들이 놀린다고 돌을 떡이라고 주면 그게 떡 인줄 알고 좋다고 먹다가 이빨이 뿌러지기도 해. 만져보면 금방 알잖아.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오죽했으면 부모님조차 곱이라고 불렀을까. 근데 이 억쇠가 스물이 넘어도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런 억쇠의 부모님은 하늘이 숯검정이 될 지경이야. 맨날 속터져서 한숨만 쉬고, 그러다가 억쇠 아버지가 결심을 했어. 도저히 그냥 볼 수만 있어야지.

"아무래도 저 녀석을 그냥 두었다간 영 바보가 되고 말겠소. 사람이 집을 나가면 깨치는 수가 있다가 우리 한번 저 녀석을 내보내 봅시다."

하는 거야. 어머니는 가슴이 찡어지는 듯 했지.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는데 별수 있나. 그래 그

길로 역쇠는 집을 나섰네. 어디 갈 곳이 있어야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걷는 거지 뭐. 마침 가을이라 여기저기 벼들은 누렇게 익어가고 산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 그러니 가다가 배가 고프면 산열매 따다 먹고 날이 저물면 아무 곳에서나 누워 자고 걱정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역쇠가 산골짜기를 어슬렁 걸어가는데 아 저기 멀리 빈집이 하나 보이네. 마침 다리도 아프고 해서 들어가서 누웠지. 아 근데

"히히히, 히히히, 네가 올 줄 알았어. 히히히. 히히히....."

하면서 난데없이 요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 역쇠가 놀래서 벌떡 일어났지.

저쪽 어두운 구석에서 얼룩덜룩한 암도깨비가 '쓱' 나오더니

"히히히, 놀랄 것 없어. 나도 알고 보면 마음씨 착한 도깨비야. 너 오늘부터 나랑 살자. 히히히 히... 히히히...."

하네. 역쇠 눈이 왕방울 만해져가지구 암도깨비를 보니까 그렇게 무섭게 안 생겼거든. 그래 안심이 되는지 "그래요." 하는 거야.

그러니 도깨비가

"히히히. 좋아. 그러면 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만약 너, 내 허락없이 집을 나가기만 하면 넌 내 손에 죽어!" 그랬어.

그래 이날부터 역쇠는 암도깨비네 집에서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게 됐거든. 근데 한 일년쯤 살았나. 역쇠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도깨비한테 부탁을 했지.

"나 말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집에 가 봐야겠어요."

"그래? 그럼 가 봐야지."

의외로 순순히 허락을 해주네. 그러면서

"여봐라. 얼룩말아, 이리 온."

하니까 얼룩말이 뚝뚝뚝 걸어와. 그래 도깨비가 얼룩말 엉덩이를 '톡톡' 때리니까 말 궁둥이에서 노란 금돈이 땡그랑 땡그랑 쏟아지는 것 있지. 몇 번이나 때려도 금돈이 쏟아져 나오네. 역쇠가 놀래서 쳐다보니,

"이것을 타고 가. 아마, 쓸데가 있을 거야."

하면서 도깨비가 줬어.

그 다음날 역쇠가 얼룩말을 타고 갔지.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집에 들렸어. 역쇠가 주인에게 얼룩말을 맡기면서

"저 말이요, 이 말은 아주 귀한 말이니 잘 맡아주오." 했어.

그래 주인이 염려 말라고 하는데 역쇠가 또

"그리고 말이요, 절대로 말 궁둥이를 톡톡 때리지 말아요."

하는 거야. 주인이 들으니 웃기잖아. 말 궁둥이를 때리지 말라니, 그래 역쇠가 잠든 밤에 주인내외가

"아무래도 저 총각의 말이 수상하잖아. 우리 가서 말궁둥이 좀 한번 때려 봅시다."

하면서 마구간으로 갔네. 그리고 말궁둥이를 '톡톡' 때리니까 궁둥이에서 갑자기 금돈이 마구 쏟아지는 거야.

이것을 보니 주인내외가 욕심에 생기잖아. 그래 자기네 말과 얼른 바꿔 매놨지.

이것도 모르고 쿵쿵 잠만 잘 잔 역쇠는 말을 타고 집으로 갔거든. 그래 집에 가자마자 말 궁둥이에서 금돈이 나온다고 막 자랑을 했지. 부모님들과 이웃 사람들 다 모였는데, 말 궁둥이를 톡톡 치니까 말이 "흐흥" 하면서 울더니만 똥만 툭툭 싸는 거야. 그러니 부모님들은 얼마나 속상해. 아

버지가 "이런 미련한 곰 같으니. 아직도 그 짓이야. 당장 나가!" 하면서 내쫓아버렸어.

집을 나온 역쇠는 할 수없이 또 도깨비 집으로 다시 갔어. 도깨비가 역쇠 얘기를 다 듣더니 자기랑 일면만 더 살으래. 다시 일년이 지났지. 역쇠가 집에 가려니까 도깨비가 이제는 방망이를 하나 주는거야.

"이 방망이는 나쁜 사람을 때리라고 하면 두들겨 패는 방망이야. 이것을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꺼야." 하면서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역쇠가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가면서 전에 묶었던 그 주막으로 갔어. 그리고 주인한테 방망이를 또 맡겼지.

"절대로 이 방망이보고 '때려라!'하지 마시오." 하고 일르면서.

그날 밤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 이번에도 틀림없이 신기한 방망일거라 생각하고 역쇠가 잠들자.

"때려라."하고 한마디했어.

그러자 방망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주인 내외를 마구 때리는 거야. 주인집 여자가

"사람 살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인은

"총각, 내가 잘못했으니 좀 살려주소." 하면서 비내.

그래 역쇠가 나오니까

"작년에 총각이 맡긴 말 도로 줄테니, 제발. 살려 주소."

하는 거야. 그래 역쇠가 "그만 때려라"했지.

그래서 말을 도로 찾았어. 역쇠는 신나게 집으로 갔지. 그리고는 역쇠네 집은 말 덕분에 금방 부자가 되고 역쇠도 곰이라는 소리를 안들었대. 근데 사람이 욕심을 너무 부리면 벌을 받잖아? 역쇠네도 너무 욕심을 부렸던거야. 매일 말 궁둥이만 때렸거든. 그랬더니 그 말 궁둥이가 빨갱게 불덩이처럼 되더니만 말도 타버리고 집도 타버리고 말았대. 다만 금돈이 쏟아진 그 자리엔 말똥 모양의 풀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말똥풀(질경이 풀)이래.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

[뽕죽새 이야기]

아주 깊은 산골, 그러니까 물을 세 번 건너고 고개를 세 번 넘어서야 갈 수 있는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아들 단 둘이 살고 있었다.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을 남편삼아 아들삼아 마음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어. 세월은 흘러 아들은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이제 짝을 지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지. 고심고심 끝에 이웃마을 사는 참한 색시를 얻어 주었어. 어머니는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왠지 허전하고,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아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했어. 장가를 가니 아들도 어머니는 뉘전이고 제 색시만 챙기네.

하루는 아들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었어. 잠깐 쉬는 차에 새빨강게 잘 익은 산딸기가 이 아들의 눈에 띄었어. 널찍한 나뭇잎에 산딸기를 고이 싸서는 등에는 나뭇짐을 지고, 한 손에는 지게 작대기, 다른 한 손에는 산딸기를 정성껏 들고 집에 왔지. 마침 며느리가 마당에서 콩을 털고 있었거든. 아들은 제 색시에게 딸기를 주며 마음 호뭇하게 웃었지. 이 광경을 시어머니가 보았어. 그러니 이 시어머니는 이제 영 예전 같지 않은 아들이 원망스러우면서도 그게 모두 며느리 탓이라 여겼어. 그래 며느리를 눈에 든 가시처럼 더 미워하게 된거야.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모질게 대했어. 벼 방아 찧어라, 나뭇 뜯어라, 빨래 삶아라, 물 길어 와라 시키는 일은 많으면서 며느리 밥 먹는 걸 아까워했다네. 그래서 항상 누렁지며 찬밥은 며느리 차지였지. 그런 며느리는 언제나 배가 고팠어.

어느 날 이 산골 마을에도 설은 찾아 왔어. 설하면 무슨 음식이 생각나지? 그렇지. 떡국. 보드랍고 새하얀 떡에 김이 모락모락... 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 그런데 고 떡국이 화근이었어. 설날 아침 이 며느리가 떡국을 끓여 국사발에 푸고 있는데 밖에서 시어머니가 부르시네. 그래 부뚜막에다 가지런히 퍼 놓고 짹짹 씹어 먹어. 빨래 걸으라는 거야. 그래 얼른 걸어 놓고 부엌에 막 들어서려는데 글썽 누렁이가 부엌에서 후다닥 뛰어 나오네. 혹시나하며 두근거리며 가슴으로 부뚜막을 바라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 글썽 고놈의 누렁이가 떡국 세 그릇을 후딱 해 치웠네. 깜짝 놀라 벌린 입을 채 다물지도 못했을 때, 어머니도 부엌에 들어섰어.

"아니, 이 년이 떡국은 지 혼자 다 퍼먹었네!"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 아 아..."

정말 한 순간이었어.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고개만 잘래잘래 흔들고 있는데 시어머니 손에는 벌써 부지깅이가 쥐어졌네?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겁에 질려 뺨뺨 질치던 며느리는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어. 아이고, 뭘 팔자가 그리 드센지. 그냥 넘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토방에 머리를 부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네.

참 이상도 하지? 그 이듬해 봄부터 며느리를 묻은 산 쪽에서 전에는 듣지 못하던 새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이렇대.

"떡국, 떡국, 떡국..." 그리고 가끔은 "개개개개개..."하고 울더라. 그래 그 '떡국 떡국 개개개개' 하는 소리는 '떡국은 개가 먹었어요'하는 거래. 근데 왜 '떡국이'가 아니라 '뽕죽기'가 됐지? 가만히 들어보니 고놈이 고놈이네. 하긴 지금도 뽕죽기 보고 떡국새라고 하는 어른도 계시더라.

[백로, 개미, 메뚜기]

옛날에 백로랑 개미랑 메뚜기는 친한 동무사이였대. 한번은 셋이 모여 놀다가 함께 밥을 해 먹

차고 했어. 개미가 밥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백로랑 메뚜기는 반찬을 마련하러 갔지. 개미는 새참을 해 나가는 아주머니를 쫓아가 그 아주머니 장단지를 짝 물었어. 그러니 깜짝 놀라 밥 광주리를 쏟았네. 개미는 그 틈을 타서 밥을 이고 만나기로 한 곳으로 왔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더니 백로 혼자 메기를 물고 오지 않겠어?

"메뚜기는 어디 갔니?"

"아 글썽, 같이 강가로 갔는데 물 위를 뛰노는 메기를 보더니 잡겠다고 뛰어들어 아직 소식을 모르네. 그래 그냥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왔지."

"그래? 거 참 안됐네."

그 순간 개미와 백로의 뱃속에서 '꼬르륵'소리가 동시에 났어.

"우리 배고픈데 우선 이거나 먹고 같이 찾아보자."

"그래!"

그래서 백로는 메기 배를 짹 갈랐지. 그때 메뚜기가 메기 뱃속에서 툭 튀어 나왔어.

개미랑 백로가 깜짝 놀라 어안이 병병하고 있는데, 메뚜기 고놈 하는 말 좀 들어봐.

넓적한 이마를 싹싹 쓸어내면서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잡은 거다! 많이들 먹어."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뿔족한 입을 가진 백로가 더 뿔족하게 입을 내밀며

"이게 어째서 니가 잡은 거냐? 내가 잡은 거지!"

하며 싸우기 시작했어.

메뚜기는 연신 자기 이마를 쓸어내며 뭐라고 쪼잘대고 백로는 뿔족한 입을 내밀고 침을 튀기며 따져대고... 옆에서 그 꼴을 보던 개미는 고기 배 안에 스쳐서 홀러딩 까진 메뚜기 이마도 우습고, 화가 나서 더 꼬챙이 마냥 뿔족해진 백로 입도 우습고, 그런데다 둘이 냅다 싸우니 또 우습고.

웃고 또 웃고 배를 잡고 웃다가 그만 개미허리는 그렇게 잘록해졌다.

개미허리가 잘록해지고, 백로 입이 뿔족하고, 메뚜기 이마가 왜 그렇게 홀러딩 까지개 되었는지 이젠 알겠지?

*평안북도 구전설화

[고양이가 쥐 잡는 까닭]

옛날엔 어느 시골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고양이하고 쥐 이렇게 같이 살았다. 그런데 맘씨 고운 며느리가 고양이하고 쥐한테 얼마나 잘 해주는지 고양이하고 쥐도 아주 열심히 주인 일을 도왔다.

어느 날 고양이하고 쥐가 며느리 심부름을 가게 됐네. 고개 넘어 장에 가서 명태 말린 것 한 두 묶음하고 쌀 한 말을 사가지 오는 거야. 그래 둘이는 어깨동무하고 사이좋게 장엘 갔지. 장을 봐 가지고 명태는 고양이가 들고, 쌀은 쥐가 들고 왔어.

근데 몇 고개를 넘어 오다보니 쥐가 배가 고파. 들고 있는 자루 속을 보니 군침이 막 돌지 뭐야. 먹고는 싶은데 혼자만 먹을 순 없잖아. 그래 고양이를 꼬시는데,

"에 고양이야, 배 안 고프냐? 난 배고파 못 참겠는데... 우리 이것 좀 먹고 가자. 넌 명태 좋아하니까 명태를 먹고, 나는 곡식을 좋아하니까 쌀을 먹고, 어떠냐?"

그 말을 들은 고양이가 딱 맞장구를 쳐야 하잖아! 근데 고양이는 배는 고프지만 주인 몰래 먹고 싶지는 않아.

"그런 말 말어! 우리 주인이 우릴 얼마나 아끼는데 그런 소릴 하니? 안 돼. 얼른 집에 가서 먹

자."

그랬어. 그 말을 들으니 쥐는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동했어. 왜, 하지 말라는 일은 더 하고 싶잖아.

"야, 넌 가벼운 거 들어서 배 안 고프지 몰라도, 난 배가 등에 가 붙을라고 한다. 난 못 참겠어." 하면서 자루에 든 쌀을 꺼내 먹는 거야. 고양이가 아무리 말려도 쥐는 들은 척도 안 하네.

이제 집에 와서 고양이하고 쥐가 장에 갔다 온 물건을 내 놓았어. 근데 고양이는 암말 없이 내놓는데 쥐란 놈은 납작하게 줄어든 쌀자루를 내놓으면서도

"아휴 들고 오느라 무거워서 혼났어요."

하고 생색을 내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휴 무거운 거 들고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하면서 칭찬을 하더라. 이 꼴을 본 고양이는 은근히 화가 났지만 쥐와 의리도 있고 해서 그냥 참았어.

그런데 그때부터 쥐란 놈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네. 한 번 훔쳐 먹는 일에 재미가 붙으니까 날마다 곳간에 있는 곡식을 훔쳐 먹는 거야. 곳간에 있는 쌀뿐만이 아냐, 씨 하려고 모아둔 고구마도 훔쳐 먹고, 감자도 훔쳐 먹고 나중에 제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훔쳐 먹는데, 이러다가는 곳간의 곡식이 남아남질 않겠어. 그러니 옆에서 그걸 보는 고양이는 얼마나 애가 타. 날마다 쥐를 불러다놓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욕박지르고 그랬지. 그렇게 해도 한 번 버릇이 든 쥐란 놈은 영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를 안 해. 그것 참 야단났지.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시어머니가 곡식이 비는 걸 알아차렸네! 그래 며느리를 호되게 야단 쳤지. 며느리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고 혼나기만 했어. 그래 고민고민하다가 고양이를 불러 물어. 곳간의 곡식이 왜 자꾸 없어지냐고, 그런데 고양이는 쥐가 주인한테 혼날 게 걱정이 돼 잘 모른다고 했어. 속으로는 이번엔 쥐를 불러서 그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고양이가 모른다니 며느리는 쥐에게 가서 또 묻는 거야. 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맞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얼마 전에 고양이가 밤에 곳간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겠어.

그래 며느리는 쥐 말만 듣고 고양이를 불러다가 크게 나무랐지 뭐야. 하지만 그래도 고양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 그리고 맘 속으로

'이번엔 이녀석 버릇을 꼭 고쳐야지 정말 안되겠어!'

하고 별렀어.

그 날 밤 고양이가 또 훔쳐먹으려고 곳간에 들어가는 쥐를 불러 세웠어.

"야 이 놈 쥐야. 너 때문에 주인이 얼마나 걱정인 줄 아냐! 이제까지 그렇게 잘 해 준 주인한테 이게 무슨 배은망덕이나? 너 다시 한 번 곳간에 들어갔다가는 그 댐 절대 가만 안둔다!"

하고 큰 소리로 나무랐지. 그런데 쥐란 놈은 콧방귀만 뀌면서 다음날 또 곳간에 들어가서 훔쳐먹는 게 아냐! 몰래 곳간을 보고 있던 고양이는 너무 화가 났어. 당장 달려가서 쥐를 실컷 두들겨 패겠지 뭐야.

아, 근데 흠씬 두들겨 맞은 쥐란 놈은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않고 겁도 없이 하늘나라 옥황상제한테 달려갔네. 가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양이가 죄 없는 저를 못살게 군다고 일러바치는 게 아니겠어.

옥황상제가 애길 들어보니 고양이가 못 됐거든. 그래 신하를 보내 당장 고양이를 불러오라고 했지. 그래 고양이를 막 야단치는 거야. 한 집에 살면서 덩지도 작은 쥐를 못살게 군다고 말이야. 그래 이쯤되니 고양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동안 일을 이러저러하다고 다 말해 버렸지.

그 말을 들은 옥황상제가 기가 막힌 거야. 화가 머리꼭대기까지 나서

"에잇 나쁜 놈!"

"이제부터 고양이 너는 쥐가 버릇을 고칠 때까지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잡아 혼내주도록 해라. 그리고 쥐는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절대 환한 세상에 나올 수 없도록 해라!"

하면서 고양이한테 날카로운 발톱을 췌어. 그리고 쥐는 다시는 환한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됐지. 그런데 쥐가 잘못을 뉘우친 것 같아?

아직 못 뉘우친 것 같지? 그래서 아직도 고양이를 원망하면서 이를 바드득바드득 갈고 있잖아. 가까이에 쥐가 살거든 잘 들어봐 그 소리가 들리나!

[토끼 쫓지가 짧은 이유]

옛날에 옛날에 강원도 아주 깊은 산 속에 호랑이가 살았어. 산중의 왕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이 호랑이잖아. 하루는 호랑이가 숲 속에 뭐 먹을 것이 없나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저 앞에서 수달피가 호랑이를 본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났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하고 덜덜 떨고 있다가 '에잇.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풀숲에서 풀썩 뛰어 나왔어.

그러더니 '호랑아' 하고 부른거야. 이 수달피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 한다는 것이 갑자기 수달피가 너무 황당한 행동을 하니까 당황해서 "에" 하고 대답한거야.

이걸 보고 수달피가 한술 더 떠요.

"네 할아버지 적에 내 돈 삼백냥을 가져가더니 너 하나 올라오는 것으로 그 돈을 갚으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야.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하다가는 죽게 생겼거든. 저 할아버지 적에 돈을 빌렸다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도 없고 해서 슬슬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호랑이가 본래 의심이 아주 많은 짐승이야. 제 굴 앞애를 가도 꿩무니부터 디밀고 들어가 지, 앞으로 머리부터 들어가는 법이 없어. 그래 슬슬 도망을 가는데, 덩불 속에서 토끼가 쑥 튀어 나와서는

"아이고 아저씨, 어디 갔다 오세요"

"아이고 아저씨지 할아버지 아무 생각이 없다."

"왜 그러세요"

"저 산 꼭대기에 쪼그만한 짐승 한 마리가 나를 보고는 '호랑아' 하고 불러 내가 '뭐' 한다는 게 그만 '에' 하고 대답했더니 '니 할아버지 적에 내 돈 삼백냥 가져가더니 너 하나 올라오는 것으로 그 돈을 갚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야. 아 그래 슬슬 피해오는 길이다."

호랑이가 애써 태연한 척을 하며 이야기를 하니 이 토끼가 대뜸

"아이고, 아저씨,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제주 한라산서 건너온 수달피란 놈인데 언제나 발바닥만 핏아 먹고 사는 짐승입니다. 저하고 같이 가서 혼을 내주세요." 하는 거야.

그 말에 호랑이는

"아이고, 예야, 너나 가라. 나는 절대로 가고 싶은 맘이 없다"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아저씨 의심 많은 거는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아저씨 쫓길 내 쫓지에 매구서 내가 앞을 설테니 아저씨랑 제 뒤를 따라 오세요"

가만히 호랑이가 생각해보니 그럴싸해. 그래 쫓지를 매구서 토끼 꿩무니를 슬슬 뒷걸음질로 따라 갔어.

수달피가 산 위에서 보니 큰일났거든.

'토끼란 놈이 산짐승 중에 약은 게 토끼인데, 이제 내가 저 토끼란 놈 피임에 영영 죽겠생겼구나. 에잇, 이왕 죽을 거 나도 피 한번 더 써보고 죽자'

하고 생각하고는

"토끼야" 하고 부르니 토끼가 "뭘" 한다는 것이 "에" 하고 대답한 거야.

"야, 니 할애비 적에 내 돈 삼백냥 가져가더니 산 호랑이 한 마리 잡아 온다고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러거든. 가만히 호랑이가 생각을 하니 토끼 할아버지 빗 갚으러 온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났네. 이 고약한 토끼 놈 때문에 나만 죽겠구나. 얼른 정신 차려서 도망가자'

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건너편 산으로 훌쩍 뛰었어. 그 바람에 토끼 꼬리가 뚝 잘려서 강충하게 되었다지 뭐야. 호랑이 꼬리는 떨어진 토끼 꼬리 때문에 얼룩 얼룩하고 기다랗게 되었고. 어때?

호랑이도 토끼도 너무 우습지?

[개가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 까닭]

옛날에 옛날에 하루는 옥황상제가 돼지, 닭, 개를 불렀어. 하늘나라는 너무 너무 살기가 편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 돼지, 닭, 개를 보고 "하늘나라는 이만하면 살기 좋으니 너희들은 저기 땅에 내려가서 좋은 일을 하고 와라." 그랬어. 1년 동안 말이야. 그래 돼지하고 닭하고 개하고 땅으로 내려가게 됐지.

1년이 훌쩍 지나갔네. 옥황상제는 돼지하고 닭하고 개가 어떤 좋은 일을 했을까 궁금해. 그래 얼른 올라오라고 불러 올렸지. 제일 먼저 올라온 게 누군지 알아?

바로 돼지야. 옥황상제가 돼지에게 묻는데,

"돼지야. 1년 동안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

"네, 저는 땅에 내려가서도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밥만 먹고 잠만 잤습니다."

"아니, 뭐라고? 할 일이 없어?"

잔뜩 기대를 하고 돼지 말을 들던 옥황상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핫김에 돼지의 코를 싹둑 잘라버렸지. 그래 원래 길쭉하던 돼지 코가 지금처럼 납작하게 됐지 뭐야.

다음에는 닭이 들어왔어.

"너는 땅에 내려가 무엇을 하고 왔니?"

"에 저는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꼬끼오 하고 울어서 동네 사람들을 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모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지. 그 말을 들은 옥황상제는 돼지 때문에 상한 기분이 금방 좋아졌어.

"그래 참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 닭 머리에 벼슬을 달아 주었지. 그때부터 닭 머리에 벼슬이 달리게 된 거야.

다음에는 개가 들어왔어.

"너는 땅에 내려가서 무슨 좋은 일을 했니?"

"저는 날마다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는 거야.

옥황상제는 기분이 더 좋아졌지 뭐야.

"음, 참 좋은 일을 했구나."

하고는 상으로 개한테 다리를 하나 더 달아주었대. 개는 그때까지만 해도 다리가 셋이었다네! 그런데 다리가 넷이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때부터 개는 다리를 아끼느라 오줌을 늘

때 꼭 다리를 들고 눈다지 아머! 들고 누는 그 다리가 바로 옥황상제가 상으로 준 다리라니까 잘 봐!

[오리 잡는 법]

가을이 되면 들오리가 밭이나 논에 떨어진 이삭을 먹으려고 밤에 떼를 지어 날아오거든. 그런데 요 오리란 놈이 얼마나 영악한지 꼭 한 마리는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망을 보게 시킨단 말야. 이때 몸을 가릴 만한 칠평쿨이나 뭐 그런 걸 덮어 쓰고 논두렁에서 기다려. 주머니에는 부싷돌도 준비하고.

깜깜한 밤에 들오리들은 논으로 밭으로 날아들어 이삭을 먹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고, 그 중 한 놈은 요리조리 고개를 돌리며 망을 보겠지? 이때 냇굴 속에 있던 사람이 부싷돌로 반짝 빛을 내. 망 보던 놈이 깜짝 놀라 '쩍' '쩍' 거리거든. 그러면 나머지 오리들이 놀라서 '푸드덕' 날아올라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둘러본대.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으니 '저 놈이 거짓말을 쳤구나.'하고 부화가 치밀어 올라 모두 달려들어 털이란 털은 몽땅 뜯어버리고 죽여 버린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오리를 망보게 시켜. 그럼 또 정신없이 이삭을 주워 먹을 때 부싷돌로 반짝 빛을 내. 이 망보던 오리가 '쩍쩍' 소리를 칠거고 다른 오리들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봐. 이때 아무 김새가 없으니 또 화가 나서 망보던 오리털을 홀라당 뽑아 죽인대.

세 번째 오리, 네 번째 오리..., 아흔 아홉 번째 오리...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구니에 주워 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백 마리 오리가 있으면 구십구 마리 오리는 잡을 수가 있다는구만. 어때? 기가 막힌 방법이지?

*평안북도 구전설화

[메추리는 왜 콩지가 없을까?]

옛날 숲 속에 꿩하고 메추리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 꿩이 매일 손에다가 콩을 잔뜩 놓고 먹는거야. 메추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쳐다보아도 줄 생각은 안하고 계속 먹으면서 약만 올려. 메추리는 약이 잔뜩 올랐지만 꼭 참으면서 꿩에게 물어보았어.

"꿩 아저씨, 어디서 콩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 매일 드세요? 저 조금 주세요."

"에이, 사람 나두 지금 얻어다 먹는 거네. 얻어다 먹는 걸 누굴 나누어주나"

"아저씨, 어디서 얻으셨는데요"

그랬더니 꿩이 콩지를 흔들며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거야.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메추리 자네니까 특별히 알려주지. 귀 좀 대보게"

그래서 메추리는 얼른 다가가서 귀를 들이댔어.

"저 건너로 가면 거기 툽 밑에 구멍이 있어. 그 구멍 앞에 서서 '서 서방 서 서방' 하고 부르면 서생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콩 좀 꾸어 달라고 잘 이야기하게. 공손하게 잘 이야기해야지 꾸어 줄 거야."

"아이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메추리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구멍 앞으로 뛰어갔어. 그리고는 큰 소리로

"서 서방 서 서방" 하고 불렀거든

근데 부르고 나니, 쥐를 서 서방이라고 부르는 게 웬지 아니꼬운 거야. 그래서 다시

"야, 쥐야 쥐야" 하고 불러버렸어.

구멍을 쩌렁 쩌렁 하게 울리는 그 소리에 쥐가 도토리 껍질을 발에 신고, 상수리 담뱃대를 물고 나왔어.

메추리는 쥐를 보자마자

"야, 쥐야. 양식이 있거들랑 콩이든 팥이든 아무거나 좋으니까 한 말만 줘 쥐" 라고 이야기 했지.

그랬더니 쥐가 화를 막 내면서

"너, 이놈 산에서 사는 쟁서방두 나보고 서 서방 서 서방 하는데, 너는 뭔데 나보고 쥐라고 하나, 이놈아"

하면서 메추리 콩무늬를 냅다 물어 버린거야. 그래서 메추리가 놀라서 앞으로 뛰어버렸어.

아이고 이게 웬 일이야. 메추리 콩지가 몽창 빠졌지 뭐. 그래서 지금 메추리 콩지가 없는거야.

[더운 여름날 매미가 울어대는 까닭]

옛날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이 선비 공부하는 것 밖에는 모르는거야. 밥을 먹으면서도 책 읽고, 화장실 가서도 책을 읽고, 오죽하면 잘 때도 책을 비고 자네. 이러니 선비 아내는 그런 남편이 얼마나 야속했겠어. 자기는 바느질에, 남에 집 빨래에 쉴 틈이 없는데 책상 앞에서 책만 읽는 남편이 미워서 어쩔 줄 몰랐지.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났어.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땅에는 개미 한 마리도 없고 날아다니는 새도 한 마리 없어. 아, 날이 이런데도 굶어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들에 나가서 나물이라도 뜯어야지. 나물 뜯으러 나가면서 남편에게 통명스럽게 한마디를 하고 나가는데..

"혹시 비가 오면 멍석에 널어놓은 것 좀 거둬주세요."

남편은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책만 쳐다보네. 한숨이 절로 나왔지. 얼마쯤 땀을 흠뻑 흘리며 나물을 뜯고 있었을까.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마른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른 손가락 굵기 만한 소나기가 짹짹 쏟아 붓는 거야. 그 비를 훌쩍 맞으며 집으로 막뛰어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다가 그만 할말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어.

마당에는 흠에 비에 뒤범벅이 된 멍석이 굴러다니고, 남편이란 사람은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책만 읽고 있는거라. 그러니 기가 안막혀.

"안되겠어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다가는 평생 고생만 할게 뻔하구만"

그러고는 그길로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어. 근데 다시 시집간 곳도 가난하긴 마찬가지였나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에도 그 여자는 땀방아 아래서 나물을 뜯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리는거야.

넓은 들에

나물 뜯는 저 마누래야

나물 자리 마다 하고

날 버리고 가더니만

나물 자리 못 먼했네

그래 어리둥절해서 돌아보니까, 아 글썽 자기가 버리고 온 그 남편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기름이 번들번들한 말 위에 올라 앉아 있는게. 한눈에 척 봐도 높은 벼슬에 앉은 게 분명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 이 여자가 체면이고 뭐고 갑자기 남편한테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사정을 하는게 아니야. 그런데 이 남편은 그 말에는 대꾸도 안하고 부인한테 물 한 그릇만 달라고 하는거야. 그랬더니 불이나케 떠다줬지. 물을 받아들더니 먹지도 않고 땅바닥에 확 쏟아붓네. 이미 얼지려진 물이

라 그거지. 그리고는 뒤도 안돌아보고 떠났어.

"조금만 더 참아 불거를 못 참고 이 모양이 되버렸네 어쩌나 어쩌나." 그 더위에 얼마나 울었는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데. 그런데 그 여자 콧구멍에서 이상한 벌레가 한 마리 포르르 나오더니

"매용 매용 매용 매용"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후부터는 무더운 여름만 돌아오면 이 벌레가 나와서 우는데, 참을성 없는 자신이 얼마나 미웠던지 몇 년씩 땅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세상에 나온다지.

물고기들이 예전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대. 근데 오징어가 눈이 위에 안달리고 밑에, 허리춤에 달렸잖아? 그 다 사연이 있어. 예전엔 옛날엔 안 그랬대. 그런데 왜 그런고 하면, 그 기막힌 사연이 있어.

[매기입이 큰 이유]

옛날옛적에 동해바다에 멸치가 살았는데 이 멸치가 생일이 됐어. 그 생일이 돼서 온갖 물고기들을 다 초대 해 농구 축 있었는데, 그 생일 전 날 이상한 꿈을 꾸 거야. 딱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용꿈이야) 딱 이상하게 꿈이 찝찝한 거야. 그래가지구(막둥이가 용꿈이라구) 여러 물고기들이 모인 참에 꿈 얘기를 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아야겠다 그래가지구 꿈 얘기를 한거야. (가자미.....) 그래서 꿈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글썽 어제 밤 꿈에 이상하게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더니(그리고 무슨 남의 손에..... 아, 조용히 좀 해 봐)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갑자기 남의 손에 실려 가지고 가는데, 또 흰 눈이 펄펄 내리고, 그 흰 눈이 펄펄 내리는 걸 맞으니까 막 추웠다가 또 더웠다가 또 흰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그러더라. 근데 물고기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애긴 줄 모르겠단 말야. 그런데 그 중에 망둥이가 들어보니까, 멸치한테 아부도 하고 싶은 거야. 또, 생일 날 잔치도 열었겠다.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하이고, 멸치님!"

그거는 용이 될 꿈이라고 했어. 용이 될 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시라구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흰 눈이) 어, 흰 눈이 막 내리는 거는 하늘에서 하늘에 올라갈 때 눈이 막 내리는 거구. 그 다음에 남의 발로 옮겨가는 거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거구. 그리고 또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는(자기가 마음대로 날씨를 조정하는 거고) 그렇지. 조화를 부러가지구 날씨를 마음대로 하니까 추웠다 더웠다 하는거라구. 막 그랬대. 그러니까 멸치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마음껏 먹으라고 음식도 더 내오고. 막 신나게 노는데(가자미가) 옆에 가자미가 듣더니(아니라고, 에이 동휘!)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멸치가 평소에 멸치가 거드름도 피우고, 제가 저렇게 하면 병병 뜨고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애. 걱정도 되고 해서 멸치한테 가서

"아니라구, 내가 보니까 그런 꿈이 아니라 걱정이 되니 멸치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뭐냐구?"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멸치님이 죽을 꿈이라구 그러니까 멸치가 갑자기 입이 이만큼 찢어졌다가 뭐냐구 그런 거야.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남시줄에 걸려서 물 속을 왔다갔다하는 거구,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긴장을 한 거야. 지금 너희들처럼 쪽 보는 거야. 가자미한테 집중을 했어. 그 다음에 남의 손에 실려 가는 것은 다래끼(어, 맞아 다래끼) 라고 물건을 담은 바구니에 넣어 갖고 가져가는 거구, 그 다음에 천둥소리가 펑펑 치는 거, 아니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것은 소금을 막 뿌리는 거구, 그 다음에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는 불에다 구웠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구, 그 다음에 천둥소리가 펍 났다 그랬거든. 그 천둥이 쿵 치는 것은 도마에 멸치를 탁 해 가지구(헉!) 잡는 꿈이라구 그러니까 멸치가 갑자기 (멸치가 어떻게...) 아, 멸치가 말리기 전에는 커. 예전에는 컷어.(그게 얘기잖아) 그러니까 멸치가 기분이 싹 나빠진 거야. 그래서 물고기들이 긴장을 한 거야. 멸치가 그 얘길 듣고 화가 나 안냐? (나요.) 화가 나가지구 가자미 얼굴을 뽀뽀 할 때리니까 눈이 확 물리고, 가자미를 팍 밟았어. 그때는 통글통글 통통했는데 납작해져가지구.(멸치가 어떻게?) 멸치가 좀 힘이 켜거든. 그전에는 멸치가 컷던 말야. 그 바람에 가자미가 그렇게 되니까 (메기가 웃어가지구) 메기가 얼마나 웃겨. 눈이 한 쪽으로 확 물린 걸 보니까. 웃어가지구(웃음) 입이 이만큼 찢어진 거야. (웃음) 근데,(꿀뚜기!) 꿀뚜기는 그걸 보구 자기도 옆에 있다 췌히 멸치한테 맞을까봐 눈을 찌어가지구 옆에다 붙여가지구 있었구.(웃음) 그 다음부터 꿀뚜기가 허리춤에.(병어!) 어, 병어는 (웃음을 참다가) 어, 너무 웃긴데 웃으면, 메기처럼 웃으면 힘도 안써잖아. 그러다 멸치한테 디지게 맞을까봐 억지로 하다가 입이 이렇게 오무러들었대.(웃음) 그래가지구 그 사건 이후로 물고기들이 다 이상한 모양이 됐다는 거 아냐. (재밌다.)



달과 관련된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에 산골에 오두막집 하나가 있었어. 오두막에는 어머니와 오누이, 그리고 찢먹이 막내 이렇게 넷이서 살았거든. 근데 어머니 혼자 애들을 키우니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어. 어머니는 매일 산 너머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 주고 먹을 거랑 입을 거를 장만해 와서 네 식구가 그럭저럭 살았지.

하루는 일이 너무 늦게 끝났지 뭐야. 그 집에서는 고생했다고 다른 날 보다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개떡까지 줘서 함지박에 한 아홉 담고 집으로 갔지. 몇 고개를 넘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만 날이 어두워졌어.

한 고개를 넘었더니 아 이게 뭐야? 짐채만한 호랑이가 떠억 버티고 서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깜짝 놀라 떡을 얼른 꺼내줬지. 그랬더니 호랑이가 가 버려. 어머니는 더 빨리 길을 재촉해서 고개 하나를 또 넘었지.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없이 떡을 주고 고개를 넘었어. 또 한 고개를 넘어섰더니, 그 놈의 호랑이가 또 떡을 달라는 거야. 이렇게 계속 떡을 뺏어가더니 나중에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어.

호랑이는 어머니의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서 오두막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 아이들이 누구냐고 하니까 엄마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해. 그래서 딸이 엄마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오늘 일이 힘들고, 찬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도 이상해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보라고 했더니 털이 송송나고, 거칠거칠한 거야. 그래서 또, 손이 왜 이러냐고 했더니 베를 매느라고 풀을 만져서 꺼질다고 그래.

아이들은 진짜 엄마가 왔나부다 하고 문을 열어줬어. 호랑이는 방안에 들어오더니 애기 젖 줘야겠다며 애기를 데리고 옷목으로 가. 그러고는 오독오독 소리를 내며 잡아먹었지 뭐야.

그 소리를 듣고 오빠가 호랑이한테 뭐 드시냐고 했더니 부잣집에서 콩 볶아준 거 먹는다는 거야. 그래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애기 손가락 하나를 획 던져줬어. 오누이는 동생 손가락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지. 엄마가 아닌 걸 알고 얼른 도망갈 궁리를 했어.

“엄마, 똥 매려워.”

“방에서 뉘라.”

“방에서 누면 구린내가 나서 안 돼요.”

“그럼, 토방에다 뉘라.”

“토방에다 누면 밟아서 안 돼요.”

“그럼, 뒷간에다 뉘라.”

그래서 오누이는 얼른 나와서 우물가에 있는 높은 소나무 위에 올라갔어.

한참이 지나도 오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호랑이가 어땠겠어? 그치? 찾아 나섰겠지? 집안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없어. 그러다보니까 호랑이가 목이 마르지 뭐야. 물을

좀 마시려고 우물에 왔더니 아 글썄, 우물 안에 오누이가 있지 뭐야?

호랑이는,

“애들아, 거기서 뭐하니? 얼른 나와.”

“아니, 애들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 얼른 나오라니까.”

우물에다 대고 오누이를 계속 불러도 대답할 리가 있다. 근데 그 꼴을 보고 있던 동생이 얼마나 우스워.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나무 위를 보게 된 거야.

“애들아, 너희 나무 위에 어떻게 올라갔니?”

그랬더니 오빠가,

“부엌에서 참기름을 손에 바르고 올라왔지.” 그래.

그랬더니 호랑이는 얼른 부엌에 가서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를 기어올랐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 거 같아? 그치. 자꾸 미끄러졌겠지? 참기름이 얼마나 미끄러워. 올라가다가 쿵, 올라가다가 쿵. 이걸 보던 동생이 너무 우스워서,

“에이 바보, 도끼로 나무를 팡팡 찍어다가 밟고 올라와야지.”

그랬더니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팡팡 찍어서 성큼성큼 올라오지 뭐야.

놀란 오누이는 하늘에다 대고 빌었어.

“하느님,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게 됐지. 이걸 본 호랑이가 가만히 있었겠어? 호랑이도 하늘에 대고 빌었지. 그랬더니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호랑이는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죽었지 뭐야. 근데, 호랑이가 떨어진 곳이 수수밭이었어. 그래서 지금도 수수대에 붉은 줄이 가 있는 게 그때 떨어진 호랑이의 피래. 한번 잘 살펴봐.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됐나? 하느님이 오누이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오빠는 하늘의 해가 되게 하고, 동생은 달이 되게 해줬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이 바로 그 오누이잖아.

[토끼가 달에 살게 된 사연]

옛날 옛적에 산 속에 토끼와 여우와 원숭이가 함께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맞춰서 우리 불교를 한번 공부해보자고 했어. 불도를 깊게 닦아보자고 굳게 약속하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불도를 닦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걸 보고 하늘에 있는 제석천(하느님)이 재들이 얼마나 깊이 불도를 닦았나, 공부가 얼마나 되었나 알려고 내려와 봤어. 제석천이 오니까 애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 전부다 와서 절도 하고, 인사도 하고 야단도 아닌데, 제석천이 어떻게 하나 불려고 “내가 배가 고프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전부다 먹을 걸 구해오겠다고 갔는데, 조금 있다가 여우는 물고기를 잡아왔어. 그리고 제석천한테 드시라고 하고, 좀 있다가 보니까 원숭이가 오는데, 도토리들 들고 오거든. 그걸 드시라고 가지고 온 거지.

그런데 한참 있어도 토끼가 안 와.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더니 살생을 해야 되고, 도토리를 가져오자니 새싹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가져오자니 그렇고, 할 수 없이 마른 나무 몇 개를 주워가지고 왔어. 여우와 원숭이가 놀렸지. 넌 이게 먹을 거냐?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불을 피우더니 제가 다른 건 드릴 게 없고, 제 몸

을 드릴 테니 익으면 드시라고. 그리고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 그걸 보고 제석천이 토끼의 불심이 제일이다 하며, 토끼를 달에 올려놓았지. 모든 중생들이 토끼를 우러러 보게 하려고 말야.

[금강산 구경 온 토끼]

금강산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잘 알지? 노래도 있잖아.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그런데 이 소문이 하늘나라에까지 퍼졌대. 그래서 더운 날이면 선녀들이 금강산 상팔담에 내려와서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곤 했대. 그러니 소문은 더욱 퍼졌겠지. 거기다가 하늘나라에 선녀와 자식을 만나러 올라간 나무꾼이 있잖아. 그 사람이 하늘나라보다 금강산이 좋다고 식구들 다 데리고 내려온 다음에는 더욱 유명해졌어. 하늘나라 사람 모두가 금강산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 될 정도였다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안달이 난 것이 누군가 하면 달나라에서 방아 찧는 토끼였어. 원래 토끼가 성미가 급하잖아. 얼마나 금강산에 가고 싶은지, 절구를 툭툭 찧을 때마다 금강산 생각하느라고 자기 발등을 찧을 뻔 했다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 용기를 내서 옥황상제한테 청했지. 제발 휴가 좀 달라 이거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렇게 간간한 옥황상제도 허락을 해 줬네. 근데 이 토끼가 방아를 찧어야 하니까 보름달이 되기 전에 꼭 돌아오라고 했어. 안 그러면 큰 벌을 내린다고. 그 때가 그름이니까 보름달이 되려면 넉넉히 보름이나 구경할 수 있었거든. 단 하루도 아니고 보름이나 허락을 받은 토끼는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어.

다음 날 먼동이 트기도 전에 손살같이 금강산에 내려왔지. 금강산은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이 경치가 다른데 그 가운데 산과 바위가 볼만한 곳은 외금강이라. 그래 외금강으로 갔지.

외금강 입구에 와서 세존봉 줄기를 타고 한참을 올라서 금강문에 도착했어. 아, 그런데 그렇게 방정맞은 토끼가 갑자기 놀러 붙은 것처럼 꼼짝을 못해. 금강산 경치에 넋이 나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지.

천화대가 저 앞에서 있는데 꽃송이가 수 만개나 피어있는 것 같았대. 옥류동 폭포가 흘러내리는데 구슬이 포르르 흘러내리는 것 같고, 비단천을 걸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봉황폭포하고 비봉폭포는 봉황이 춤을 추며 날아가는 것 같이 아름다웠어. 토끼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만 헤벌리고 있는 거지 뭐. 조금 익숙해지니까 평소 토끼 모습이 됐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금강산 구석구석을 구경했어. 그러니 뭐 배고픈 걸 알겠어, 시간가는 걸 알겠어. 날짜가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넋이 나간 채 잘도 구경을 했지.

그런데 문득 보니까 저 멀리 동해 바다 수평선에서 보름달이 떠오르는 거야. 그제사 “아차!” 싶었지. 하지만 뭐 이미 었질러진 물인걸. 갑자기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 그러더니 구름이 흔들흔들, 바닷물은 출렁출렁, 땅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하느님의 성난 목소리가 하늘과 땅을 울렸어. 어찌 지엄한 하늘나라 법을 어기느냐고. 너는 이제 그 벌로 거북이가 되어야 한다고.

조금 있으니까 토끼 몸뚱이는 서서히 거북이로 변해갔어. 그 부드럽던 등짝이 갈라지면서 딱딱한 등판이 되고 발과 가슴도 거북이처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의 토끼 좀

봐. 자기 몸이 바위로 변해 가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얼굴에 웃음을 짓고 있네. 왜냐고? 달나라에서 절구를 찧는 것보다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맘에 들었던 거지. 몸은 차디찬 거북바위로 변해 가는데 얼굴은 여전히 토끼인 채 입이 벌어진 그대로 점점 굳어갔다. 지금도 세존봉 증턱에 가면 그 바위를 볼 수 있대.

그런데 지금 달나라에 있는 토끼는 누구냐고? 아마 그 토끼 동생인가 보지.

[절구가 왜 달에 올라갔을까]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아주 잘 쥐는 남자가 있었어. 어느 날 남자는 건넌마을에 방귀를 잘 쥐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흥, 누가 더 잘 쥐나 내기해 보자."

다음 날 방귀쟁이 남자는 건넌마을로 여자를 찾아갔다.

"이리 오너라."

방귀쟁이 남자가 점잖은 소리로 말했어. 조금 있으니까 조그마한 여자 아이가 사립문 밖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어. 그러더니 어머니는 밭에 가고 안 계신다고 말하고는 부엌으로 속 들어가 버려.

남자는 "어허, 저런 버르장머리. 어디 혼 좀 나 봐라."하고는 부엌으로 쫓아가 딸아이한테 "뿌우웅"하고 방귀를 쥐었어. 어찌나 방귀가 세던지 딸아이는 방귀에 밀려 아궁이로 속 들어가더니, 금방 굴뚝으로 빠져나와. 마침 방귀쟁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오다 이 모습을 봤지 뭐야.

딸아이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딸이 흘쩍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줬어.

"아니, 이런 못된 놈. 어디 두고 봐라."

방귀쟁이 여자는 화가 나서 방귀쟁이 남자한테 "뿌우웅"하고 방귀를 쥐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절구통이 휘익 날아가 남자 앞에 쿵 떨어졌거든. 남자도 화가 나 "뿌우웅" 방귀를 쥐자 이번에는 절구통이 여자 앞에 쿵 떨어졌어. 이렇게 "뿌웅, 뽕뽕" 주저니 받거나 방귀를 쥐는 통에 절구통은 두 사람 사이를 바쁘게 왔다갔다 했어.

"휘이잉, 휘이잉"

한나절을 그렇게 싸웠더니 둘이 힘이 빠졌어.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 "뿌우웅"하고 방귀를 쫘어. 그런데 이를 어찌. 두 사람이 똑같이 방귀를 쥐는 바람에 절구통은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올라가더니 달에 가 떨어졌지 뭐야.

그 때 달에는 토끼가 살잖아. 혼자서 심심했는데, 절구가 푹 떨어지니까 그 때부터 그 절구를 가지고 떡방아를 찧고 살았다는 거야.

[다른 나라의 달 이야기-에스키모 전설]

옛날 옛적에 한 바닷가에 오빠와 여동생이 살았거든. 그런데 이 오빠는 보통 심술쟁이가 아냐. 동생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으면 재를 뿌리고 도망가고, 동생이 물동이를 이고 오면 돌맹이를 던져 깨버리는 거야. 오빠라는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괴롭히기만 하니까 이 동생이 어땠겠어?

하루는 도저히 못살겠다고 저 멀리 도망가야지 하고 바닷가로 달려갔지. 그랬더니 거기에 하늘로 올라가는 기다란 사다리가 있는 거야. 여동생은 얼른 사다리를 따라 하늘

로 올라가서 해가 되었지.

오빠는 오늘은 뭘로 악을 올릴까하고 동생을 찾고 있는데 글썽 바닷가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동생이 보이잖아. 아니 저게 뭐야? 오빠가 궁금해서 얼른 쫓아올라갔지. 동생이 올라가서 먼저 해가 되었으니까 오빠가 달이 될 수밖에. 달이 되어서 동생을 막 쫓아갔지. 그런데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 하도 쫓아갔더니 힘이 빠지고 배도 고파서 거의 다 죽어가게 되었어. 동생이 그걸 보니까 불쌍하잖아. 그래도 오빠한테. 그래서 다 죽어가는 오빠한테 떡 하나를 줘서 살려놨어. 그랬더니 오빠가 좀 살아나. 또 떡 하나를 주고 계속 먹을 것을 줬더니 살아나는 거야. 15일이 지나니까 살이 퉁퉁해지고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동생을 괴롭히겠다고 따라오네. 동생이 이제는 먹을 것을 안 주고 열심히 도망을 치기 시작해. 그러다가 다 따라올만하면 힘이 빠져서 죽고 마네. 그럼 동생은 또 불쌍해서 살려주고 오빠가 다 살아나면 또 도망가고. 이러기를 아직도 하늘에서 하고 있는 거야.

[두꺼비가 달에 살게 된 사연 - 항아 이야기]

두꺼비가 달에 살게 된 이야기는 동이쪽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구전되는 것으로 보아 중국과 우리가 서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란 생각이 든다.

옛날 옛적에 하늘에 해가 10개 있었거든. 10형제였는데,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서 다 죽고 하나만 남게 되었대. 무슨 일이냐면 원래 이 해 형제가 10명이었는데, 어머니가 항상 하루에 한 명씩만 하늘나라 수레를 태워서 세상에 내보냈거든. 그래서 세상에는 해가 하나씩만 나타났었는데, 하루는 이 형제들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깐 너무 심심하거든. 그래서 그 날은 10명의 해가 다 세상에 나와 버린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 강은 마르고, 논바닥은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물을 먹을 수가 있나 이제 다 죽게 됐거든. 그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하늘에 알리고 야단이 났지. 그래서 하느님이 알게 된 거야.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그 장난이 보통 심한 게 아니니까 불호령을 쳤지.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도 이제 딸을 안 듣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느님은 활을 아주 잘 쏘는 예를 불렀어. 그리고는 당장 해를 다 떨어뜨리라고 명령을 했지.

그래서 예는 아내 항아와 함께 땅으로 내려왔지. 그래서 하느님한테 받은 활로 해를 차례로 쏘아 떨어뜨렸지. 해 아홉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세 발 달린 까마귀가 떨어지고 있더라. 그래 해 아홉을 다 떨어뜨리고 생각해보니까 해가 하나는 있어야겠거든. 원래 세상에 해가 하나가 있었잖아. 그래서 예는 해 하나는 살려놓고, 하늘로 돌아갔지.

그런데, 하느님이 예를 보낼 땐 언제고 이제는 화를 내네. 자기 아들 아홉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다고 말야. 그래서 예를 땅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어.

할 수 없이 항아와 땅으로 내려와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살기가 참 힘들거든.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예가 안 되었던지, 불사의 약을 구해오겠다고 여행을 가.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서왕모를 만나게 됐어.

서왕모는 예가 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 좋은 일 하다가 벌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예한테 불사의 약 두 알을 줘. 예는 기뻐서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지. 집에 왔더니 항아가 안 보이는 거야. 잠시 일을 나갔나 봐. 그래서 예는 언제 이 약을

먹으면 좋을지 동네 어른한테 물어보려고 향아한테 쪽지를 남기고 나갔어.

예가 나가고 금방 향아가 왔어. 보니까 탁자 위에 금빛 실로 짠 주머니와 편지가 있거든. 편지를 읽고 얼른 약을 먹고 싶었지만 예를 기다리기로 했어.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을 기다려도 안 와. 그래 닷새째 되는 날, 더 기다리지를 못하고, 주머니를 열고 맡았어. 한 알만 먹었어야 하는데 욕심이 생겨서 두 알을 다 먹었어. 그랬더니 향아의 몸이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향아는 그동안 자기가 별을 받고 있었다는 생각이 나서 우선 달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어. 그런데 달에 갔더니 있는 거라고는 도끼로 찍어도 넘어지지 않고 상처가 아무는 계수나무 한 그루와 불사의 약을 찡고 있는 토끼 한 마리가 전부야.

이제나 저제나 남편을 기다리던 향아는 점점 지치고,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으로 향아의 몸이 점점 쪼그라들게 되었어. 계속 쪼그라들더니 등이 울퉁불퉁한 두꺼비가 되고 말았어. 그때부터 달에 두꺼비가 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야.



참고 : 나무이름 유래

많고 많은 나무들은 제각기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나무의 외형, 쓰임새, 수피, 잎, 꽃, 열매, 가지 등으로 나누어 지금의 이름이 붙게 된 연유를 알아보자. 나무이름의 유래를 알게 되면 나무의 특성과 이름을 쉽게 기억될 수가 있을 것이다.

나무의 모양에서 유래된 이름

나뭇가지가 둘러나기를 하고 직각으로 퍼져 층을 이루며 자라는 층층나무, 가지를 잘라 뽕죽한 것으로 밀어보면 국수처럼 하얗고 긴 속이 나오고 껍질도 속도 길게 늘어져서 국수를 연상시키는 국수나무, 가지가 꼬불꼬불하여 용트림을 하는 용머들, 싸리가 아니나 광대처럼 싸리 흉내를 내는 광대싸리, 나무가 누워있다는 뜻으로는 눈жат나무, 눈향나무, 눈측백나무가 있다.

나무의 쓰임새에서 유래된 이름

나뭇가지가 마주나 있어서 고기잡이 도구 작살을 만드는데 쓰였던 작살나무, 옷을 만들기에 적합한 윤노리나무, 조리를 만드는데 사용한 조릿대, 키나 고리작을 만드는데 쓰임 키버들과 고리버들, 사위가 짐을 질 때 힘을 덜 수 있도록 연약한 줄기를 가진 사위질빵, 5리 10리마다 이정표로 심었다는 오리나무, 옷칠에 쓰이는 옷나무,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무환자나무, 가지가 낭창낭창하여 말채적으로 쓰였다는 말채나무 등이 있다.

잎의 특징에서 유래된 이름

사철 푸르다는 사철나무, 단풍이 붉게 든다하여 붉나무, 밤에는 복엽으로 붙은 작은 잎이 서로 닫히는 모양이 잠자는 귀신같다하여 자귀나무, 박쥐가 날개를 폈을 때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 박쥐나무, 고추잎을 닮은 고추나무, 잎이 갈라지는 모양이 손가락이 8개 달린 팔손이 같은 팔손이, 작은 깃잎모양을 한 좁개잎나무, 침엽이 좌우로 줄처럼 달린 모양이 한자의 아닐비자(非)를 닮았다 하여 비자나무, 잎자루가 길어 약한 바람에도 잎을 벌벌 떠는 사시나무, 싹이 나오는 모양이 말의 이빨처럼 튼튼하게 생겼다하여 마아목(馬牙木)이 변한 마가목 등이 있다.

수피의 형태에서 유래된 이름

피부병의 일종인 버즘이 핀 것처럼 생겼다하여 버즘나무, 검은 소나무라는 뜻의 흑송이 검술을 거처 곰술, 은빛 백양이란 뜻의 은백양나무, 줄기에 화살날개모양의 코르크질 날개가 달리는 화살나무, 두꺼운 수피 때문에 골이 파진다 하여 골참나무로 부르다가 변한 골참나무가 있다.

꽃 모양이나 특징에서 유래된 이름

이팝나무는 꽃이 만개할 때는 흰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마치 쌀밥을 고봉으로 담아 놓은 것 같은 모양이다. 조선시대에 쌀밥을 먹기 위하여 이씨의 밥을 먹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밥나무가 변하여 이팝나무, 툄럽과 비슷한 꽃이 달리는 툄럽나무, 연꽃모양의 꽃이 피는 나무란 뜻으로 목련, 꽃 모양이 병과 같다고 이름 붙어진 병꽃나무, 오랫동안 무진장 길게 핀다는 무궁화, 하얀꽃이 부처님 머리 같다하여 불두화, 새하얗게 꽃을 핀 모양을 밤에 보면 빛을 발하는 것 같다는 야광나무 등이 있다.

열매의 특징에서 유래된 이름

열매가 쥐똥 같다는 쥐똥나무, 산 속의 큰 나무에 딸기 모양의 열매가 달리는 산딸나무, 스님의 머리를 닮았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중대가리나무, 먹기만 하면 요강이 뒤집어질 정도로 정력이 세어진다는 복분자딸기가 있다. 열매가 아기배 모양이라서 아기배나무가 변한 아그배나무, 열매가 말밭굽 모양을 한다는 말밭도리, 참외모양의 열매가 달린다고 하여 목과(木瓜)나무가 변한 모과나무, 까마귀가 배기에 적당한 작은 배개모양을 한 까마귀배개, 열매가 장구모양을 한다하여 장구밥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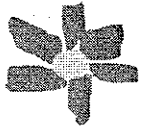
냄새나 맛에서 유래된 이름

잎이나 가지를 꺾으면 생강냄새가 나는 생강나무, 잎에서 역한 누린내가 나는 누리장나무, 지독한 쓴맛이 나는 소태나무, 나무에서 향내가 나는 향나무, 다섯 가지 맛이 섞여있다는 의미의 오미자, 열매가 달다는 의미의 다래, 향기가 백 리에 이른다는 백리향, 열매가 겨우 내내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액체를 분비하여 각종 파리나 곤충 떼가 날아와 지지분하라는 똥나무가 변한 돈나무 등이 있다.

생태나 기타 특성에 의해 유래된 이름

겨우 살아간다는 뜻, 또는 겨울을 상륙으로 나무로 겨울살이가 변한 겨우살이, 겨울에도 잘 참고 견딘다는 뜻의 인동, 주로 개울가에 자란다는 갯버들, 닭의 덩굴이란 의미의 닭쟁이덩굴, 태우고 나면 황색의 재가 남는다는 노린재나무, 열매를 팽충의 탄환으로 사용할 때 날아가는 소리가 '팽'한다하여 팽나무, 잎이 두꺼워 불 속에 던져 넣으면 '팡팡' 소리가 나는 팡팡나무, 수피를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를 내는 자작나무, 분지르면 '땡강'하고 분질러지는 땡강나무 등이 있다.

농이와 함께 하는 생태



흙이와 함께 하는 생태



흙을 통한 놀이

도시에서 흙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회색빛의 콘크리트와 검은 아스팔트에 익숙해져 가는 아이들의 그림들에서 더더욱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점점 땅을 만나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흙은 식물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모든 생명체가 죽은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 무기물로 전환되어 다시 식물의 영양분이 되는 순환의 중요한 장소이다. 그렇기에 땅 속은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풍부한 매력을 갖춘 곳이다. 식물과 곤충, 새가 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기에도 필수적인 곳이다. 땅속에는 식물의 뿌리가 영양분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많은 미생물과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아이들이 흙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땅과 친해지는 놀이는 흙을 파거나, 흙의 냄새를 맡거나, 색을 보거나, 경사면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맨발로 흙 위를 걸어 흙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끼거나, 흙에 누워봄으로 지구의 소중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을 하는 등 놀이의 방법은 다양하다.

[흙 위를 걸어보기(맨발로)]

흙의 따뜻함과 차가움 느끼기/흙의 부드러움과 거침

장소 : 바닷가 모래밭/논/밭/공원/개울/흙 길/운동장 등

[흙의 감촉 느껴보기]

흙 위에 누워보기 - 흙의 입장이 되어보기

흙 냄새 맡기

흙 태워보기 - 모래/점토/부엽토/논밭의 검은 흙 비교

흙 색 관찰하기

[그리고.....]

그림 그리기

[땅 따먹기]

우리 전래놀이 중에는 땅을 바탕으로 한 놀이들이 많다. 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에서 농민들에게 땅은 곧 생산을 상징했다. 더 넓은 땅은 더 많은 곡식과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이 땅따먹기놀이를 하면서 흙에 친숙해지고 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봉건적 토지 제도 아래서 농민의 농토는 아주 적거나 아예 없었다. 그들이 보다 넓은 땅, 보다 넓은 삶의 터전을 원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땅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

중에 갖게 되었던 것이다. 농민들의 바람과 진취적인 욕구가 다른 어떤 놀이보다 질게 배인 땅따먹기 놀이. 농민들의 애환과 간절한 바람, 건강한 정신이 깃든 놀이라 하겠다. 땅따먹기 놀이는 그러한 농민들의 바람이 은연중에 반영된 놀이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땅을 넓혀 가면 된다. 한 번에 땅을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리면 자칫 패할 수 있다.

※튀기기에 적합한 작은 돌(말)을 준비한다.

※원이나 사각형 등 일정한 공간에 놀이판을 그린다.

※각자 한 모퉁이를 자기 집으로 정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재어 집을 그린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순서를 정한다.

※이긴 사람은 자기 말을 세 번 튕겨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세 번 튕기는 동안 말이 지난 선 안이 자기 땅이 된다. 세 번 만에 집에 돌아오면 다시 자기집 땅 끝에서 한 뺨을 재어 땅을 넓힐 수 있다. 세 번 안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놀이판 바깥으로 말이 튕겨 나가면 무효가 된다. 남의 땅에 튕겨 들어가도 안 된다. 놀이판이 메워졌을 때 땅을 가장 많이 따먹은 사람이 이긴다.

8차 놀이

38선등 선 그어놓고 놀이하기

모래에 물들여서 그림 그리기

모래산 만들기

두꺼비집 만들기



물을 통한 놀이

넷물의 냄새 맡기

계곡에서 물소리 듣기

수로 만들기

아침이슬 만나보기



비를 통한 놀이

우산을 통해 소리와 진동 느끼기

빈 깡통에 비 받는 소리 들어보기

빗물의 흐름 보기

무지개 관찰하기

비가 오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생물 찾아보기(달팽이, 지렁이)

빗물에 맺힌 거미줄 관찰하기

빗물이 맺힌 모든 식물 관찰하기 (보석 찾아보기)



꽃을 통한 놀이

꽃 냄새 맡기

먹는 식물 찾아내기(팽이밥, 짙레꽃, 아까시꽃, 꿀덩쿨...)

민들레(박주가리) 씨앗 날리기

식물의 냄새 맡아보기(산초나무, 생강나무, 오이풀...)

풀로 염색해보기(애기똥풀, 쭉, 봉숭아....)



나무를 통한 놀이

눈감고 나무 찾기

나무 냄새 맡기

나무소리듣기

나뭇잎 구별하기 / 나뭇잎 사진 찍기(구멍난 나뭇잎으로)

나무의 모습 흉내 내기

나무 안아주기

나무 감촉 느껴보기



불을 통한 놀이

재료에 따른 냄새맡기

타는 소리 들어보기

구워먹기 (밤터지는 소리도 듣고, 군고구마 구어 먹기...)

재를 이용해 그림 그리기



바람을 통한 놀이

민들레 홀씨 날려보기

나뭇잎의 흔들림 관찰해보기

바람의 강도에 따른 소리 들어보기

연 날리기



풀을 이용한 놀이

풀싸움

결초보은

풀잎이나 나뭇잎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풀잎이나 나뭇잎 따서 모으기

감잎차 만들기

나뭇잎의 특징을 살려 자세히 그림 그리기

나뭇잎 배 띄우기

가위바위보로 아카시아 잎따기

풀잎 피리 불기(독새풀, 사철나무, 분꽃, 조릿대, 민들레 즐기기)

잎 멀리 날리기

강아지 풀이나 수크령으로 꼬리 나오기, 강아지 풀로 간지럼 태우기

옥수수 잎등을 이용해서 각시 만들기

여치나 매미집 짓기

솔잎이나 팽이밥, 머느리 밀싯개(싱건지) 등 풀잎 따서 씹어보기

낙엽이나 풀 속에 몸을 묻고 하늘 보기

가장 큰 잎과 가장 작은 잎 찾기

바랭이로 양산 만들기

쇠비름 줄기로 뼈에로 만들기

갈퀴덩쿨로 훈장 만들기, 토끼풀로 훈장 만들기, 꼭두서니로 훈장 만들기,

뽕 소리내기(분꽃 잎, 콩잎, 도라지 꽃 봉오리, 등)



꽃을 이용한 놀이

꿀 꽃 따먹기

애기똥풀로 매니큐어 칠하기

감꽃으로 목걸이 만들기

접시꽃으로 인디언 놀이, 접시꽃을 얼굴에 붙이고 먼저 떨어지게 하는 놀이

민들레나 토끼풀로 꽃시계, 팔찌, 목걸이, 반지 만들기

진달래 꽃으로 화전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분꽃으로 피리 불기



얼매나 씨앗, 꽃을 이용한 놀이

민들레 홀씨 붙어서 날리기

꿀 꽃, 사루비아 꽃 속의 꿀 따먹기

밤 따기

솔방울 싸움

앵두 먹고 씨 멀리 뱉기



넙쿨을 이용한 놀이

넙쿨 줄기로 파마하기(아카시아, 호박)

쥬 넙쿨로 왕관 만들기, 쥬 넙쿨을 이용한 그네타기

청미래 넙쿨로 팔찌 만들기

다래, 머루, 으름, 산딸기, 오디 따먹기,

호박 넙쿨로 귀걸이 목걸이 만들기



가시풀 이용한 놀이

아까시, 장미가시를 코,이마에 붙여 코뿔소 놀이

가시를 얼굴에 붙이고 누가 오랫동안 안 떨어뜨리나 시합하기



돌맹이를 이용한 놀이

돌맹이로 탐 쌍기

돌맹이의 특징 살려 모양 만들기, 이름 붙이기

돌맹이의 결정 크기 관찰하고 비교하기

돌맹이에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모양의 돌 모으기

장검다리 놀이

공기돌(코끼리공기) 놀이

사방치기

넓은 들이나 한길에 여러 모양의 그림(밭)을 그려 놓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돌을 차며 가거나 또는 주워 던지며 노는 어린이 놀이다.

중부 이남 지방에서는 돌차기, 평안도에서는 망치기, 함경도에서는 마우차기라고 부르며, 서울에서는 오랫말 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들은 놀이에 쓰는 돌을 망, 마우, 또는 말이라고 하는 데서 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오랫말의 '오래'는 뜻을 잘 알 수 없으나, "한 이웃에서 되어 사는 구역 안"의 의미로 짐작된다. 사방치기를 할 때 바닥에 그린 그림을 '밭'이라고 하는데, 밭은 이웃과 함께 일하는 농촌의 생활구역인 것이다.

놀이방법

놀이판(그려 놓은 모양)에 따라 노는 방법이 다양하며, 두 세 사람이 하거나 편을 갈라 한다. 놀이할 어린이 각 자가 편편하고 차기가 좋은 네모꼴 모양의 돌을 마련한다.

준비한 돌을 가지고 그려 놓은 모양에 따라 한 칸 선을 밟지 않고 양감질로 차가는 놀이로 놀이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양감질로 뛰어 다녀야 한다. 던졌을 때나 찬 돌이 그어 놓은 선에 닿게 되면 실격이 되고, 또 선을 밟아도 안 된다. 그러므로 칸 속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돌을 던져야 한다.

비석치기



나들이 길에서 할 수 있는 놀이

[눈가리개 애벌레]

눈을 가리고 애벌레 모양처럼 뒤를 이어 앉는다. 애벌레의 여러 가지 발을 생각하도록 하여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야 함을 알도록 한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앞사람에게 의지하고 뒷사람에게 힘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눈가리개 게임은 아동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활동만이 난무하는 현대에 있어서 신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조심성, 협동성을 키워줄 수 있다. 목표지점까지 도달하면 무언가 보상이 되는 것으로 강화를 줄 수 있다.

[몇가지 색일까?]

주위를 둘러보고 몇 가지 색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너무 오랜 시간을 주기보다는 3분 정도로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벌레의 보호색이라든지 주변 동물의 색을 통해서 보색과 비슷한 색에 대한 개념을 심어 줄 수 있다. 또한 관찰력, 색 감각, 집중력 등을 길러 줄 수 있다.

[보호색 놀이]

곤충의 보호색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신이 곤충이나 벌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 자신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아가 보게 한다. 이때 옷 색깔과 비슷한 곳을 찾아 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호색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몇 가지 소리일까?(소리지도 만들기)]

숲이나 냇가, 도심 한가운데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는 놀이이다. 한곳에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들어보자. 낙엽 위나 돛자리 위에 누워도 좋다. 어떤 소리가 들리나? 잘 들어보자. 주변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 남에 대한 배려,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시끌벅적한 도심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일수록,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것들에도 다양한 생활이 있고 그 속에도 삶이 있다는 생명에 대한 존중감, 청음력, 호기심, 집중력 등을 키워줄 수 있다.

[질경이 풀싸움]

질경이는 잘 끊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질경이 줄기의 섬유질 때문인데 이를 이용해서 풀싸움을 해보자. 질경이 줄기를 따자. 이때 어느 것이 질긴 것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어느 것이 잘 끊어지지 않고 질긴 것인지 말해 주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찾아보도록 해보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관찰력도 길러주고, 새로 돌아난 순과 이전에 돌아나서 섬유질이 강하게 영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준다. 그리고 색도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질경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풀들을 이용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비교 도표를 만들어 보면 아이들에게 비교하는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다.

[호드기 불기]

겨우내 추위로 집안에만 뽕뽕 숨어 있다가 따스한 봄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봄을 맞는다. 파릇파릇 올라온 봄나물을 캐거나, 새잎을 하나 뜯어 풀피리를 불며.. 호드기 불기는 봄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날 무렵 물오른 버드나무(실버들), 미루나무, 산오리나무 가지 등을 가지고 호드기(피리)를 만들어 노는 놀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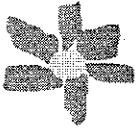
나뭇가지 대신에 풀잎을 뜯어 불기도 한다. 요즘은 풀피리를 불 줄 아는 어린이도 별로 없고 주변에 물오른 나뭇가지를 보기도 어려워 농촌에서나 간간히 볼 수 있는 놀이이다.

놀이방법

호드기를 누가 더 오래, 멋지게 불 수 있나로 승패를 가누는 놀이로 놀이 자체보다는 봄날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호드기를 만드는 것에 더 재미가 있다.

- ※물오른 나뭇가지를 아이들 새끼 손가락만하게 꺾어 위에서부터 힘주어 조심스럽게 비틀어 내려간다.
- ※비튼 가지를 칼집을 내어 자르고 아래서 위로 속심을 빼낸다.
- ※속이 빈 껍질을 6-8cm 정도 길이로 잘라 한쪽 끝의 걸 꺾질을 2mm 정도 벗겨 내고 파란색이 도는 속 껍질만 남긴다.
- ※속 껍질이 드러난 곳을 납작하게 눌러서 입에 대고 불어 본다.
- ※호드기의 길이가 길 수록 저음이 나고 짧을 수록 밝은 소리가 난다. 또 굵을 수록 저음이 나고 가늘 수록 고음이 난다.
- ※호드기 만들기가 다 끝나면 여럿이 모여 누가 더 오래, 멋지게(흥겹게)소리를 내는지 겨루워 본다.

노래로 배우는 생태



노래로 배우는 생태

나마리 동동
 파리 동동
 여기 저기 앉아라
 똥물 먹고 죽을라

나마리 동동
 파리 동동
 여기 저기 앉아라
 똥물 먹고 죽을라

*나마리 : 잠자리의 사투리. 남자리 자마리라고도 한다.

*잠자리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빙빙 돌리며 부르다가 잠자리의 꼬리가 날개를 잡는다.



<<나무노래>>

가자가지 감나무 오자오자 옷나무
 갓난아기 자잘나무 거짓말 못해참나무
 땡의사촌 닥나무 낮에봐도 밤나무
 너하고나하고 살구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동지선달 사시나무 따끔따금 가시나무
 바람술술 소나무 방귀뀌는 오동나무
 아흔지나 백양나무 앵도라쳐 앵도나무
 칼로질러 피나무 엮어졌다 엮나무
 자빠졌다 잣나무 서울가는 배나무

자자 자자 ()나무
 떡해떡자 ()나무
 달가운데 (계수)나무
 밀구멍에 ()나무
 죽었네 ()나무
 살았네 ()나무
 불밝히자 ()나무
 속비고 ()나무
 빠르구나 ()나무
 깔고 앉아 ()나무

그렇다고 ()나무

새는 새는 남게 자고
쥐는 쥐는 궁계 자고
우리같은 아이들은
엄마품에 잠을 자고
어제왔던 새각씨는
신랑품에 잠을 자고
꼬꿀꼬꿀 꼬꿀 할때
영감품에 잠을 자고
납땀납땀 송애새끼
방구밑에 잠을자네

[풀각시 만들며]

풀격이 머리하고 가지격어 비녀꽃고
앞산에 핀 빨간꽃아 뒷산에핀 노란 꽃아
빨간 꽃은 치마 짓고 노란꽃은 저고리 짓고
게딱지로 솔을 걸고 짚레 꺾어 밥을하고
솔잎으로 국수 말아 풀각시를 절시키네
풀각시를 절시키면 망건을 쓴 새신랑이
꼭지꼭지 흔들면서 따개비로 술 마시네

물금 각시 무당아이야 기심각시 기생아이야
달래 각시 사당아이야 형곶 각시 문둥아이야
(물금->무릇 기심,달래->풀이름)

[풀각시 머리를 땡으며]

중의 머리 꺼칠꺼칠 각시머리 깡~깡
기름 발라 매끈매끈 침 칠해서 매끈매끈

[꼬리따기놀이]

저 달 봤나?
난도봤다
저 해봤나?
난도봤다
저 달봤나?
할머니 할머니 송아지 한 마리 주게
내사뭇쥐
후이(<-하면은 꼬리를 탄다)

[어깨동무하고놀며-줄줄이 앞사람을 따라가며 부르고 맨 앞사람이 풀이나 꽃,나뭇잎 따위를 주으면서 가면 뒤에 따라 오를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며 놀 때]

어깨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씨동무
어깨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씨동무

[나물이 잘 뽑히라고 부르는 노래]

쑥쑥 빠져라 쑥쑥 빠져라
네 발 밑에
들기름 참기름 발랐다

[말놀이]

까마귀는 날더라
날면 제비
제비는 울긋불긋
울긋불긋한 것은 독사
독사는 물더라
물면 범이지
범은 뛰더라
뛰면 벼룩 벼룩은 붉더라
붉으면 대추
대추는 달더라
달면 엷이지
엷은 불지
불으면 칩

[물고기를 잡아 풀로 아가리를 꿰거나 넝을 뛰거나 할 때, 강원도에서 돌을 쪼개면서]

아가리 딱딱 벌리라
열무꾸 김치 드간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듯이 부르는 노래]

앞산아 뒷산아
내 밥그릇 너 가져가고
너 밥그릇 내 가져가고
밥그릇,국그릇 바꾸~자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바라며]

흙탕물을 나가고 샘물은 들은나
퐁퐁솟는 샘물을 퐁퐁 올라오고
어질어질 흙탕물은 저리로 나가라
어제 왔는 새색시 물길러 나온다



<< 곤충, 새 등.....>>

[암수개구리가 서로 포개져 짝짓기 하는 것을 보고]

개골 개골 개골 개골 개골 개골
붙었다 붙었다 붙는다
개골 개골 응애 응애

[개똥벌레를 잡으며]

개똥벌레 페페 개똥벌레 페페
테테 불켜라 테테 불켜라
사또간다 길땀아라
개똥벌레 불켜라
개똥벌레 똥똥 개똥벌레 똥똥
테테 불켜라 테테 불켜라
그리 가면 덩고 이리오면 시원코
->수수께끼-붙은 불인데 연기도 안나고 뜨겁지도 안은불은? 반딧불

[잠자리를 잡으며]

잠잘아 잠잘아 낮으면 살고 날면 죽고
천리밖에 가면 너 목숨이 푹 떨어진다
치락차락 붙어라 내손끝에 붙어라
낮을 자리 앉거라 먼데가면 죽는다
손가락도 뱅뱅 너 눈알도 뱅뱅
낮을 뱅이 뽕뽕 철뱅이 뽕뽕
앉을자리 꽃자리 앉을자리 앉거라

[나비를 잡으며]

나비 나비 꽃나비 호랑나비 꽃나비
꽃밭에 앉거라
나비 나비 꽃나비 호랑나비 꽃나비
꽃밭에 앉거라

[풍뎅이를 잡아 머리를 잡고 목을 비틀고 다리를 뎀후 그다음에 등이 땅바닥에 닿게
뒤집어놓고 땅바닥을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

풍뎅아 풍뎅아 뽕뽕 돌아라
영감은 장구치고 할멈은 춤추고
풍뎅아 풍뎅아 뽕뽕 돌아라
너어머니 장애 갔다 떡사가지고 온다
풍뎅아 풍뎅아 싹싹 쓸어라

원님 온다 마당쓸어라

[매미를 잡을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피며 부르거나 매미를 가지고 놀때]

매미야 매미야

주월재열 내려와라 (주월재열:줄줄이)

소똥범벅 해줄게

개똥범벅 해줄게

매미야 매미야

너랑나랑 갈라떡게

주월재열 내려와라

박~박 굵어먹고

짹~짹 올라가라

사마귀 닳되 콩닷되 열두줄로 떠져라

사마귀 닳되 콩닷되 요기조기 읊아라

[솔개나 황새를 놀리며]

훤 푹 뚜르르르르

병알아 병알아 꼭꼭 숨어라

하늘에 뜬 솔개 너잡으러 온다

솔개미 떴다 꼭꼭 숨어라 어미날개 밑에 꼭꼭 숨어라

황새야 덕새야 너 모가지는 짧고 내 모가지는 길고

너 모가지는 닳발 내 모가지는 열발

너 뎡기는 똥 묻었고 내 뎡기는 곱고

[달팽이에게 빨내라며 부르는 노래]

하마 하마 춤춰라

요빨내고 춤춰라

조빨내고 춤춰라

염소빨내고 춤춰라

황소빨내고 춤춰라

암소빨내고 춤춰라

->어떠한 물리적 힘도 쓰지 않고 노래만 불러도 달팽이가 빨을내밀고 뜰레뜰레한다

[메뚜기를 잡으려고 앉기를 바라며]

칠칠이 앉거라 (칠칠이:메뚜기 날아가는 소리)

국끓여 밥해 줄게

칠칠이 앉거라

국끓여 밥해 줄게

칠칠이 앉거라

국끓여 밥해 줄게

[눈에 티가 들어갔을때나 이가 빠졌을때]

-까치야 까치야

니새끼 응글에 빠졌다

조리로 건져라

밥주그리로 건져라

-까치야 까치야

헌 이 가주가고

새 이 도고

까치야 까치야

헌 이 가주가고

새 이 도고

->까치는 신성한 새로 생각. 무언가 바랄때는 늘 앞에 나옴

[가재를 잡으며]

가재야 비온다

키 덮어쓰고 나오너라

가재야 비온다

장판지 덮어라

->가재의 뒷모습이 키를 닮았다

[방아깨비 뒷다리를 잡고 방아짚는 흉내내며]

아직방아 찌라

저녁방아 찌라

꺼떡꺼떡 잘 짚는다

아직방아 찌라

저녁방아 찌라

꺼떡꺼떡 잘 짚는다

아직방아 찌라

저녁방아 찌라

꺼떡꺼떡 잘 짚는다

[메뚜기 뒷다리를 쥐고]

아침방아 짚어라

저녁방아 짚어라

물방아 짚어라

떡방아 짚어라

콩방아 짚어라

꼭꼭 짚어라

밥해먹게 짚어라
앞집 방아 뜰각
뒷집 방아 딸각
꺼떡 꺼떡 짚는다
->다리 부러지지 않게 살살

게야 게야 밥해라 손님 왔다 밥해라
등게야 등게야 손님왔다 밥해라
->게가 내는 거품이 꼭 가마솥에 밥이 끓어오를때 모습



<<새소리를 흉내내며 부르는 노래>>

떡 해떡자 부형
양식없다 보항
뛰다하지 부형
언제 갓을래 보항
가을갓지 부형
어찌 갓을래 보항
걱정마라 부형
내일모래 방이다
술 씻어놓고 기다려라

결결 푸드득 장서방 자네집은 어딘고?
이등저등넘어서 솔밭 밀이 내 집일일세
결결 푸드득 장서방 새끼들은 많은데 무얼먹고 사는고?
눈곱만한 조밥에 코딱지 쌀밥에
아들낳고 딸낳고 그럭저럭 사네
결결 푸드득 장서방 자네 색시는 어딴고?
이등 저등 넘다가 총쟁이한테 잡혀갔네
먹을 것을 많아도 총쟁이 뺨에 못살겠네
->결결 푸드득:핑핑

비리고 배리고
건넌마을 김부자네
쌀 얻으러 갔더니
콩 한쪽 안주더라
에이 비리고 배리고 뉘

종달아 종달아 너 어디 갔었나?

산넘어 갔었다
뒤편에 갔었나?
새끼치러 갔었다
몇 마리 쳤나?
다섯 마리 쳤다
나 하나 주렴
왜 널 주니?

고운 것도 내새끼 미운 것도 내새끼
쪼르르 쪼쪼 쪼르르 쪼 쪼르르 쪼 쪼르르 쪼 쪼르르



<<바라며 부르는 노래>>

개미야 개미야
빨간불 켜라
파란불 켜라
개미야 개미야
빨간불 켜라
파란불 켜라

->개미 몇 마리를 잡아 도라 꽃속에 넣고 흔들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흰 보랏빛 꽃이 붉어 바뀐다.
개미가 내뿜는 산이 꽃잎에 닿아 생기는 현상

수박냄새나라 참외냄새 나라
수박냄새나라 참외냄새 나라
수박냄새나라 참외냄새 나라

->오이풀을 한줄기 꺾어 팔뚝이나 손바닥에 두들기며

페페페
개한테 웃으르고
내한테 웃으르지 마라
페페페
개한테 웃으르고
내한테 웃으르지 마라

->산에 오르다 웃나무를 만나면 자기한테 웃으르지 말라고 부르는 노래

쭈쭈 따져라 쭈쭈 따져라

네 발밑에
들기름 참기름 발랐다

->나물을 잘뺨히라 부르는 노래

웃입어라 웃입어라
비단때때 웃입어라
웃입어라 웃입어라
비단때때 웃입어라
웃입어라 웃입어라
비단때때 웃입어라

->나무를 너무많이 해서 벌거숭이 산이 되어버린 산을보고

양지빛이 나거라
조리빛이 나거라
양지빛이 나거라
조리빛이 나거라

->내리는 비가 그치길 바라며

흐튼 물을 나가고
샘물은 들은나
풍풍솟는 샘물은 풍풍 올라오고
흐튼물은 나가고
샘물은 들은나
샘물은 들오고
흐튼물은 나가라

->산에가서 목이 말라 샘을 따며 흙탕물이 맑아지기를 바라며

해야해야 나오너라
김치국에 밥말아줄게
장구치고 북치고
빨리빨리 나오너라
해야해야 나오너라
구름밖에 나오너라
앞뒤 문을 열어놓고
물떠먹고 나오너라
해야해야 나오너라
미역국에 밥말아먹고
벌거벗고 나오너라

->구름속에 해가 나오길 바라며

쟁아쟁아 별나라
햇별이 나서 우리가 뛰놀기 좋게
해야해야 어서빨리 나오너라

별일랑 저리가고 그들은 이리온나
우리야기 예쁜야기 쩡그리지 않게
->여름햇볕이 너무 뜨거울때

이슬이 동동 안개가 동동
참기름 짜자 들기름 짜자
->해엄치고 밖으로 나와 몸의 물이 마르기를 바라며

연기야 연기야
보리밥 먹는데 오지말고
이 밥 먹는데 가거라
->연기가 자기한테 오지말기 바라며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엄마 고운치마
열두가지 열롱진다
앞산에는 단풍들고
뒷산에도 단풍든다
이산저산 낭글모아
한강수에 배를태워
->내리는 비가 그치기를 바라며



다리세기

[쥐야 쥐야 어디에서 잤니]
쥐야 쥐야 어디에서 잤니
부엌에서 잤다
뒤통고 잤니
행주뒹고 잤다
뒹 배고 잤니
젓가락 배고 잤다
뒹가 깨물었니
고양이가 깨물었다
무슨 피가 났니
빨간피가 났다

<노래로 배우는 생태 지도사례 1>

노래로 배우는 생태

노한나

‘제 이름을 부르며 우는 새는?’

우리 반 5학년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꾀꼬리, 종다리, 소쩍새, 여러 가지가 나오더군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새는 아니지요.

‘한 글자야, 외자로 된 새 이름 몰라?’

한참 생각하더니 맞추더군요. 뭘까요? 바로 꿩입니다. 꿩이 ‘꿩꿩’하고 우는 소리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누구나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는 들어보셨나요?

꿩꿩 장서방 자네집이 어딘가
 이산저산 넘어서
 텃밭 속이 내집이다
 뭇 먹고 살았니
 멀구다래 따 먹다
 불알이 훌케 죽었다
 (강원 고성, 한국민요대전)

이 노래는 강원도 고성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 어디나 꿩 노래가 나와요. 대개 꿩에게 어디 사는지, 뭇 먹고 사는지 물어보는 형태로 되어 있지요. 꿩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니, 지금 사람들은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사람처럼 친근하게 생각하고 ‘어디서 사는지, 무얼 먹는지’ 자세히 보고, 그걸 노래로 부르면서 어려서부터 자연친화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것이지요.

초등학교 교과에는 가까운 생물을 관찰하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자연 수업을 이렇게 노래로 시작하면서 음악과 국어를 통합하거나 체험학습을 떠나면서 들떠 있는 아이들과 이런 노래를 배워본다면 지식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정서적 경험을 하게 해 주는 거겠어요? 이런 걸 ‘꿩 먹고 알 먹는다’라고 하나요?

저는 작년에 1학년 아이들과 이 노래를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어떤 새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참새! 까치! 오리! 닭!...”

시골 아이들이라 집 근처에서 많이 보고 기르는 새들을 줄줄이 이야기하더군요. 그중에서 참새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해서, 참새로 바뀌어서 서로 주고받으며 이렇게 불러 봤어요.

짹 짹 참새야
 어디에서 사니
 집근처에서 산다

무얼 먹고 사니
 나락 까먹고 산다
 누구하고 사니
 식구들하고 산다

아이들과 이 가사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참새는 전깃줄에서 산다는 아이도 있고, 참새가 먹는 건 사람들이 버린 음식쓰레기 아니냐고도 얘기하고, 참새도 아빠엄마가 있어요? 하는 질문도 하더군요. 노래 하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새를 친구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관찰하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지요. 여기에 참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 볼까요?

옛날에 참새하고 파리가 살았는데, 둘이는 사이가 너무나 안좋았어요. 이 얘기가 새들의 임금님 귀까지 들어가서 결국 둘이는 임금님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는데, 약삭빠른 파리가 더 먼저 가게 되었죠. 파리는 참새가 나쁜 새라고 이말저말을 늘어놓았죠.

“임금님, 참새는 사람들이 애써 지은 곡식을 냉큼냉큼 집어먹는 나쁜 새니까 엄하게 벌을 주세요. 저는 참새가 하는 그런 나쁜 짓을 말리고 다닌 것 뿐이에요.”

임금님이 들어보니까 파리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어요, 그래서 참새가 오자마자 호통을 쳤죠. 참새가 딱 눈치를 보니까 파리란 놈이 먼저 와서 자기를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분해서 막 파리 욕을 했어요.

“임금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곡식도 먹지만 해로운 벌레를 더 많이 잡아 먹어서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많이 좋아한답니다. 오히려 저 파리란 놈은 사람들이 애써서 곡식을 팥아 밥을 해놓으면 거기 더러운 발로 눌러앉아서 아예 밥을 못먹게 하는 나쁜 놈이거든요”

임금님이 이 말을 들으니 이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벌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파리는 어떻게 하면 벌을 피할까 싹싹 빌다가 지금도 그렇게 빌고 있는 모양이 됐구요, 참새는 종아리를 맞고 아파서는 팔짝팔짝 뛰다가 지금처럼 걸을 때 늘 폴짝거리게 되었다는군요.

이야기를 통해서 참새에 관한 여러 가지를 더 알 수가 있지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농사짓는 것과 참새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본다면 더 생활과 가까운 얘기가 되겠지요.

참새 노래를 불러보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참새가 생긴 모양이 다른 새와는 어떻게 다른지 찾아 볼 수 있지요? 참새는 꼬리가 짧고 통통하며 14cm 정도 작은 텃새인데, 같은 텃새지만 아주 다른 까치하고 견주어서 이야기해보고 노래로 불러 봅시다.

각각 까치야
 어디에서 사니
 나무 위에서 산다
 무얼 먹고 사니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지
 누구하고 사니
 새끼하고 살지

그리고 나서는 새를 한 번 그려볼까요? 참새를 아이들과 자세히 관찰해보면, 단순히 갈색 깃털만 있는 게 아니라 부리색, 뺨 색, 깃털에는 줄무늬까지 있다는 알게 될 거예요. 또 앞이나 옆 모양 말고 전깃줄에 앉아 있는 참새를 밑에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참새가 나는 모양을 선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소리로 표현한다면요? 걷는 모양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학년은 이정도까지 할 수 있지만, 고학년은 좀더 나아가서 참새가 생긴 부리, 꼬리, 몸의 모양, 색깔은 왜 그럴까, 일년 생활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해 볼수 있어요. 참새는 언제 알을 낳을까요? 며칠이면 부화할까요? 왜 참새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다른 나라에도 참새가 있을까요? 고학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직접 관찰하고 또 도감을 찾아보고 나서 다시 노래로 정리를 해 보면 재미있어요.

참참 참새야
어디서 사니
어디나 산다
무얼 먹고 사니
동물식물 다먹는다
입은 왜 그렇게 생겼니
나락까먹느라 그렇지
어디가 제일 예쁘니
하얀 뺨이 제일이지
알은 언제 낳니
봄부터 가을까지 낳지
몇 개나 낳니
네 개에서 여덟 개까지 낳지
누구랑 사니
떼지어 살지
...

하다보면 밀도 끝도 없이 긴 노래가 만들어져요. 다른 새를 가지고 해도 그렇죠. 아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서 보이는 사물에 대해 관심이 많고 놀면서 어른보다 더 많이 보고 느끼기 때문에 곧잘 놀라게 됩니다. 전래 동요로 시작하면 이렇게 놀이와 공부가 따로 나뉘지 않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환경현장교육지원 사업 최종 보고서

생태 감수성을 통한 자연놀이 체험 프로그램 사업

“생태 자연놀이를 통한 자유로운 영혼의 아이들로...”

1. 사업 명 :

"생태 감수성을 통한 자연놀이 체험 프로그램 "

“생태 자연놀이를 통한 자유로운 영혼의 아이들로...”

2. 사업목적 :

환경교육은 생태 감수성 회복으로

사람들은 언어로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생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태에게는 언어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태가 필요하고, 생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부터는 생태와 사람 삶이 따로, 따로 가 아닌 우리가 생태의 일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들

Michael Pollan은 “인간이 사물을 총괄하는 “인식틀”내에서 인간 존재의 현재 위치를 이해
하려는 사람들에게 야생으로 가는 관광보다, 정원으로서의 여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태 감수성회복 자연놀이 교사육성 사업

미국의 환경주위자인 레이첼 카슨은 “아는 것은 느끼는 것의 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또
한 다나카 쇼조는 “강을 돌보는 일에서 문제는 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습니
다.

3. 사업 의의

생태 감수성을 통한 자연놀이 체험을 통해 보육교사&방과후
교사들이 충분한 체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는 생태 감수성을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어린이집&방과후의 한 해의 흐름을 생태 놀이 통해 체득 느낄 수 있었다.

어린이집&방과후의 자연놀이를 통해 생태적 교육철학으로 잡는데
많은 영향과 도움을 주었다.

4. 사업 개요

사업 1.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안내자 교육사업(생태적 자연놀이중심)

사업 2. 활동자료 발간사업(자료집, 교재교구)

사업 3.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들살이” 사업

5. 참가자 명단 :

번호	별명	이름	어린이집	연락처	이메일
1	달팽이	박정화	산들		
2	도깨비	김미정	재미난		
3	동산	김원종	즐거운		
4	둘리엄마	김경태	날으는		
5	새봄	이명숙	꿈틀꿈틀		
6	모자	박영혜	열리는		
7	맨발	강오영화	재미난		
8	코알라	윤우경	열리는		
9	들꽃	이미애	어깨동무		
10	역새풀	김선희	산학교		
11	개구리	윤일순	세발까마귀		
12	코뿔소	이말순	산		
13	하니	김경옥	소리나는		

6. 사업 내용 :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안내자 교육사업 (생태적 자연놀이중심)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안내자 교사교육
(생태 및 일반적 이론을 학습하고 생태적 놀이를 풀어낼 수 있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기본에서 집중, 심화 교육까지 진행)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활동가 기초교육활동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수강생이 강사가 되어 일반 초등 방과후 교사들을 안내하는 기초 교사 교육활동)

○ 활동자료 발간사업(자료집, 교재교구)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소개하는 자료집 발간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사례집 발간 및 자연놀이를 지원 할 수 있는 교재교구제작
(자료집 및 사례집은 초등단체 및 방과후학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보육교사회, 전교조, 학부모 연대 등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배포한다)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들살이” 사업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안내자가 주도하는 “생태적 자연놀이 들살이”
(쉽고, 재미있게, 생활속에서)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교사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 방과후 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아이들과 함께 2박3일 초등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들살이”교육을 진행한다.

6. 사업 기간 :

○ 2003년 3월 ~ 2003년 12월 13일

7. 일정별 세부추진 보고

일 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3월 - 4월 홍보 준비기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교사교육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등등) · 참여 초등교사· 방과후교사모집 · 프로그램 확정 및 교육준비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자료 조사 및 취합 · 프로그램 구성 확정 · 언론·온라인 관련단체 등을 통한 홍보 · 강사 및 자원섭외 · 참가자 모집(초등교사· 방과후교사, 일반학부모)
5월 - 6월 기본 교육 진행기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교사교육” 시작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교사교육” 5월 26일(월) 매주 월 7시~ 장소 : 여성프라자 서울, 경기 교육으로 8회 실시후 지방(대전, 대구, 부산)3지역에서 4회 실시한다
7월 - 8월 생태 자연놀이 들살이 준비기	· “생태적 자연놀이 안내자 집중 교육” · “생태 자연놀이 들살이” 사업 -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작	· “생태적 자연놀이 안내자 집중교육” 7월 24(목) - 26(토) 2박 3일간 천안 국립수련원에서 실시한다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들살이” 교재 제작
9월 - 10월 “생태 자연놀이 들살이”	· 생태 자연 놀이 들살이 진행 (서울경인, 3곳, 지방 3곳) · 안내자 수강생이 강사가 되어 “생태 자연놀이 기초 교사 교육” 진행	· 생태 감수성을 통한 자연놀이 들살이 지원을 한다. 일정 : 7월 14일(월) -16일(수) 2박 3일 · “생태 자연놀이 기초 교사 교육“ 10월 9일(목) 개강 장소 : 여성프라자 서울, 경기 교육으로 4회 실시후 지방(대전, 대구, 부산)3지역에서 1회 실시한다
11월 - 12월 “사업평가및 자료제작 배포기”	· “생태 감수성을 통한 자연놀이” 사업 평가회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자료집 배포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 평가회” 세미나 형식의 평가회 12월 13일(토) 여성 프라자 회의실에서 진행 · 자료집을 기획, 편집하여 제작 배포한다.

I.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안내서 교육사업(생태적 자연놀이 중심)

일시 : 2003년 5월 26일(월) PM 7시 총 8회

장소 : 여성프라자 3층(별난 놀이터)

* 서울, 경기지역

- 1) 5월 26일(월) “애들아 이야기 하자”
조봉호 선생님(전 튼튼 어린이집 교사대표, 현장지원 전문가)
- 2) 5월 31일(토, 10시-14시) “성미산 나들이와 작은산 살리기 운동이 가지는 의미”
김 경태 선생님(전 날으는어린이집교사대표, 현장지원전문가)
- 3) 6월 2일(월)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이야기 문화”
박 현숙 선생님(느티나무 어린이집 원장, 현장지원전문가)
- 4) 6월 7일(토)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자연놀이 체험 나들이(성주산)”
김 선희 선생님(산 어린이집, 생태놀이 안내자)
- 5) 6월 9일(월)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놀이와 노래”
이 홍수 선생님(공동육아 놀이와 노래모듬 안내자)
- 6) 6월 16일(월)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놀잇감 만들기”
김 미애 선생님(지역활동 안내자, 현장지원전문가)
- 7) 7월 5일(월) “생태 감수성 회복을 위한 자연놀이 체험 나들이(아차산)”
이 말순 선생님(공동육아 생태 나들이 안내자)
- 8) 7월 12일(토) “생태 감수성 회복을 위한 자연놀이 체험 나들이(청계산)”
심 상옥 선생님(공동육아 생태 나들이 안내자)

* 지방(대전, 대구, 부산)

※ 대전

장소 : 친구랑 어린이집(042-824-0065)

- 1) 6월 7일(토, 오후 4시 - 6시) “애들아 이야기 하자”
조봉호 선생님(전 튼튼 어린이집 교사대표, 현장지원 전문가)
- 2) 6월 7일(토, 저녁 7시 10시)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놀이와 노래”
이 홍수 선생님(공동육아 놀이와 노래모듬 안내자)
- 3) 6월 14일(토, 오후 4시 - 6시)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자연놀이 체험 나들이”
김 선희 선생님(산 어린이집, 생태놀이 안내자)

- 4) 6월 14일(토, 저녁 7시 10시)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놀잇감 만들기”
김 미애 선생님(지역활동 안내자, 현장지원전문가)

※ 대구

장소 : 씩씩한 어린이집(053-791-6879)

- 1) 6월 21일(토,오후 4시 - 6시)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놀잇감 만들기”
김 미애 선생님(지역활동 안내자, 현장지원전문가)
- 2) 6월 21일(토, 저녁 7시 10시) “애들아 이야기 하자”
조봉호 선생님(전 튼튼 어린이집 교사대표, 현장지원 전문가)
- 3) 6월 28일(토, 오후 4시 - 6시)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놀이와 노래”
이 홍수 선생님(공동육아 놀이와 노래모듬 안내자)
- 4) 6월 28일(토, 저녁 7시 10시)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자연놀이 체험 나들이”
김 선희 선생님(산 어린이집, 생태놀이 안내자)

※ 부산, 김해

장소 : 민들레 어린이집(055-321-0046)

- 1) 7월 5일(토, 오후 4시 - 6시) “애들아 이야기 하자”
조 봉호 선생님(전 튼튼 어린이집 교사대표, 현장지원 전문가)
- 2) 7월 5일(토, 저녁 7시 10시) “성미산 나들이와 작은산 살리기 운동이 가지는 의미”
김 경태 선생님(전 날으는어린이집교사대표, 현장지원전문가)
- 3) 7월 12일(토, 오후 4시 - 6시)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이야기 문화”
박 현숙 선생님(느티나무 어린이집 원장, 현장지원전문가)
- 4) 7월 12일(토, 저녁 7시 10시)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자연놀이 체험 나들이”
김 선희 선생님(산 어린이집, 생태놀이 안내자)

II. 생태적 자연놀이 안내자 집중교육

7월 24일(목) - 7월 26일(토) 2박 3일간 집중교육 실시

강사 : 박 정화 선생님(산들 어린이집 교사대표, 생태 나들이 안내자)
여 미현 선생님(소리나는 어린이집, 놀이와 노래 안내자)

장소 : 열림원 유스호스텔(충북 보은)

7월 24일(목) - 오후 생태적 삶이란!
저녁 감수성이란!

- 25(금) - 오전 생태 자연놀이 1
- 오후 생태 자연놀이 2
- 저녁 생태 자연놀이 3
- 26(토) - 종합 평가

III. 생태자연놀이 기초 교사교육

서울, 경기중심

일시 : 10월 11일(토) - 11월 18일(토) 1일 2회 총 4회 실시
장소 : 여성 프라자 3층(별난 놀이터)

- 1) 10월 11일(토, 오후 4시-6시)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이야기 문화 1”
박 현숙 선생님(느티나무 어린이집 원장, 현장지원전문가)
- 2) 10월 11일(토, 저녁 7시-9시) “애들아 이야기 하자”
조 봉 호 선생님(튼튼 어린이집 교사대표, 현장지원전문가)
- 3) 10월 18(토, 오후 4시-6시)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자연놀이 체험 나들이”
김 선희 선생님(산 어린이집, 생태놀이 안내자)
- 4) 10월 18일(토, 오후 7시 - 9시)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놀이와 노래”
이 홍수 선생님(공동육아 놀이와 노래모듬 안내자)

지방 중심

- 대전 : 친구랑 어린이집(042-824-0065)
10월 25일(토,오후 4시-6시)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이야기 문화 ”
박 현숙 선생님(느티나무 어린이집 원장, 현장지원전문가)
- 대구 : 씩씩한 어린이집(053-791-6879)
11월 01일(토, 오후 4시 - 6시)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놀이와 노래”
이 홍수 선생님(공동육아 놀이와 노래모듬 안내자)
- 부산 : 민들레 어린이집(055-321-0046)
11월 08일(토, 오후 4시 - 6시)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놀이와 노래”
이 홍수 선생님(공동육아 놀이와 노래모듬 안내자)

IV. 생태 감수성을 통한 자연놀이 평가회

일시 12월 13일(토) 오후 3시 - 10시

장소 : 여성프라자 302호

“생태 감수성 통한 자연놀이 체험 프로그램” 진행보고 및 평가

발제 :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육국장 김 미현

- 패널 : 1) 이 홍수(열리는 교사, 교육 참가자)
2) 윤일순(현장지원 전문가, 교육 참가자)
3) 김경옥(소리나는 원장, 교육참가자)

평가 : 전체 평가(나도 한마디!!)

V.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강의 자료집 제작, 배포

6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태를 알아가기” 자료집 제작(별첨)

8. 기대효과

- 다양한 생태 감수성 놀이감각을 통해 나무·풀·바람과 교감을 가지면서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도록 한다.
- 일반적인 시각·관광교육이 아닌 놀이와 촉각을 통해 자연물을 체험하여 자연에 대한 다양한 감각과 감수성 생태계의 친근감·생태계의 경외심을 갖게 된다.
- 교사교육의 효과는 생명·자연들과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것을 생태 감수성놀이를 겪어 내면서 교사 자신의 정체성을 내면화 할 수 있는 교사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자료집 발간으로 일반 초등아이들, 교사들에게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모델을 제안한다.
-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수강생들이 강사화 되어 일반 초등방과후 교사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9. 종합평가

가) 수료학생이 작성한 수업평가서(평가서 중심 토론형식으로)

1. 생태 감수성 자연놀이 안내자 교육사업의 만족도?

자연놀이 안내자 교육대상자 13명중 12명 만족, 1명은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대다수의 수강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지속적인 교육혜택을 받은 일부 수강생들은 교육 수료 후 기초교육활동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런 심화 과정속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평가되었다.)

2. 이번 교육이 나에게 필요한 교육이었나? 그 이유는 !

13명중 13명이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교사들이 생태감수성 자연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교사가 먼저 생태감수성 자연놀이를 놀아보고 나서 동료 교사에게 기초 교육을 시도해보며 아이들과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번 교육이 생활 속에서 활용(적용)가능한가?

13명중 13명이 적용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생태 놀이중심이라 바로 어린이집&방과후에서 활용 가능한 놀이들이라 활용(적용)가능성 평가가 높게 나왔다.

나) 종합적인 사업 평가서

·생태감수성을 통한 자연놀이 프로그램은 놀이-경험중심의 교육과정이었다. 자연놀이를 통해 직접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프로그램 이전에 생태를 바라보는 관점과 놀이의 철학을 생각하고 고민하여 실제 놀이-경험중심의 교육과정이었다.

- 생태나들이&놀이의 통합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실제 아이들의 눈&몸에 맞는 놀이를 연구하고 직접 경험해보는 통합적 생태놀이를 직접 해 보았다. 생태놀이는 특정한 놀이의 형태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신체적·정서적·심리적 영향을 주는 통합적 생태놀이를 시도해보았다.

다) 향후 진행 방향

생태감수성을 통한 놀이를 기록하고 개발하여 영역별로 나누어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터전에서 직접하고 있는 놀이들을 리서치하고자 한다. 생태놀이의 영역화는 자치 놀이의 즉흥성, 창조성을 훼손을 최소화 하여 생태감수성놀이의 검증과 확산을 위해 자료집을 발간활동을 한다.

공동육아 홈페이지(www.gongdong.or.kr)' 및 격월간 <공동육아>를 통해 교육 성과와 교육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생태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